

예산지명 1,100년 기념
제2회 예산학 발전 학술세미나

예산의 서원 역사와 서원 복원의 필요성

예산문화원



논문

1. 자암 김구와 덕잠서원 최영성(한국전통문화대)	7
토론 성봉현(충남대)	35
2. 회암서원 입지환경과 주변의 관련 암각채 고찰 박성묵(예산역사연구소)	37
토론 성봉현(충남대)	58
3. 도산서원(道山書院)의 역사와 배향인물 지두환(국민대)	61
토론 유준상(한국문중문화연구원)	81
4. 서원 복원 추이와 예산지역 서원 복원의 필요성 이해준(공주대)	85
토론 송인창(대전대)	113
5. 서원의 현대적 가용성과 예산학 김문준(건양대)	117
토론 김양식(충북연구원)	149
〈부록〉	155
1. 예산 지역 서원의 사진 자료	
2. 예산학의 연혁	

발간사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산업화 속에서 사라져 가는 지역 고유의 문화적 색깔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사업 경쟁보다는 학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지역 발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4년 충청남도에서는 지역학의 학제적 접근을 통한 기초 교재로서 『충남학의 이해』를 발간하였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학 인문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 지역에서는 현재까지도 예산문화원이 이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예산에서도 1,100년 예산의 역사와 문화를 되짚어 미래 도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하고자 하는 의지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어, 2016년 예산문화원 주도로 『내포의 중심 예산학』이라는 지역학 기본 교재를 발간하였고, 2017년 지역민을 대상으로 <역사를 알고 지역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주제로 예산학 인문 강좌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지역학으로서의 예산학의 지속가능성 검토>라는 주제로 예산지명 1,100년 기념 첫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의 학제적 연구기관으로서 ‘예산학연구센터’의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제 금년에는 <예산의 서원 역사와 서원 복원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제2회 예산학 발전 학술세미나’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예산 지방의 서원은 예산 유학의 산실로서 기호유학이라는 대한민국 사상의 한 축을 담당하여 왔으나, 한말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무너진 후 복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로 예산 지방의 서원 역사와 함께, 서원 복원의 필요성 및 서원의 현대적 가용성이 종합적

으로 연구되어 선현 추모와 인재 양성 기관으로서의 예산 지역의 서원 문화가 재창출되고, 1,100년 예산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예산 정신’을 복원하고 계승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계기 마련에 학문적 토대를 마련해 주시고, 지역학으로서 예산학이라는 학제적 접근 방법을 통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창조하는 데 예산문화원과 함께 초석을 놓고 계시는 한기범 교수님을 비롯한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시는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학 출범 당시부터 예산학을 통한 “예산정신” 함양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속적인 원동력이 되어 주고 계시는 황선봉 예산군수님과 예산군의회 이승구 의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19년 1,100년 예산의 얼을 계승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예산군 문화관광과 관계자분들과 예산 사랑의 열정 속에 충남학·예산학에 참여 하고 계시는 수강생 및 지역 주민들께도 감사드리며, 오늘의 학술세미나를 통해 잠자던 예산 정신이 부활하여 예산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9월 9일

예산문화원장
공학박사 김시윤

자암 김구와 덕잠서원

최영성(한국전통문화대 교수)

1. 머리말
2. 증중반정과 기묘사화
3. 한훤당학단(寒暄堂學團)의 학문 경향
4. 자암 김구의 일생
5. 덕잠서원(德岑書院)의 역사
6.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을 ‘도학(道學)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기묘명현(己卯名賢) 가운데 한 분이 자암(自庵) 김구(金絿: 1488~1534)다. 그는 기묘명현 가운데 조광조(趙光祖: 靜庵)·김정(金淨: 冲庵)과 같은 반열로 평가를 받는다. 공교롭게도 아호에 모두 ‘庵’ 자가 들어간다. 이른바 ‘삼암(三庵)’이라는 일컬음은 이런 이유에서 나왔다.

고향이 예산인 김구는 한양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나중에는 고향 예산으로 돌아왔으며 신암면 종경리(宗敬里) 선영에 묻혔다. 그의 영원한 고향은 예산이다. 그는 저명한 학자이자 정치가이지만 오늘날에는 ‘서예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실 전통시대에 서예는 학문의 여사(餘事)다. 같은 예산 출신인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를

서예가로만 평가한다면 그의 진면목을 제대로 살핀 것이라 할 수 없듯이, 자암 김구 역시 마찬가지다. 김구의 본령은 ‘지치주의(至治主義) 도학정치(道學政治)’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김구의 생애는 3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1488~1513)는 생장으로 부터 학문하는 과정이고, 제2기(1513~1519)는 과거에 급제한 뒤 조광조 등과 함께 도학정치의 구현을 위해 분주하던 시절이며, 제3기(1519~1534)는 기묘사화로 새로운 정치가 좌절된 뒤 14년에 걸쳐 귀양살이를 하던 시기다. 득의(得意)의 시절은 불과 6년이요 낙魄(落魄)의 세월은 14년이다. 실로 ‘영광은 짧고 아픔은 길었다.’고 할 만하다.

김구의 저술로는 『자암집』이 전한다. 남긴 저술들이 사화(士禍)로 다수 산일(散逸)된 데다 임병 양란 등 전란으로 남은 것들마저 다수가 없어졌다. 1659년에 가서야 외현손에 의해 2권 1책으로 간행되었다. 권1은 ‘사’이고, 권2는 부(賦)·표(表)·송(頌)·책(策)·의(疑) 등으로 학술성 있는 글들이 드물다. 게다가 『중종실록』 등에서도 김구의 학문과 사상을 조명할 수 있는 단서가 별로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김구 개인의 학술과 사상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의 동지(同志)들, 즉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사류의 사상과 이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그를 향사한 덕잠서원의 복원 문제가 심도 있게 거론되고 있는 만큼, 서원의 역사에 대해서도 기록을 망라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겠다.

2. 중종반정과 기묘사화

연산군 재위 십여 년은 암흑기였다. 두 차례의 사화로 사기(士氣)가 땅에 떨어졌다. 국정은 극도로 문란해졌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 헤어나지 못했다. 1506년 마침내 중종반정이 일어났다.

중종은 즉위 초부터 기강을 바로잡고 폐정(弊政)을 타파하기에 온 힘을 기울였다. 특히 침체에 빠진 문교(文教)를 부흥시키기 위해 학교를 정비하고 경연(經筵)을 복구하였을 뿐 아니라, 전날에 화(禍)를 입었던 학자들을 신원(伸冤)하고 경명행수(經明行修)의 선비를 등용하는 등 사기의 진작에 노력하였다. 이에 차츰 사기가 소생하여 새로운 기운이 일어났다. 바야흐로 지치주의(至治主義) 도학정치에 입각한 개혁정치가 출현하게 되었고, 도학자가 정치를 주도하는, 철인정치(哲人政治)를 실현하려는 학자들이 등용되기에 이르렀다.¹⁾

도학정치의 주지(主旨)는 지치주의다. ‘지치(至治)’란 한 마디로 ‘이상적인 정치’다. 『서경』 「군진(君陳)」 편의 “지극히 아름다운 정치는 향기로워 신명을 감동하게 한다.”(至治馨香, 感于神明)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천리(天理)가 구현되는 이상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정치적 이념이요, 실천적 지침이다. 유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요순(堯舜) 및 하 · 은 · 주 삼대(三代)의 정치를 이상정치의 모델로 삼아 왔다. 일찍이 당나라 때 시인 두보(杜甫)가 “치군요순상(致君堯舜上), 풍속재사순(風俗再使淳)”²⁾이라고 읊었듯이, 지치주의 도학정치는 당대의 군민(君民)을 요순시대의 군민으로 만들고 풍속을 순후(淳厚)하게 하여, 마치 요순시대의 일월(日月)을 직접 눈으로 보듯이 하려 한 실천적 정치운동이다. 대개 유교의 이념을 재천명하고 이를 새로운 역사 현실에 응용하려 할 때, 우선 이론보다도 실천적 영역을 광범하게 추구하기 마련이다. 도학정치가 이론보다 실천을 위주로 하였던 것은 이 때문이다.

지치주의 도학정치로 한때는 조야(朝野)가 당우삼대(唐虞三代)의 성치(盛治)를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보수파의 반격으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실패로 끝난 데에는 보수파의 반격 말고도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신진사류들이 개혁에 급급한 나머지, 임금의 자질

1) 『栗谷全書』 권15, 10b, 『東湖問答』, <論我朝古道不復> 참조.

2) 『杜詩鏡銓』 권1, 「奉贈韋左丞二十二韻」.

이나 시의(時宜) 여부는 헤아리지 않고 자신들의 이념을 밀어붙이려 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급진성-과격성은 마침내 보수 기성세력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개혁의 실패 원인을 분석해보면, 당시의 훈구파 대신들과 크게 반목·대립하였던 점이 첫째요, 자질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임금에게 무리하게 개혁을 요구하고, 임금의 행위를 ‘도학’으로 구속함으로써 불만과 염증을 샀던 점이 둘째다.

훈구파와 반목·대립하게 된 것은, 도학파들이 성리학을 중시한 나머지 고려 이래 수백 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사장(詞章)을 배척한 데 일차적 원인이 있었다. 당시 남곤(南袞)·심정(沈貞)·김전(金詮)·이행(李荇) 등 훈구파 학자 대부분이 사장을 주로 하였다. 이에 비해 조광조 등 신진 도학파는 도학을 중시하고 사장을 낮추어 보았다. 사장에 능한 훈구제신(勳舊諸臣) 역시 도학파를 곱게 보지 않았다. 사장과 도학파의 대립은 신·구 대립의 시발이었다.

도학파는 군자와 소인을 엄격히 구별하였다. 군자소인론은 훈구대신들을 소인배로 몰아붙이는 데 이용되었던 측면이 있다. 당시 훈구대신치고 조광조 일파의 탄핵을 받지 않은 이가 거의 없을 정도였다. 더욱이 도학파가 현량과(賢良科)를 구실로 자파 인물들을 요로(要路)에 배치하여 세력을 키우려 한 것에 대해 훈구파는 적지 않은 위협을 느꼈다. 그러던 터에 정국공신(靖國功臣)의 위훈(僞勳) 삭제마저 관철하였다. 이에 정치·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기반을 송두리째 상실하게 될 훈신들은 도학파의 타도에 나섰다. 이 위훈삭제 사건은 기묘사화의 직접적인 발단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중종은 처음에 조광조 등의 혁신 정치에 호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그러나 지나친 도학적 구속과 확집(確執)에 점차 염증과 불만을 갖게 되었다. 그들로부터 마음이 멀어져갔다. 이 밖에 ‘속고내(速古乃) 사건’³⁾으로 여러 재추(宰樞)들이 도학파에게 불만을 품었던 것도 하나의 원인(遠因)이었다. 이는 중종 13년(1518) 8월, 회령부(會寧

府)의 야인(野人) 속고내의 유포(誘捕) 문제로 신·구 신료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던 사건이다.

소인배로 지목된 남곤과 훈적(勳籍)에서 삭제된 심정 등 훈구파는 조광조 일파의 타도에 적극 나섰다. 그들은 천하의 인심이 조광조를 지지하고 조광조가 공신들을 제거한 뒤 스스로 임금이 되려 한다는 소문을 퍼트렸다. 또한 조광조 등 신진사류가 당파를 만들어 과격한 일을 자행하고 정치를 문란케 하니 처벌해야 한다고 거듭 주청하였다. 이에 중종은 마침내 조광조와 그의 당여(黨與)로 지목되는 인사들을 체포하여 문초토록 명하였다. 훈구파가 내세운 조광조 등의 죄목은 ‘이소능장(以少凌長)’, ‘이천방귀(以賤妨貴)’였다.

훈구파는 조광조 일파를 당장 죽이려 하였다. 이에 영의정 정광필(鄭光弼), 좌의정 안당(安堂), 병조판서 이장곤(李長坤) 등 평소 조광조 등을 아끼던 일부 대신들은 ‘젊은 선비들이 현실을 모르고 한 실수라.’고 적극 변호하였다. 끝내 변호하던 이들마저 하옥되었다. 이어 성균관 유생 이약수(李若水)를 비롯한 유림 1천여 명도 신진사류의 억울함을 간하다가 하옥되었다. 중종 14년(1519) 11월, 조광조 등은 일단 감사(減死)하여 귀양에 처해졌다. 그러나 조광조는 결국 다음 달에 유배지인 전라도 능주(綾州)에서 사사(賜死)되었다. 김정(金淨) · 김식(金湜) · 기준(奇遵) · 한충(韓忠) 등은 귀양 갔다가 사형당하거나 자결하였고,

-
- 3) 중종 7년(1512)부터 여진의 추장 속고내가 함경도 甲山 지방에서 횡행하였지만 체포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다시 무리들과 함께 사냥을 한다는 密啓가 있자, 당시 조정의 宰樞들은 한결같이 이 기회에 몰래 급습하여 속고내를 생포, 후환을 없애야 한다고 하였으며, 조정에서는 衆議에 따라 李之芳을 討捕使로 보내기로 하였다. 이 때 부제학 조광조가 “이 일은 王者가 오랑캐를 막는 도리가 아니다. 당당한 聖朝에서 오랑캐를 잡기 위해 구차한 죄를 행하여 나라를 욕되게 할까 염려된다”고 반대하자, 중종은 이지방의 파견을 즉시 중지하였다. 이에 신료들은, 조정의 큰 논의가 한 신하의 반대로 중지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조광조에게 불평을 품었다. 『사재집』 권4, 4a-5a, 『思齋撫言(上)』 참조.

김구(金絿)·박세희(朴世熹)·박훈(朴薰)·이자(李紆) 등은 수년간 유배 생활을 하였다. 기묘사화에 관련되어 화를 입은 학자들을 ‘기묘명현’이라 한다.

기묘사화 직후 조정의 요직은 훈구파로 개편되고 현량과도 폐지되었다. 지치주의 도학파의 이론과 실천의 기반이었던 『소학(小學)』과 『근사록(近思錄)』이 금서로 지목되어 배우는 것이 엄격히 금해졌다.

지치주의를 내걸고 일세를 경륜하려 했던 도학과 학자들의 용기와 정성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다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행동의 면면을 보면 지나친 점이 없지는 않았다. 당시 많은 사람이 그들의 날카로운 기개와 지나친 자기 확신을 우려하였다. 또 임금의 역량과 시의(時宜)를 살피지 못한 데 대해서도 그들의 총명을 의심하였다. 당시 조광조의 주위에는 연소기예(年少氣銳)한 과격론자들이 많아서, 급류(急流)에서 용퇴를 희망했던 조광조로서도 중도에 돌아서지 못할 처지에 있었다.⁴⁾ 조광조의 불행은 너무 빠르게 출세한 것과, 벼슬에서 물러나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 퇴계 이황은 조광조의 학문 역량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했던 것을 아쉬워하였다.⁵⁾

그러나 ‘급진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급진적’이라는 것은 지치주의 개혁정치가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조광조 등이 추진한 개혁정치는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말았지만, 이는 반정(反正) 직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왔다. 따라서 그 본래의 취지는 잘 살펴야 한다. 이에 대해 조광조의 말을 직접 살피기로 한다.

4) 『退溪文集』 권48, 31a, 34b, 「靜庵趙先生行狀」 “先生蓋已見其幾, 知道之難行, 而欲避久矣.”, “奇公遵嘗發山林獨往之歎, 亟稱愜焉, 則急流勇退, 本其雅素之志也.”

5) 『退溪言行錄』 권5, 「類編」, <論人物>.

예부터 뜻 있는 선비가 임금을 만나서 도를 행한 것이 매우 적습니다. 대개 때는 잃기가 쉽고 기회는 얻기가 어렵습니다.⁶⁾

반정한 뒤 아직도 머뭇거리는[因循] 버릇이 있습니다. …… 만약 지금 사풍(士風)을 바로잡지 않고 구습(舊習)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인심을 어느 때 변화시킬 것이며, 지치를 어느 때 가셔야 볼 수 있겠습니까. …… 천하의 형세는 나아가지 않으면 후퇴하게 됩니다. 지금 떨치고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마도 수없이 변하는 인심을 헤아릴 수 없을 듯합니다.⁷⁾

아주 급할 때 일을 더디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같이만 하고 만다면 반드시 나아가지 못하고 점점 후퇴할 것입니다.⁸⁾

요컨대, 반정이라는 일대 정치적 변화가 있을 때 천재일우(千載一遇)의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개혁이나 변통을 과감히 단행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임금의 강력한 실행과 군신(群臣)의 강력한 건의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광조는 이를 위해 군주의 독단이 배제되고, 신권(臣權)이 신장되어 자율적이고 기능적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임금과 신하는 항상 성실을 다하여야 치화(治化)의 성공을 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⁹⁾

조광조·김구 등은 개혁정치의 성공과 실패를 따지지 않았다. 성공과 실패를 하늘에 맡기고 오직 ‘지성(至誠)’ 두 글자를 생각하였다. 또 후세의 역사적 평가만을 염두에 두었다. 결국 조광조 등은 역사의 승리가 되었다. 성공한 삶의 본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6) 『靜庵集』 권4, 4b, 「復拜副提學時啓(八)」.

7) 『정암집』 권3, 11b-12a, 「侍講官時啓(二)」.

8) 『정암집』 권3, 2b, 「檢討官時啓(五)」.

9) 『정암집』 권3, 12b-13a, 「參贊官時啓(一)」 “古云, 至誠感神. 又曰, 不誠無物. 君之遇臣, 臣之事君, 皆以誠實, 則治化可期其成也.”

이제 다음에서는, 조선 도학의 시조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1454~1504) 학단(學團)의 학문 경향을 고찰함으로써 김구가 주창했던 지치주의의 사상적, 정신적 배경인 도학사상의 일면모를 엿보기로 한다.

3. 한훤당학단(寒暄堂學團)의 학문 경향

『전고대방(典故大方)』에 의하면 자암 김구는 김굉필의 문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문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김굉필은 1498년에 무오사화를 만나 평안도 희천(熙川)으로 귀양을 갔다. 이때 김구는 11살이었다. 그 이전에 김굉필을 직접 만났는지도 의문이고, 그에게 배울 기회가 있었는지는 더욱 의문이다. ‘자암기년록(自庵紀年錄)’에 사승 관계를 언급함이 없는 것은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라고 하겠다. 다만, 후일의 기묘명현 다수가 김굉필의 학통과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고, 김굉필의 학문과 사상에 영향을 받은 학자가 많았다. 김구 역시 김굉필을 사숙(私淑)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김굉필의 수제자인 조광조와 ‘지동도합(志同道合)’한 처지임을 고려할 때 김구 또한 한훤당 학단의 일원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지치주의 도학과 개혁신정은 사실상 김굉필의 사상에 근원을 두었다는 점에서 그 학단의 사상적, 학문적 경향을 살펴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한훤당 김굉필은 고려 말엽 정몽주가 단서를 열어놓은 도학을 하나의 학문 경향으로 승화시켰다. 김굉필은 ‘조선도학의 시조’로 일컬어졌으며, 이후 4백여 년 동안 도학자의 전형으로 받아들여졌다. 김굉필이 씨를 뿌린 도학은 학문과 정치의 기준이 되었다. 조선의 선비들은 김굉필을 본받아 『소학』을 통해 근거(根基)를 배양하였고, 그 기운은

선비의 원기(元氣), 나아가 국가의 원기로 승화하여 국맥(國脈)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김굉필은 『소학』으로 학문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소학』에서 요구하는 강한 실천성을 바탕으로 도덕적 인간, 도덕적 이상사회를 추구하였다. 개인의 수양과 사회 개혁은 서로 다른 차원의 것이 아니다. 김굉필이 몸으로 보인 ‘자기 수양[律己]’의 정신은 조광조의 단계에 이르러 도학적 이상국가의 추구로 발전하였다.

『소학』은 강한 실천력을 수반한다. 이 실천력은 개인의 수신에 그치지 않고 사회와 국가로 연결되어 도덕적 이상사회를 위한 원심력과 추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조광조를 영수로 한 지치주의 도학과 학자들이 불과 3~4년 만에 굵직한 개혁적 정책들을 입안하여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소학』에서 힘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한 예로 조광조가 펼쳤던 정책의 대강 가운데 ‘이욕의 근원을 막는 것’(塞利源)¹⁰⁾은 『소학』을 일관하는 내용의 하나다. 사리(私利)의 근원을 막으려는 지치주의파 학자들은 정국공신(靖國功臣)의 위훈(僞勳) 삭제¹¹⁾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한빙계」, <지경존성(持敬存誠)> 장 말미에 “일원(一源)에서 이욕의 근원을 끊으면 군사를 씀이 만 배나 될 것이다.”(絕利一源, 則用師萬倍矣)라고 한 말이 있다.¹²⁾ 이 말은 사람의 여러 감각기관 가운데 그 하나를 끊으면 다른 기관의 쓰임이 열 배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눈이 먼 소경이 듣는 것에 밝고 말 못하는 병어리가 눈치가 빠른 것과 같은 이치다. 이욕심(利慾心)의 근원을 끊어 그 쓰임을 다른 것으로 돌리면 폭발력을 지닌 정책적 효과가 나타난다. 이를 볼 때 개인의

10) 『栗谷全書』 권13, 37b, 「道峯書院記」 “惟我靜菴先生, …… 其所惓惓者, 以格君心, 陳王政, 闢義路, 塞利源爲先務.”

11) 削勳의 규모는 靖國功臣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76명이었다.

12) 도교 계통의 책 『黃帝陰符經』 하편에 나온다. 유가의 ‘持敬存誠’ 사상과 통하기 때문에 인용한 것 같다.

수양과 사회 개혁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치상으로 다를 바 없다.

이처럼 『소학』이 지닌 실천성의 위력이 대단하였기 때문에, 훈구파 학인들은 『소학』을 경계하였다. 그들은 지치주의파 학자들이 『소학』에 담긴 당우(唐虞)의 정치에 가탁하여 세상을 속인다고 비판하였고, 마침내 역공을 취하여 저들을 쓰러뜨렸다. 이후 지치주의 도학과의 이념적 바탕이 되었던 『소학』과 『근사록』은 사실상 금서로 지목되어 배우는 사람이 없었다.¹³⁾ 민간에서는 『소학』이 ‘재앙을 잉태한 책’(禍胎)으로 인식되었다.¹⁴⁾ 『소학』을 지니고 있으면 ‘도학파의 무리’로 일컬어졌고, 『소학』과 『근사록』 책을 찢어서 벽을 바르기도 했다.¹⁵⁾

『소학』의 수난은 오래 가지 않았다. 선조 즉위와 함께 도학파가 집권함으로써 『소학』은 다시 권장되고 경연(經筵)에서 진강(進講)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소학』은 ‘성인 되는 기본’이 담긴 책으로서의 위상을 지니면서 조선 말기까지 내려왔다. 후일 조선 말기 척사위정운동(斥邪衛正運動)의 거두인 중암(重菴) 김평묵(金平默: 1819~1891)은 『소학』으로 학문의 기본을 삼은 김굉필에 대해 논하면서, 김굉필의 학문은 곧장 실지(實地)를 밟은 것이기 때문에 학문에 가장 근본이 있다고 전제한 뒤,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어려운 시기를 당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고 양호(洋胡)를 어렵게 만드는 척사와 학자들은 모두 김굉필의 학문을 조술(祖述)하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하였다. 또 김평묵은 『소학』 책을 5백 번이나 읽은 김상헌(金尙憲)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그가 『소학』 책을 통해 힘을 얻어 문장에 크게 뛰어났고, 입심율기(立心律己)와 거가처세(居家處世)에서 볼 만한 것이 있었는데, 그 평강대

13) 『惺所覆瓿藁』 권23, 5a, 「惺翁識小錄(中)」.

14) 『己卯錄補遺』 上, 「趙靜菴傳」 참조.

15) 『中宗實錄』, 중종 28년(1533) 12월 19일(丁亥)조 참조.

용(宏綱大用)이 다 『소학』에서 나왔다고 하였다.¹⁶⁾ 『소학』의 공효를 집작하게 하는 평이다.

『소학』의 위상은 김굉필이 그 책으로 학자들을 교육함으로써 닦아 놓은 것이다. 『소학』은 도덕적 지상주의로 가는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다. 김굉필의 『소학』 표장(表章)은 조선 도학의 남상(濫觴)을 이루었다. 그리고 16세기 중반 사림과 집권 이후에는 강하(江河)를 이루었다. 또 17~18세기에는 대양(大洋)의 형세를 연출한 감이 있었다. 조선유학사에서 김굉필의 위상은 이로부터 접근해야 할 것이다.

김굉필은 ‘경(敬)’을 통해 『소학』의 가르침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경’이라는 수양 방법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조선 성리학의 요체다. 김굉필은 조선의 유학을 ‘심학(心學)’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김굉필 이전에는 심학의 모습을 제대로 선보인 학자가 없었다. 명종·선조 시기 이후로 조선의 유학은 심학으로 정초되어 갔다. 17세기 중엽 이후에는 ‘경’을 중심으로 한 심학 체계가 공고하게 구축되었다.¹⁷⁾

김굉필의 문인과 그들이 양성한 학인들은 16세기 중반 이후, 조선의 학계·정계를 이끌었다. 이들은 선조 즉위 이후 사림파(士林派) 집권의 주인공들이었다. 조선을 도덕적 이상국가로 승화시키고 ‘사림의 나라’로 만든 그 기초는 사실상 김굉필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16) 『重菴集』 권9, 18b, 「答梁豐川」 “暄翁既受此書, 直是腳踏實地, 三十猶自稱小學童子, 故其學最爲有本. 一傳而得靜庵先生, 至今儒者, 當皓天不復洋胡大揚之日, 猶得依樣葫蘆, 爲強此艱彼之地者, 皆祖於暄翁矣. 又如石室先生讀小學至五百遍, 不翅泥醬爛熟. 是故, 不但文章大達, 其立心律己, 居家處世, 宏綱大用, 皆從小學中出來.”

17) 이상은 최영성, 「한국유학사에서의 김굉필의 위상」, 『한국철학논집』 41, 한국철학연구회, 2014 참조.

4. 자암 김구의 일생

김구의 자는 대유(大柔), 호는 자암(自菴),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여섯 살 때 ‘석류(石榴)’ 시를 지어 신동으로 이름을 날렸다. 사승(師承) 관계는 확실하지 않지만 김굉필을 사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507년(중종 2) 생원·진사 양과에 급제한 뒤 성균관에 들어갔다. 성균관에 있을 때는 문종비(文宗妃) 현덕왕후(顯德王后) 권씨(昭陵)를 복위시킬 것을 건의하는 등 신진 소장파로 활동하였다. 이것은 개혁정치, 도학 정치의 서막을 올리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 1513년(중종 8) 별시문과에 급제한 뒤 1515년(중종 10)에는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고, 벼슬이 누진(累進)하여 부제학에 이르렀다. 이때 그는 30여 살에 불과하였다.

그는 중종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중종이 갓옷을 하사할 정도였다고 한다.¹⁸⁾ 조광조·김정 등과 의기투합하여 도학정치를 이루고자 힘썼는데, 이 세 사람이 도학정치의 주도적 인물이었다는 평을 받았다.¹⁹⁾ 그는 일찍이 우문정치(右文政治)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화(詞華)를 위한 문(文)이 아닌 관도(貫道)를 위한 문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른바 문(文)에는 두 가지가 있다. 옛말에 이르기를 “문(文)이 여기에 있지 아니한가.”라 하였고, 또 “온 천하를 경륜하여 다스린다.”고 하였다. 이것은 문(文)을 도로써 말한 것이다. 후세의 문은 사화(詞華)와 장구(章句)

18) 鄭斗卿, 『東溟集』 권1, 7a, 「奉贈同春宋判書明甫 并序」 “令兄向者自上有貂裘之賜, 士林聞者, 莫不榮之. 昨者, 義城安使君, 寄自菴金先生絳詩集. 閱其詩, 中廟於自菴, 亦賜此物.”

19) 『惺軒集』 권4, 2a, 「自庵金先生書院遺墟碑」 “余幼時聞自庵金先生, 與趙靜庵金沖庵兩先正, 並稱爲三庵.”

일 뿐, 문은 문대로 심(心)은 심대로 갈라졌으니 이것은 문을 재(才)로써 말한 것이다. 관도(貫道)의 문은 어디나 사용되는 문이요, 사회의 문은 쓰여서는 안 될 문이다. 어디나 사용되는 문은 방책(方策)에 있는데 모두 정심(正心)·수심(修心)의 방법일 뿐이다. 그러나 지금 문을 하는 자들은 몸에 체득하지도 않고 일에 배풀고, 한갓 사회로써 아름다움을 살필 뿐이니 장차 어디에 쓰겠는가.²⁰⁾

이것은 도문일치(道文一致)의 사상으로써, 사장파를 겨냥한 것이라 하겠다.

1519년 기묘사화가 일어났다. 그는 조광조 등 동지와 함께 옥에 갇혔다. 신진사류의 리더라는 위상 때문에 조광조·김정과 함께 사형으로 정해졌으나, 중종의 특명으로 장배(杖配)되기에 이르렀다. 그는 당시의 「옥중상소(獄中上疏)」에서 자신들이 '사회(士禍)'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성조(聖朝)를 만나 경악(經輓: 경연)에 드나들었습니다. 가까이서 성덕(盛德)을 입어 우직한 충정[愚衷]을 펼치며 다하다가 못사람의 시의(猜疑)를 범하였습니다. 우리 임금을 요순과 같은 임금이 되도록 바랐을 뿐, 어찌 제 몸을 위해 일을 도모하였겠습니까? 하늘의 해가 밝게 비출 것입니다. 다른 사심(邪心)은 없습니다. 다만 사류(士類)의 화가 한 번 열림에, 장차 후일의 나라 명맥을 염려하지 않겠습니까.²¹⁾

조광조가 올린 '옥중상소'와 다르지 않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즈음에도 자신들의 수난을 '사회'라고 한 기개가 대단하다.

1519년 11월 16일 체포되어 의금부에 하옥되고, 경상도 개령(開寧: 지금의 김천시 일원)에 부쳐하라는 명이 내려졌으나, 12월 17일에 귀양

20) 『중종실록』, 9년(1514) 3월 4일 丁卯條.

21) 『自菴集』 권2, 7a, 「獄中上疏」.

지가 경상도 남해(南海)로 바뀌었다. 외딴 섬에서 13년간 고독, 풍토병과 싸우며 귀양살이를 하였다. 남해에 있을 때 부인이 배소까지 찾아왔다는 일화는 널리 알려져 있다.

경진년(1520) 봄에 부인 김해김씨가 한 필의 말로 짐 한 바리와 종 5~6명을 거느리고 자암의 배소(配所)에 뒤따라갔다. 이때는 김대성(金大成: 金湜)이 산속으로 도망했던 터라 탐색이 엄중하였다. 갈림길을 지키는 군졸이 서로 바라보면서 수직(守直)할 정도였다. 무릇 나그네가 있으면 모두 수검(搜檢)한 뒤에 통과시켰다. 경상감사 반석평(潘碩枰)이 길에서 여행하는 어떤 부인이 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길가에 멈추어 사정을 물어본 다음, 민망하고 측은하게 여겨서 양식과 물품을 찾아 주고, 또 하도(下道)로 가는 영리(營吏)를 시켜 배행(陪行)하게 하였다.²²⁾

김구는 이어 1531년 전라로 임피(臨陂)로 옮겨갔다. 옛말로로는 ‘양이(量移)’라는 것이었다. 귀양 간 사람의 정상을 참작하여 여건이 조금 나은 지방으로 옮겨 주는 것이다. 임피에서 1년 반 가량 더 있다가 1533년 4월 마침내 석방되었다. 이때까지 살아남은 기묘명현은 김구와 박훈(朴薰) 뿐이었다. 14년이라는 실로 긴 귀양살이였다.

석방된 뒤 그는 곧장 고향 예산에 돌아왔다. 평소 지극한 효자로 알려졌던 그는 자신이 유배살이를 할 때 세상을 떠난 부모를 위해 뒤미처 시묘살이를 하다가 병을 얻어 이듬해 11월에 세상을 떠났다. 이때 나이가 47세였다.

김구는 서예에 일가를 이루었다. 조선 전기 사대가(四大家)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²³⁾ 후학들은 그가 쓴 글씨 한 점이라도 갖기를 소원하였으며, 과거 시험 답안지 글씨마저 보배로 받들 정도였다고 한다.²⁴⁾

22) 『己卯錄補遺』 上, 「金絳傳」 참조.

23) 사대가는 安平大君·金絳·楊士彦·韓濩를 가리킨다. 李肯翹, 『燃藜室記述』 권18, 宣祖朝故事本末, <宣祖朝名臣> 참조.

그는 오랜 유배 생활, 47세의 짧은 수명 등으로 세상에 남긴 필적이 많지 않다. 일찍이 중국 사람이 자기의 글씨를 보배로 여긴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더 이상 쓰지 않았다고도 한다.

김구의 필체를 인수체(仁壽體)라고 한다.²⁵⁾ 필력이 경건(勁健)하였고 특히 행서(行書)로 유명하였다.²⁶⁾ 그는 중요(鍾繇)로부터 왕희지(王羲之)로 이어지는 필법을 본받았는데,²⁷⁾ 학서(學書) 과정에서 왕희지 글씨를 기본으로 하면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 중요에 이르렀다. 중요은 예서와 해서에 뛰어났다. 장평도(長平度)의 측면에서 세로의 길이가 긴, 가름한 스타일의 구양순체와는 달리 비교적 납작한 꼴을 하는 것이 종 · 왕의 특색이다. 김구는 이런 스타일을 계승하였다. 전서나 예서의 측면에서 이렇다 할 작품이 없는 것도 특이점이라 하겠다. 김구의 서예는 한 마디로 해서와 행서의 필법에서 왕희지를 잘 배운 사람이다. 초서는 특기가 아니지만, 중국풍과는 다른 조선풍으로 분방하게 구사하여, 뒷날 양사언(楊士彦)이나 황기로(黃耆老) 같은 이들의 초서를 열어준 것으로 보인다.

조선 영·정조 때의 학자로 서화에 감식안(鑑識眼)이 높았던 이계(耳溪) 홍양호(洪良浩: 1724~1802)는 ‘제김자암필적(題金自菴筆蹟)’이라는 제목의 제발(題跋)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암 김선생의 도학과 절행(節行)은 기묘사류(己卯士類)에게 존송받았으니, 정암과 충암 등 제현과 진퇴(進退)를 같이 하였다. 문장과 서예는

24) 安邦俊, 『隱峯全書』 권1, 1b-2a, 「五倫歌 并序」 “又於漢中, 得己卯名賢金自菴絳科試名紙於閭閻間, 愛而寶玩. 後贈其子孫, 以爲杜家之寶.”

25) ‘인수체’란 김구가 仁壽坊에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26) 자암과 함께 행서로 유명한 사람은 聽松 成守琛, 南窓 金玄成이었다. 보는 사람에 따라 ‘초서’를 더 높이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27) 魏의 鍾繇(중요)와 晉의 王羲之, 세칭 鍾王의 서체를 이어 받아 仁壽體를 이룩하였다.

부수적으로 하는 일이었으나 필법이 매우 에스럽고 고상[高古]하였다. 당시에 위진풍(魏晉風)이 있다는 일컬음이 있었다.

내가 젊어서 선생께서 쓰신 ‘아침에는 북해에서 놀고 저녁에는 창오에서 논다[朝遊北海暮蒼梧]’²⁸⁾는 절구(絕句) 한 수의 대자 초서(大字草書)를 보았는데, 웅위(雄偉)하고 기굴(奇崛)하여 왕희지의 필력이 있었다. 백하(白下) 윤순(尹淳: 1680~1741)이 일찍이 이 서첩을 보고 흠모한 끝에 그 필법을 모방하려 하였으나, 붓을 쥐고 한참 동안 있다가 망연자실하며 포기했다고 한다.

선생은 원악지(遠惡地)에 유배되어 고생하느라 수명이 길지 못했다. 따라서 세상에 전하는 글씨가 매우 적다. 김공 사척(金公思稭)이 충청도 연산(連山)의 수령으로 나갔을 때 도적 한 명을 잡아 그의 보따리를 열어 보았더니 한 서첩이 있었다. 바로 자암의 글씨였다. 그의 시 30여 편을 쓴 것인데, 글씨의 필획이 힘차고 시구의 운치가 소산(蕭散)하였다. 옛사람의 필법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마치 왕희지의 난정첩(蘭亭帖)처럼 산음 수죽(山陰脩竹)이 꺾질을 벗고 땅속에서 나와 우뚝 솟아나서 구름을 뚫을 듯한 기세가 있었다. 이 서첩은 난리통에 없어지지 않고 도적에게도 훼손되지 않았다. 아마도 귀신이 보이지 않게 도왔기 때문이리라.²⁹⁾

위의 글에서는 김구의 서법에 대한 특징을 대개 ①위진풍의 예술성, ②고고(高古)한 탈속성, ③웅위기굴(雄偉奇崛)로 표현되는 웅장함과

28) 중국 당나라 때의 道士 呂洞賓의 시 ‘洞庭湖’ 가운데 한 구절이다.

29) 『耳溪集』 권16, 45b-46a, 「題金自菴絳筆蹟」 “自菴金先生道學節行, 爲己卯士類所尊, 與靜沖諸賢, 同其進退. 至若文章翰墨, 乃其餘事. 而筆法尤高古, 當時稱有魏晉之風. 良浩少也, 得見公所書朝遊北海暮蒼梧一絕大草, 雄偉奇崛, 有大令筆力. 尹白下嘗見而慕之, 欲倣其法, 把筆良久, 憊然而罷云. 然先生流竄嶺海, 年壽不永, 故書跡傳于世甚少. 近歲金君思稭, 宰連山, 獲一盜. 祛其囊, 有一書帖, 卽自菴書也. 寫其詩三十餘篇, 隨手漫筆. 不甚致意, 而鋒穎過勁, 韻致蕭散. 可見其心畫, 而第不規規於古人之法. 譬如山陰脩竹解苞出土, 挺然有干雲之勢, 而柯葉猶未猗猗, 亦足以冠百卉矣. 今於兩賢跋文, 見其一顯一晦若有數也. 始則不減於兵燹, 而得諸丐食之婦, 今又不毀於盜賊, 而入於金君之手, 殆鬼神之默護 °而非人之所能爲也.”

변화무쌍함으로 요약하였다. 김구는 뒷날 ‘대동필종(大東筆宗)’으로 꼽혔는데, 글씨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평이 전혀 지나치지 않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서예 작품은 대개 다음과 같다.

- ① 『自菴書法』(1첩) — 현전
- ② 『宇宙盈虛帖』(1첩) — 불명
- ③ 『蘭亭記』(1첩) — 현전
- ④ 『喜雨亭記』(1첩, 초서) — 현전
- ⑤ 「遲日江山麗 春風花草香」(杜甫詩, 초서) — 현전
- ⑥ 「朝遊北海暮蒼梧」(초서) — 불명
- ⑦ 『千字文緝』 — 불명³⁰⁾
- ⑧ 「李謙仁墓碑」 — 현전

자암 김구에 대한 인물평은 적지 않다. 그 가운데 그의 진면목을 잘 지적한 것으로 생각되는 한두 가지를 소개하기로 한다.

당시 제현이 일컬었던 바, 문장은 한대(漢代)의 것이요, 시는 당대(唐代)의 것이요, 진초(眞草)는 진대(晉代)의 것이요, 인물은 송대(宋代)의 사람이다. 이것이 대개 정론(定論)이다.³¹⁾

공은 정치의 원리(治體)를 알아서, 어떤 일에든 바르게 간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그러므로 사림(士林)이 중하게 여겼다.³²⁾

30) 安邦俊, 『隱峯全書』 권1, 1b, 「五倫歌 并序」 “先生好玩金自菴隸字畫, 晚年得見自菴所寫千字文緝, 作絕句八首, 使之模出刊行.”

31) 林翰周, 『惺軒集』 권4, 2b, 「自庵金先生書院遺墟碑」 “當日諸賢所稱, 文則漢, 詩則唐, 眞草則晉, 人物則宋者, 蓋定論也.”

32) 『己卯錄補遺』 上, 「金隸傳」 참조.

1746년(영조 22)에 영의정 김재로(金在魯)의 건의로 기묘명현에게 대한 사시(賜諡)가 베풀어졌다. 김구에게 ‘문의(文懿)’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실로 만시지탄이 없지 않았다. 그에 앞서 1705년에는 고향 예산에 그를 배향하는 덕잠서원이 세워졌다. 시호가 내리기 전에 서원에 배향된 사례의 하나라 하겠다.

5. 덕잠서원(德岑書院)의 역사

1) 건원(建院)과 중수(重修)

덕잠서원은 조선 중종 때 기묘명현의 한 사람이었던 자암 김구를 모신 서원이다.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향천리 덕잠골에 있었다.³³⁾ 예산향교 부근이다.³⁴⁾ 고종 때 훼손된 뒤 아직 복설(復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서원은 1705년에 건립되어 1871년 훼손되기까지 166년의 역사를 지켜왔다. 현재 『서원지(書院誌)』가 전하지 않아(?) 서원에 대해 자세히 고찰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까지 각종 문서류 및 개인 문집 등에 전하는 관계 자료를 소개하면 대개 다음과 같다.

33) 『輿地圖書』 上卷, <忠清道/禮山/壇廟> 조에는 “德岑書院, 在縣東二里. 己卯名賢副提學金絳獨享. 崇禎紀元後壬午創建, 甲午宣額.”(한국사료총서 제 20집, 국사편찬위원회)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임오년(1702)’ 창건 운운한 것은 기록의 착오다.

34) 향천리 金烏山 동쪽, 예산향교 뒷산 너머 남동향 비탈(계단식 밭)이 유허지로 추정된다(후손 김충희 증언).

- 예조(禮曹), 『서원등록(書院謄錄)』, 1871년 8월 22일조
- 『각사등록(各司謄錄)』, 「충청감영계록(忠淸監營啓錄)」
- 어유봉(魚有鳳), 『기원집(杞園集)』 권27, 「禮山德岑書院自菴金先生(絳)奉安祭文」
- 이장찬(李章贊), 『향은집(蕙隱集)』 권2, 「禮山德岑書院重修記」
- 『자암 김구의 생애와 문학 및 서예사적 의의』에 영인, 수록된 각종 문서류

이제 이 자료들을 통해 덕잠서원의 <연표>를 작성해 보기로 한다.

연도	역사적 사실
1703년 (숙종 29)	10. 6, 예산 유생 임주국(林柱國)이 조정에 서원 설립을 건의, 허락을 받다.
1705년 (숙종 31)	지역 유림의 공의(公議)로 서원 건립되다. 장소는 예산 향교 부근 덕잠골.
1714년 (숙종 40)	10월, 조정으로부터 ‘덕잠서원’이라는 사액(賜額)을 받다.
1813년 (순조 13)	원장 김조순(金祖淳)의 주도로 제1차 중수를 하다.
1830년 (순조 30)	재력가 홍병식(洪秉弼)의 주도로 제2차 중수를 하다.
1856년 (철종 7)	원장 김좌근(金左根)의 주도로 제3차 중수를 하다.
1871년 (고종 8)	제2차 서원철폐령에 따라 훼철되다.

다음으로 덕잠서원의 역사를 좀더 자세히 살피기로 한다. 먼저 덕잠서원이 세워지게 된 배경은 『숙종실록』·『서원등록』을 통해 고찰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예산 유생 임주국(林柱國) 등이 상소하였다. 상소의 내용은 사당 건립 소청(疏請)의 건이었다. “선정(先正) 신(臣) 부제학 김구는 기묘명현인데, …… 그의 생전에는 사람들이 태산북두(泰山北斗)처럼 우러르고, 그가 죽어서는 사람들이 추양(秋陽)과 강한(江漢)처럼 사모하였습시다. 이에 그의 상재(桑梓: 고향)가 있는 옛날 향리에다 몇 묘(畝)의 건물을 세워 그의 영령을 모시는 장소로 삼았습니다. 성명(聖明)께서는 속히 예조에 명하여 특별히 사당의 건립을 허락하여 주소서.”라고 하였다.³⁵⁾ 여기서 명목은 ‘사당’이지만 사실은 서원을 지칭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³⁶⁾ 이에 예조에서는 의견서를 달아 ‘소청(疏請) 대로 시행하라.’고 건의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김구·조광조·김정은 도(道)와 덕(德)이 같은 데다 출처의 시종도 같았다. 그럼에도 김구의 사당만 없다.
2. 서원 첩설(疊設)의 혐의가 없고 비적격자를 청한 것도 아니다.

숙종은 당일자로 동부승지(同副承旨) 황일하(黃一夏)를 통해 재결(裁決)하였다. 이로써 서원 설립의 길이 열렸다.

조정의 허가를 받은 예산 유림은 서원의 건립에 박차를 가하여 2년 뒤인 1705년 마침내 서원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다시 그로부터 9년 뒤인 1714년 10월 7일에는 조정으로부터 사액(賜額)을 받았다. 사액 현판은 오늘날까지 중손가에 전한다. 『광산김씨직장공파보(光山金氏直長公派譜)』에는 「사액치제문(賜額致祭文)」이 수록되어 있다. 당시 예관은 예조정랑 박사동(朴師東)이었다. 한편 그 이듬해 작성된 봉안제문(奉安祭文)은 어유봉(魚有鳳: 1672~1744)이 지은 것으로 『기원집(杞園集)』에 실려 전한다.³⁷⁾

35) 『숙종실록』, 숙종 29년(1703) 7월 23일.

36) 『書院謄錄』, 숙종 29년(1703) 10월 6일조 참조.



덕잠서원 사액 현판

덕잠서원은 자암 김구를 단독 배향하였다. 김구와 관련하여 독향서원은 전국에서 덕잠서원이 유일하다.³⁸⁾ 뒤에 영조 때 후재(厚齋) 김간(金幹)을 덕잠서원에 배향할 것을 청하는 예산 유생의 소청(疏請)이 있었다. 이에 대해 영조는 “선현을 높이는 일은 사우(祠宇)를 건립하고 합향(合享)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허락하지 않았다.³⁹⁾ 김간은 일찍이 예산현감으로 부임, 선정(善政)을 베풀어 칭송을 받았었다. 영조가 김간의 추배(追配)를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자세히 알 수는 없다. 다만 김구의 문인 제자나 사숙인(私淑人)이 아닌, 단순히 예산과 관련 있다는 점만으로는 어렵다는 취지라 하겠다.

덕잠서원은 건원(建院) 뒤 모두 3차례의 중수가 있었다. 중수기 필사본이 남아 있어서 중수의 이모저모를 살필 수 있다. 제1차 중수는

37) 『杞園集』 권27, 「禮山德岑書院自菴金先生 絳 奉安祭文」 참조. 날짜는 1715년 1월 28일로 되어 있다.

38) 1705년 이전인 1664년(현종 5) 3월에 전라도 臨陂의 鳳巖書院이 건립되었다. 신독재 김집을 모시는 서원이다. 2년 뒤인 1666년(현종 7)에는 文懿公 자암 김구가 並享되었다(『愼獨齋全書』 권16, 附錄, 「年譜 下」 참조). 임피는 김구의 謫居地 가운데 하나다. 1531년 경상도 南海에서 이곳 임피로 옮겨져 1533년 4월 사면될 때까지 귀양살이를 하였다.

39) 『英祖實錄』, 영조 8년(1732) 10월 17일(辛未)조 “忠淸道禮山幼學辛大遂等上疏, 請以故參贊金幹配享于本邑所在己卯名賢金絳之書院. 批曰: 尊賢之事, 不在於建祠合享.”

1813년에 마쳤다. 중수기(重修記)⁴⁰⁾에 따르면, 순조의 장인이자 서원의 원장이었던 영안부원군(永安府院君) 김조순(金祖淳: 1765~1832)이 비용을 전담하여 1803년(순조 3)에 사우부터 고치기 시작하여 강당과 신문(神門) 등의 중수를 순차적으로 진행, 1813년 마쳤다고 한다. 10년이 걸린 공사였다. 당시 종사자는 예산현감 이명하(李溟河)와 장의 조문원(趙文源) · 김익서(金益敍), 별유사 김종복(金宗復) 등이었다.

제2차 중수는 1830년(순조 30)에 있었다. 중수기⁴¹⁾에 따르면, 예산향교 장의로 있던 재력가 홍병식(洪秉弼: 南陽人)의 주력으로 재실을 비롯하여 담장, 중문, 외문을 중수하였다 한다. 당시 종사자는 예산현감 이재정(李在正)과 장의 허간(許揀) · 홍병식, 별유사 김익서(金益敍) 등이었다.

제3차 중수는 1856년(철종 7)에 있었다. 중수기⁴²⁾에 따르면 김조순의 아들인 원장 김좌근(金左根: 1797~1869)이 3천 금에 달하는 경비를 부담, 새로 개와(蓋瓦)를 하여 사우를 중수하고 담과 정원을 단장하였다고 한다.⁴³⁾ 당시 종사자는 예산현감 홍훈모(洪薰謨), 장의 성맹환(成孟煥) · 김현오(金顯五), 후손 김달수(金達壽) 등이었다.

원장으로 양대에 걸쳐 부자(父子)가 역임한 것이 주목된다. 그것도 조선 후기 세도정치(勢道政治)의 상징이요 대명사인 김조순-김좌근 부자를 원장으로 선임하였다. 이것은 덕잠서원이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말해준다. 뒷날 서원철폐가 단행될 때, 흥선대원군이 지난날의 정적(政敵)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덕잠서원을 훼손했다는

40) 중수기는 1814년에 光山人 金敦敍가 작성하였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다.

41) 중수기는 金敦敍가 찬술하였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다.

42) 중수기는 土亭 李之藹의 후손 李章贊이 찬술하였다.

43) 李章贊, 『薌隱集』 권2, 107b, 「禮山德岑書院重修記」 “已而果聞其托於邑宰及院儒, 使之更議以祠宇之役, 而或慮其財用匱乏, 乃捐三千錢, 申托院儒, 亟加營繕. 於是乎昔之敗瓦傾欄, 今爲葺宇之精麗. 昔之頽墻廢砌, 今爲壇場之整潔. 一院之內, 百用具修, 儀表文物, 煥然一新.”

말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⁴⁴⁾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다음에서 논하기로 한다.

2) 훼철 이후

서원은 선현에 대한 향사와 지방 교육을 담당하던 곳이다. 오늘날로 치면 지방 사립대학의 구실을 했다. 특히 사액서원은 많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였으며 면세와 면역의 특권을 누렸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 시간이 흐를수록 봉당의 근거지로 변질되었으며, 한계와 폐단을 드러냈다. 향사를 구실로 백성들을 수탈하여 민원(民怨)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 서원은 전국에 600개소가 넘었다.

그러던 가운데 1863년 고종이 즉위하였다. 섭정(攝政)을 하던 흥선대원군은 서원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렬하였다.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나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결기에 찼다. 고종 즉위 이후로 개혁의 강도를 서서히 높여가다가 1868년, 1871년 두 차례에 걸쳐 서원 철폐를 단행하였다. 서원이 소유하던 토지와 노비까지도 몰수하였으나 완전하게 정리하기는 어려웠다. 서원 철폐로 국가 재정이 늘어나고 민생이 안정되었으나 국가 여론을 주도하는 양반 유생들의 불만이 컸다. 이후 서원 철폐는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실각으로 이어졌다.

서원 철폐령은 1868년에 처음 내려졌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조정의 명령을 즉시 시행하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자는 쪽으로 가는 서원이 많아서, 1871년에 다시 한 번 강력한 철폐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1871년에 전국의 많은 서원을 철폐할 때, 훼철되지 않고 남은 서원 · 사우는 모두 47개였다.⁴⁵⁾ 당시 존치의 기준은 ①성균관

44) 김충희, 『자암 김구를 만나다』, 115쪽.

동·서무(東西廡)에 모셔진 유현(儒賢)의 경우,⁴⁶⁾ ②충절대의(忠節大義)가 탁연병량(卓然炳烺)하여 백세토록 숭봉(崇奉)을 받을 만한 충의지인의 경우 두 가지였다. 덕잠서원은 이 기준에 들지 못하였다. 1871년 8월 22일, 충청도관찰사가 충청도 관내 24읍 33개 서원의 훼손이 완료되었음을 예조에 보고하였다. 자암 김구를 배향한 또 다른 서원인 임피 봉암서원(鳳巖書院)도 훼손의 길을 밟았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훼손 당시 위패는 김구의 묘소 부근에 매안(埋安)했으며, 서원에 모셔져 있던 영정은 소재 불명이라 한다.⁴⁷⁾

덕잠서원의 훼손 연도는 문헌에 따라 1868년, 1871년 서로 다르게 기록되고 있다. 그런데 1871년에 대다수 서원이 훼손되었던 점, 또 1868년 9월에 덕잠서원에서 상부로 올린 첩정(牒呈: 보고서)에 훼손과 관련된 내용이 보이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1868년’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덕잠서원은 훼손된 뒤 그 터는 황무지로 변해갔다. 길가는 사람들이 그곳을 가리키며 세월의 무상함을 한탄할 뿐이었다. 이에 후손들이 나섰다. 재력이 부족하여 서원을 조속히 복설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그곳에 조그만 빗돌이라도 세워서 ‘서원 터’라는 것을 알리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1940년 무렵 후손 노익(魯益)이 앞장섰고, 이어 김구의 사손(嗣孫) 김면익(金冕益)·김필진(金弼鎭)과 그 일가들이 나서서 비를 세우기에 이르렀다.⁴⁸⁾ 일제 말기인 1942년 9월의 일이었다. 비문을 쓴 사람은 홍성 출신의 유학자로 파리장서운동(巴里長書運動)

45) 『고종실록』, 8년(1871) 3월 20일자 참조.

46) 이에 해당하는 서원이 17개소다.

47) 후손 김충희 씨의 증언이다(2019. 7. 31).

48) 『惺軒集』 권4, 2b, 「自庵金先生書院遺墟碑」 “…… 今其裔孫魯益君, 諗于諸宗人曰: 「…… 俎豆之享, 宜永久不廢, 而今此遺墟, 鞠爲茂草. 行道之人, 亦指點而興嘆焉. 況其後孫乎? …」 於是, 其嗣孫冕益及弼鎭, 與諸宗殫誠出力, 石既具, 囑余以紀其事.”

에 가담했던 성현(惺軒) 임한주(林翰周: 1871~1954)다.

덕잠서원 터는 후손들의 바람과는 달리 날로 잊혀져 갔다. 게다가 서원 터에 민가가 들어서고 다시 밭으로 개간되는 과정에서 유허비마저 존재 의의를 잃어갔다. 이에 1984년 김구의 15대손인 김인관(金寅觀)이 주도하여 유허비를 신암면 종경리에 있는 김구의 묘소 아래로 옮겨 새로 세웠다.⁴⁹⁾ 새로 세운 유허비⁵⁰⁾는 임한주의 글을 그대로 쓰고, 김인관이 서원의 설립으로부터 훼손, 1984년 비석을 고쳐 세우기까지의 과정을 추기(追記) 형식으로 약술하였다. 본래의 터를 알리는 유허비가 제자리를 떠났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덕잠서원의 3차에 걸린 중수기에 따르면, 덕잠서원은 서원의 기본 배치, 즉 ①사우(祠宇), ②동서 양재(兩齋), ③강당, ④중문 및 외삼문, ⑤담장 등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인다. 그 규모라든지 좌향 등은 발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사우, 양재, 강당의 명칭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새로운 자료의 발굴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6. 맺음말

지치주의 도학정치의 기수 자암 김구는 예산이 낳은 저명한 정치가요 학자요 서예가다. 그가 정계에서 활동한 기간은 1513년부터 1519년까지 6년에 불과하다. 그는 짧은 기간에 선이 굵은 대인, 지도자의

49) 1942년에 세웠던 유허비의 존재는 현재로선 알기 어렵다. 땅에 묻었을 가능성이 높다.

50) 비신은 높이 145cm, 너비 53cm, 두께 22cm이다. 글씨와 篆字는 鄭光弼 15대손 鄭吉謨가 썼다.

면모를 보여주었다. 기묘명현 중에서 이른바 ‘삼암(三庵)’이 지도적 위치에 있었다는 평이 당시부터 내려왔는데, 김구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미하다. 그 이유는 ①문집의 분량이 적고 시문 중심이며 ②문집 이외의 연구 자료가 부족하며 ③실록 등 관찬사료의 기록이 피상적이라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그의 학술과 사상 등에 대한 연구가 전무⁵¹⁾한 것은 부족한 자료 탓이 가장 크다. 게다가 조광조에 가려진 측면이 있음도 빼놓을 수 없다.

김구의 학문과 사상을 조명하기 위해서는 조광조를 비롯한 기묘명현과 연계하여 고찰하는 것이 불가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들의 사상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한훤당 학단’의 사상 경향을 살펴서 참조하는 것이 첩경(捷徑)이라고 본다.

김구를 배향했던 덕잠서원은 예산에서 유일한 사액서원이다. 예산에서 김구가 차지하는 위상을 짐작하게 한다. 김구는 세상을 떠난 지 171년만에 덕잠서원에 배향되었다. 그로부터 41년 뒤인 1746년에는 시호가 내려졌다. 시호가 없이 사액서원에 배향된 많지 않은 사례라 하겠다.

덕잠서원은 한때 세도정치의 대명사인 김조순-김좌근 부자가 원장을 맡을 정도로 명망이 있었다. 세력도 상당했던 것 같다. 그러나 1871년 훼손된 뒤 현재까지 복설(復設)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의 유일한 사액서원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예산군민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념사업회가 조직되어 복설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점⁵²⁾에서 희망을 엿볼 수 있다.

복설을 하는 데 예산상의 문제 이외에는 큰 난관이 없을 것으로

51) 유배기의 삶, 화전별곡 등을 주제로 4·5편의 논문이 있을 뿐 학문과 사상에 관련된 논문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52) 1980년대 초에, 군민들의 성금으로 예산문예회관 자리에 복설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끝내 무산되었다고 한다(후손 김충희 씨 증언).

전망한다. 현재 서원 터는 밭으로 변해 있다. 예산군에서 매입하여 발굴조사를 거치면 될 것으로 본다. 아마도 큰 훼손은 없을 것으로 짐작한다. 「중수기」 등을 통해 사우-양재(兩齋)-강당 및 내삼문-외삼문 등 서원의 건축물이 드러났다. 건축물의 명칭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새로운 자료의 발굴을 기대한다. 본디 서원 터에 있었던 유허비는 그 자체로 이미 역사적 유물이다. 유허비가 서원 터에 있지 않고 김구의 묘소 아래 있는 것은 이미 역사성이나 생명력을 잃은 것이다. 이제라도 원래의 위치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

경상남도 남해는 김구가 13년간 귀양살이를 했던 곳이다. 김구의 ‘적려비(謫廬碑)’가 있다. 이곳에서 김구는 남해찬가(南海讚歌)라 할 수 있는 ‘화전별곡(花田別曲)’을 지었다. 남해군에서는 이를 기려 ‘화전별곡길’을 조성하여 관광벨트화 하였으며, 남해문학관을 건립하여 김구를 비롯한 우수한 유배객들의 문학세계를 조명하고 있다. 어느 면에서 보면, 김구를 기리는 일이 고향 예산보다도 더 활발하다. 예산군에서는 남해군과 협의하여 김구를 기리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⁵³⁾

53) 2014년 3월, 『충남도 문화예술 발전전략』(충남도청)에서 ‘덕잠서원 터에 대한 발굴조사가 정식으로 제기된 바 있다.

참고문헌

『自菴集』, 『英祖實錄』, 『書院謄錄』

林翰周, 『惺軒文集』(영인본)

『光山金氏直長公派譜』

『예산군지』, 예산군지편찬위원회, 1987.

『문화유적분포지도』, 예산군, 2001.

『자암 김구를 만나다』, 예산문화원, 2014.

『자암 김구의 생애와 문학 및 서예사적 의의』, 예산문화원, 2013.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자암 김구와 덕잠서원」에 대한 토론문

성봉현(충남대 연구교수)

최영성 교수님은 한국 유학사상사를 전공이신 분으로 많은 논저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따라서 고문헌이 전공인 토론자가 최 교수님의 「자암 김구와 덕잠서원」이라는 논문에 대해 토론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토론자는 최영성 교수님의 논문을 읽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즉 자암 김구의 학문과 사상을 조명할 자료의 부족을 그가 한원당 김광필의 문인이었으므로 그 학단의 학문적 경향에서 간접적으로 추구하였습니다. 매우 적절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고대방(典故大方)』에 김구가 김광필의 문인으로 되어 있지만 집지(執贄)한 것은 아니고 사숙한 것이라 고증하였습니다. 김구 서법의 특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여 주셔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토론자의 의무로 몇 가지 궁금한 사실에 대하여 여쭙어 보겠습니다.

첫째 : 사료에 관한 것으로 “예조(禮曹), 『서원등록(書院謄錄)』, 1871년 8월 22일조”라고 하셨는데, 『서원등록』에서 찾아보면 “신미(辛未) 8월 22일”의 기사 자체가 없습니다. 이는 혹시 착각하신 것은 아닌지요.

덕잠서원의 창건에 관해서도 최 교수는 『서원등록』의 “康熙四十二年(계미 1703, 숙종 29)十月初六日同副承旨臣黃一夏次知啓依允 請額特施建祠 依施一曹啓目粘連啓下是白有亦 觀此禮山幼學林柱國等疏辭”라는 기사를 근거로 덕잠서원이 1703년 창건이 발의되었고, 1705년에

건원된 것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덕잠서원의 창건에 대해서 『신증동국여지승람』(충청도 예산)·『연려실기술』·『조두록(俎豆錄)』 등에도 을유(乙酉;1705)에 창건되었고, 갑오(甲午;1714)에 사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도 읍지』에는 덕잠서원의 창건이 1703년(계미)로 되어 있고, 『서원가고(書院可攷)』에는 임오(1702)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발표자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 김구는 기묘사화 시 체포되어 14년간이라는 긴 유배 생활 끝에 해배되어 고향 예산에 돌아 왔으나 이듬해 사망합니다. 이후 김구는 기묘명현으로 평가되어 『기묘록(己卯錄)』에 수록됩니다. 이는 김구의 사화 이전의 활동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기묘년 이전에 김구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이해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셋째 :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자암의 사후 추송과 관련하여 토론자가 궁금한 것입니다. 『서원가고』 전라도 임피조에 의하면 1664년에 김집을 주향으로 하는 봉암서원(鳳巖書院)이 창건되었는데, 이곳에 김구가 추향됩니다. 그런데 봉암서원에 김구의 추향은 『서원등록』의 “康熙三十三(1694)年十月十九日右承旨臣李次知啓依允 請額特施一曹啓目粘連啓下是白有亦 觀此臨陂幼學高萬九等疏辭 (중략) 遠近同聲創立祠宇 今已三十年是白如乎 中因長老之倡儀繼用一國之公論以贈判書金絿並享是白乎”라고 하여 알 수 있습니다. 김구의 봉암서원 추배는 그가 임피에 유배되었던 인연과 임피(臨陂) 유학 고만구(幼學高萬九)가 “金集之道德學問 金絿之德行志操”라고 한 것처럼 “덕행과 지조”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구가 언제 봉암서원에 추배되었는지 토론자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회암서원 입지환경과 주변의 관련 암각체 고찰

박성묵(예산역사연구소장)

1. 머리말
2. 회암서원의 입지환경과 배향인물
3. 회암서원 철폐와 유허비
4. 회암서원의 주변 암각체
5. 맺는말

1. 머리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리학을 소개한 회헌(晦軒) 안향(安珦: 1243~1306)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문성공묘>라는 소수서원에서 시작된다.

서원은 향촌 교화를 이루고 향론을 주도하는 일향의 사회기구로서 향촌사회 지배 엘리트 사족의 활동 공간이었다. 서원에는 반드시 위패를 모시는데 위패의 대상자는 학문적으로 뛰어나거나 절의에서 뛰어난 인물, 국가 향촌에 공적이 있던 인물을 기리기 위해 피제향자의 문도 후배 후손이 건립하였다.¹⁾ 덕산현에 최초로 가야연봉 중 서원산

1) 『孝宗實錄』, 卷19, 孝宗8年 7月 己酉. 『承政院日記』, 英祖 14年 8月 庚寅.

(옛 기록은 상왕산) 자락에 1709년(숙종 35) 창건된 회암서원은 지방 유림의 공의로 주희(朱熹)·이담(李湛)·이흡(李洽)·조극선(趙克善) 안민학(安敏學)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신 서원이다.

창건 이전에는 서원계곡의 빼어난 산세와 맑은 물줄기가 괴암 반질을 굽이쳐 흘러 가히 절경지로 천렵의 장소로 유명했고 학문수행을 위해 찾아오는 벗이나 덕산지역 선비들과 함께 곧잘 사회(詩會)를 열고 학문을 담론했던 유서 깊은 곳이었다. 서원 앞을 굽이쳐 흐르는 물가 옆 바위에는 창건 과정과 훼손 이후 유허비 설단을 건립하면서 참여했던 유생들의 호나 학문적 뜻이 담긴 암각글자가 무이천 바위 곳곳에 새겼다. 또한 주변에 성리학적 질서에 바탕을 두고 ‘괴원(槐園)’ 등의 암각체를 남기기도 했다.

19세기 이후의 시대로 서원의 남설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향사, 강학의 목적이라기보다는 피역(避役), 여흥의 처소로 변질되기도 하고, 심지어 당쟁의 근거지로 변화되는 극심한 폐단을 낳게 되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전국 47개 서원을 제외하고 모든 서원을 철폐하는령을 내리게 되었다. 인재양성이라는 강학기능과 엄격한 위계성을 지닌 향사기능을 해오던 회암서원도 철폐령을 피해가지 못하고 훼손되고 말았다.

훼손되었던 서원이 19세기 말부터 향사기능만을 복원하는 사례가 많아졌지만 회암서원은 끝내 복원되지 못하고 다만, 18년 후에 사라진 회암서원을 애타게 그리던 덕산향촌사족들의 합심으로 ‘서원유허비’ 설단을 세우게 된다. 하지만 아마저도 1979년 서원저수지²⁾ 축조 공사

2) 저수량 : 56.7천 톤, 제당길이 : 76m, 높이 : 16m, 유역면적 : 103ha, 수혜면적 : 10.7ha. 당시 봉림리 출신 예당농조 이대복(예농 27회) 과장의 건의주도로 추진되었다. 시행청은 예산군이며 착공은 1974년, 준공은 1977년이다. 시공자는 대산건설이며 관리는 마을 ‘서원수리계’에서 자율적 관리하였다.

로 서원구지는 유허비 설단과 함께 관련된 많은 암각채가 파괴되었고 수몰되는 과정을 겪는다. 큰 문화재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본고에서는 회암서원의 건립 입지 조건과 배향 인물, 그리고 이미 밝혀진 내용이 있지만 건립 주도 인물과 지역의 향촌 사족들의 동향을 개괄적인 검토를 하고자 한다. 아울러 회암서원의 무이천(武夷川) 주변의 암각채를 간략하게나마 고찰하여 회암서원과의 관련성을 유추해보고자 한다.

2. 회암서원의 입지환경과 배향인물 행적

회암서원은 죽천 김진규(金鎭圭: 1658~1716)³⁾가 1706년 병조참판에 있을 때 소론이 집권하자 2년간 덕산에서 귀양살이 하면서 덕산현감 이정진(李廷晉)⁴⁾의 보이지 않는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진규가 노론의 학풍을 견지해 오던 봉림골 한산이씨 집성촌을 찾았을

3) 노론의 대표적 정객으로 송시열(宋時烈)의 입장을 고수했다.

본관은 광산. 자는 달보(達甫), 호는 죽천(竹泉). 아버지는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 만기이고, 어머니는 한유량(韓有良)의 딸이다. 누이동생이 숙종비 인경왕후(仁敬王后)이다. 송시열의 문인으로 1682년(숙종 8) 진사시에, 1686년에는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좌랑 등을 지냈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집권하자 거제도 유배되었다가, 1694년 갑술환국으로 남인이 제거당하자 지평에 기용되었다.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깊어지면서, 소론 남구만(南九萬)으로부터 척신으로서 월권행위가 많다는 탄핵을 받고 삭직되었다. 1699년에는 동부승지로서 송시열과 입장을 달리한 윤증(尹拯)을 공박하여 소론과 대립했다.

4) 김진규가 덕산에서 귀양 사는 동안 덕산현감은 이정진(李廷晉)이었다. 그는 기사환국(1689)으로 인현왕후 여흥민씨가 폐위될 때 절의를 세운 이조판서 이세화(李世華: 1630~1701)의 독자로 비록 소론이지만 노론에서 존중하는 인물이었다. 최완수, 『고덕면지』 제1편 총사, 290쪽 참조.

때 회암동 산세와 지명이 중국 주자 선생의 고향 지명과 동일한 점에 큰 의미를 두어 선원 건립을 주도한 것이 배경이 되었다. 그리하여 서원건립의 연원이 주자로 부터 시작된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 일반적인 서원과 다른 그 구조상 보다 주자학의 심오한 교육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먼저 덕산현 읍내에서 십리가 떨어진 인적이 드물고 경치가 빼어난 곳에 위치한다. 이러한 점은 이미 봉림골 한산이씨, 그리고 시동리 한양조씨, 주변의 향촌제지사족 등이 참여해 건립할 때 입지 환경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서원의 입지 조건은 마음공부를 위주로 하는 성리학의 독특한 측면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주자의 도를 실현하고자 한 강학 장소이기 때문에 서원의 내부 공간도 성리학의 교육관을 그대로 체현(體現)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서원의 특징이다.

1) 회암서원의 입지환경

덕산현 관아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회암서원은 이른바 가야연봉 중 상왕산(象王山)의 아름다운 경치의 본원이었다. 서원 앞을 흐르는 무이천(武夷川)⁵⁾ 계곡은 넓고 평평한 천연 유수지를 만들어 호반의 아름다운 풍광을 자아냈다. 후일 계곡명이 학풍 학맥을 잇는 ‘황강(黃江)’이란 맑은 계곡물이 주변 산세와 어울려 옷의 띠처럼 두르고, 서원 봉과 노봉 등의 여러 봉우리가 빼어나게 솟아 둘러 있어서, 봉명골 회암동 상류의 승경이었다. 서원 입구 동쪽에 천년 괴목은 서원이 창건되기 전 한산이씨 집성촌의 집합 장소이자 야외 강학 장소였던 곳이다.

5) 『晦庵書院勅建錄』 14쪽. 무이천은 회암서원 주변의 경치가 아름다워 중국 복건성에 있는 무이(武夷)에 비유된다 하여 무이천(武夷川)라 불렀다.

회암서원이 건립된 곳은 덕산현 상왕산 밑에 노봉(蘆峰)인데, 노봉 아래에는 ‘회암동(晦庵洞)’이라는 마을이 있고 회암동 앞에 고정봉이 있으며 그 중간에는 운곡(雲谷), 우측에는 서림(西林), 좌측에는 죽림(竹林) 등이 전한다. 이들 모든 지명은 옛날 주자가 살았던 지명과 서로 부합되는 것으로 마침 이곳에 귀양 왔던 판서 김진규가 이러한 지명을 보고 주자의 서원 건립을 발의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⁶⁾



회암서원 터에 들어선 서원저수지 현재의 모습



서원저수지 축조 이전의 서원 주변의 모습
(1966년 국립지리원에서 항공촬영. 예산군청 공간정보주스팀 제공)

6) 『書院營建記』 1709년(숙종 35) 靜村 李思齊 撰.

서원 건립의 추진 배경의 핵심은 주자 선생의 고향과 일치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므로 서원을 건립해 주자의 유교(遺敎)를 받들어서 주자의 도를 강명(講明)하고자 했다.

피차(彼此)의 지명이 서로 합치된 것은 실로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겠다. 비록 세상의 세월이 500년이요 지리적 거리가(주자 고향과) 수천 리 떨어져 있지만 이곳이 그 동리에 가서 그 동리에 들어서면 유연(油然)이 사모의 정이 떠오르고 황홀하기는 직접 면전에서 교육을 받는 것 같으니 진실로 이러한 곳에 제전의 장소를 마련하고 숭봉(崇奉)의 정성을 다하기 위하여 읍중(邑中)의 많은 유림과 함께 이곳에 모여 주자의 유서(遺書)를 읽고 주자의 도교(道敎)를 받들어서 이러한 궁향벽촌(窮鄉僻村)에서 주자의 도를 강명(講明)한다면 선생을 상상하고 추모하는 방법이 그 어찌 적다고 하겠는가?⁷⁾

2) 배치형태와 배향인물 행적

서원의 배치는 커다란 두 가지 기능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서원은 크게 제향(祭享) 공간과 교육공간으로 구분된다. 배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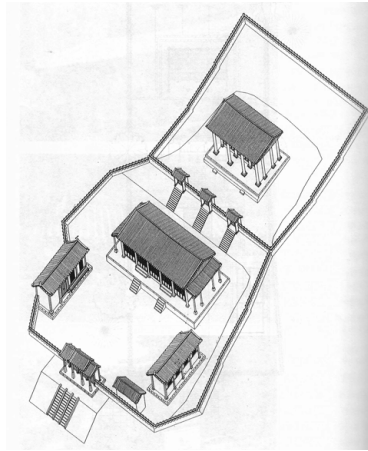
7) 홍문숙·홍정숙, 『중국사를 움직인 100인』, 청아출판사, 2011.

학문을 통해 만물의 본질을 깨닫는 것. 주자는 훈고학적 유학의 한계를 탈피하고 개인의 수양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 통치의 기반이 되는 학문으로 재탄생시켰다. 한편 그는 북송 시대 주돈이, 정호, 정이, 장재, 소옹 등 유학자 다섯 명의 사상을 종합하여 발전시켰다. 그는 우주 만물은 ‘이(理)’와 ‘기(氣)’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기는 온전한 하나로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보았다. 한편 인간의 본성은 선한 이가 일어나서 나타나지만 불순한 기로 인해 악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이와 기로 이루어진 우주와 만물은 태극에 의해 생성되고 움직이며, 만물은 각각의 태극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 각각의 태극은 각자 완전하다고 했다.

8) 『書院營建記』 27쪽 1709년(숙종 35) 靜村 李思齊 撰.

는 사당, 강당, 서재, 외삼문, 묘문 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것은 전해지는 자료가 없어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회암서원 터를 확인한 결과 현재의 지적도와 결부시키면 봉림리 산 62-2임야 번지인테 저수지 축조로 수몰된 상태이다.



1611년 사액 받은 서천 문헌서원 투상도



수위가 낮아 드러난 회암서원 사당 건물 주춧돌(2008년 촬영)

회암서원의 배치 좌향은 위패를 모시는 사당을 배치한 묘당 공간이 서북향인 점을 고려해보면 진좌술향(辰坐戌向)인 듯하다. 사당에는 보통 한 사람의 위패를 봉안하는데, 이를 주향(主享)이라고 한다. 그 밖에 2~4명의 위패를 같이 봉안하기도 하는데, 이를 배향(配享)이라고 부른다. 이때 배향자들은 주향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주향의 왼쪽이 오른쪽보다 상위가 된다.

회암서원은 주자(朱子)를 주향으로 하고 정존재 이담(靜存齋 李擔: 1510~1574), 야곡 조극선(冶谷 趙克善: 1595~1658), 취암 이흠(醉菴 李洽: 1549~1608), 풍애 안민학(楓厓 安敏學: 1542~1601)을 배향한 미사액 서원이다.

배향 인물을 대략 구분해보면 옛 덕산 출신은 3명이고 안민학 선생은 이 지역과 연고⁹⁾가 깊다. 배향 인물의 연배가 16세기 인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기호학풍을 일으키고 학맥을 이은 이 고장 출신의 유현을 배향해 학문적 자존심과 지역 향촌사회의 위상을 세웠다는 의미¹⁰⁾가 있다. 이담, 이흠 등과 같이 문과 급제 하였던 만큼 관료로서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한 인물이었다. 관직을 떠난 후에는 향촌에서의 후진 양성과 사족 생활에 만족했던 인물들이었다.

9) 풍애 안민학은 25세에 박순(朴淳)에게 나아가 사제 관계를 맺은 뒤, 이이(李珥)·정철(鄭澈)·이지함(李之菡)·성혼(成渾)·고경명(高敬命) 등과 교유하였다. 1583년에 사헌부감찰이 된 뒤, 관례에 따라 외직으로 나아가 3년간 대흥(大興) 현감을 지내면서 예산 지역 선비들과 교유 관계를 맺었다.

10) 조선 후기 예산 지방의 각 지방사족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해당 지역의 향촌사회의 지배 질서 재편과 향권(鄉權)의 동향 문제를 집약적이고 소상하게 밝혀줄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이담 행장 약기¹¹⁾

선생의 이름은 담(湛)이요 자는 중구(仲久)이며 호는 정존재(靜存齋)이다. 성은 이씨로 용인(龍仁)이 본관이다. 1510년 경오(中宗 五)에 덕산에서 태어나 1574년에 졸하니 향년 64세이다. 벼슬은 부제학(副提學)으로 1545년에 명현으로 추대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국조명현록(國朝名賢錄), 을사록(乙巳錄), 퇴계연보(退溪年譜)에 기록되었다. 공은 경학에 밝아 퇴계선생과 함께 도의로 교분을 맺었으며 그의 예(禮)와 학(學)에 대한 논설이 뛰어났고 주자절요(朱子節要)를 집필하였다. 공의서신(書信)과 정전제도(井田制度)등이 다 퇴계문집에 수록되어 있다. 퇴계선생이 공을 위하여 정존재잡(靜存齋箴)을 찬했는데 낙민(洛閔)의 도통을 공에게 기대한다고 하였다.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이 행장을 찬했지만 전란의 병화로 반 이상이 불타서 뒤에 족손인 영의정 도곡(陶谷) 이의현(李宜顯)이 다시 만들었다고 전한다.

○ 조극선(趙克善) 선생 행장 약기¹²⁾

선생의 이름은 극선(克善)이요 호는 야곡(冶谷)으로 성이 조(趙)씨로 본관이 한양이다. 봉산면 시동리에서 1595년 을미(선조 28)에 태어나 1658년(효종 7)에 졸했다. 공은 인조 때 경학(經學)으로 천거되어 효종 때 장령(장령)을 지냈다. 1665년 을사(현종 6)에 효행으로 정려(旌閭)를 세우도록 조정에서 명령되었으며 청백리(清白吏)로 지정받고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증직되었다. 저서로 예설(禮說), 펴기요결(砑己要訣), 삼관기(三官記), 문집(文集)7권이 있다. 1862년 임술(철종 13)에 정향(正鄉) 겸 제주(祭酒)에 증직되고 문목(文穆)이란 시호가 내려졌다.

1670년(현종 11) 지방유림의 공의로 조익(趙翼)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한 도산서원에 1720년(숙종 46) 조극선(趙克善)을 추가 배향하였다

11) 『회암서원창건록』 8쪽.

12) 같은 책, 9쪽.

○ 이흠(李洽) 선생의 행장 요약¹³⁾

선생의 이름은 흠(洽)이요 호는 휘암(醉庵)으로 성은 이(李)씨로 한산(韓山)이 본관이고 덕산에서 살았다. 벼슬은 사간원 정언과 도총도사(都摠都事)를 지냈다. 뒤에 승정대부 좌찬성(左贊成) 대제학(大提學) 세자이사(世子貳師)로 증직되었고 아흥군(鵝興君)으로 책봉되었다. 복에 이상서(李尙書)의 문하에서 공부하여 성리학에 통달하여 선비들의 추존을 받았다. 사간원 정언으로 관직에 있을 때 대사헌 최황(崔滉)과 대사헌 이증(李增)들과 더불어 상계(上啓)하여 정엄수(丁嚴壽)의 나국지명(拿鞠之命: 죄인을 잡아다 국문하라는 왕명)을 정지하게 하고 석방토록 하였으며 헌납(獻納)으로 봉직할 때는 정인홍(鄭仁弘)이 요직에 있으면서 전권을 장악하고 있어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는 전언을 못하는 데 인홍(仁弘)이 국권을 통간하여 착한 사람들을 모함하는 등의 죄를 엄준하게 논척(論斥)하였으며 그 뒤에 인홍(仁弘)이 무고로 상소하여 한때 옥구(沃溝)로 귀향 갔다가 은전특사(恩田特赦)로 풀려났으나 마침 친상을 당하여 너무나 애통해하다가 병이 들어 일생을 마쳤으므로 그의 큰 뜻은 펴지 못하였다. 공의 묘비는 황승원(黃昇源)이 찬하고 행장은 한만유(韓晩裕)판서가 지었다.

○ 안민학(安敏學) 선생의 행장 요약¹⁴⁾

선생의 이름은 민학(敏學)이요 자는 이습(而習)이고 호는 풍애(楓崖)이며 성이 안(安)씨로 광주(廣州)가 본관이다. 벼슬은 아산현감(牙山縣監)을 지냈고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증직되었다. 선생은 사암(思菴) 박 선생의 수제자로 경사백가(經史百家)에 능통하여 그때의 명유(名儒)들이 한번 뵈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았다. 우계(牛溪)와 율곡(栗谷) 선생과 도의의 친우로서 친하게 지냈으며 아산현감으로 재직 중 조정에서 사화(士禍)가 자주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은퇴할 것을 고려하던 중 왜구들의 침략으로 또한 아산만으로 들어오니 조정에서 선생을 사어(司禦)와 소모사(召募使)를 제수하므로 남하하여 군량과 말 그리고 군사를

13) 같은 책, 10쪽.

14) 같은 책, 11쪽.

모아 아산에 당도하니 병이 나서 더 이상 수행할 수가 없으므로 자기임무를 체찰사(體察使) 유성룡(柳成龍)에게 부탁하니 유성룡이 선생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지라 선생은 그를 보고 정색하고 그대의 이러한 눈물이 임진왜란 전에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가 없었을 것이 아닌가 하고 꾸짖으니 유성룡도 탄복했다고 전한다. 또한 선생은 효성도 지극하여 우계와 율곡 두 선생도 선생의 모친 변환에 꼭 그 방에 들어가서 문병하였고 중봉(重峯) 조헌(趙憲) 선생도 그의 도학을 극진히 칭찬하였으며 남언기(南彦記)도 인간사표라고 칭찬하였다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당쟁이 날마다 더해지므로 정도(正道)가 수습되지 못하여 마침내 선생의 큰 뜻을 펴지 못하고 말았다. 뒤에 묘비는 후재(厚齋) 김간(金幹)이 쓰고 행장은 장암(丈岩) 정공(鄭公)이 찬했으며 이러한 사실은 율곡, 우계, 사암 등 여러 선생 문집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

3. 회암서원의 철폐와 유허비 건립

19세기 이후의 시대로 서원의 남설로 인한 흥선대원군은 둘째아들이 어린나이에 1863년 12월 26대 국왕에 오르자 설정을 하면서 이듬해부터 서원을 철폐, 정리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물며 서원은 우리나라 선현을 제사하는 곳인데 오늘날 도둑의 소굴이 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대원군의 말은 서원 철폐에 대한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었다.

당시 서원은 선현에 대한 제향과 지방의 인재 양성을 위한 일종의 사설 교육기관 역할을 했지만, 갈수록 당쟁의 소굴이 되고 지방민을 침탈하는 폐단을 낳았다.¹⁵⁾

15) 서원등록에 보이는 덕산 지역 서원에 관한 기사. 1722년(경종 2) 9월 5일조에 보면, 덕산현의 유생 정세갑(鄭世甲) 등이 과거의 폐단을 논하면서 말미에

서원은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도 조세의 의무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구가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대원군은 집권과 동시에 전국의 서원에 대한 조사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사사로이 서원을 짓는 일을 금지하였으며, 수많은 서원을 철폐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서원 중의 대표격인 화양동 서원과 만동묘를 철폐한 것이다. 이에 양반 유생들과 조정의 관료들까지도 반대¹⁶⁾하였으나 대원군은 더욱 강력히 추진하였다.

또한 1869년에는 사액서원 이외의 모든 서원의 철폐를 명령하여 1871년에는 700여 개의 서원 가운데서 47개를 제외하고 모두 문을 닫게 했다.

예조(禮曹)에서, “한 사람에 대해 중첩하여 세운 서원(書院)을 헐어버리는 문제는 두 차례의 하교에 따라 신 조병창(趙秉昌)이 대원군(大院君) 앞에 나아가 품의(稟議)한 결과, ‘성묘(聖廟) 공자를 모시는 사당’의 동쪽과 서쪽에 배향하는 제현(諸賢)과 충절(忠節)과 대의(大義)를 남달리 뛰어나게 지킨 사람으로서 실로 백세(百歲)토록 높이 받들기에 합당한 47개 서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사를 그만두며 현관을 떼어내도록 하라.’는 뜻으로 하교(下敎)를 받들었습니다. 이미 사액(賜額)하여 계속 남겨두어야 할 47개의 서원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입니다. 계하(啓下: 임금의 재가)한 뒤 각도(各道)에 행회(行會: 시행 방법을 의논키 위해 모임)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¹⁷⁾

서원의 철폐폐단을 지적하고 있음이 주목된다(회암서원과 관련되는 내용).

16) 최익현이 흥선대원군을 탄핵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17) 1871년(고종 8) 3월 서원 철폐령 - 고종실록

【경기(京畿)의 개성(開城) 숭양 서원(崇陽書院), 용인(龍仁) 심곡 서원(深谷書院), 파주(坡州) 파산 서원(坡山書院), 여주(驪州) 강한사(江漢祠), 강화(江華) 충렬사(忠烈祠), 광주(廣州) 현절사(顯節祠), 김포(金浦) 우저 서원(牛渚書院), 포천(抱川) 용연 서원(龍淵書院), 과천(果川) 사충 서원(四忠書院), 양성(陽城) 덕봉 서원(德峰書院), 과천(果川) 노강 서원(鰲江書院), 고양(高陽) 기공사(紀

이 조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조치였으나 결국 유생들이 대원군에게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다.

회암서원도 창건된 지 159년(1868년 무진)만에 철퇴를 당했다. 회암 주부자(晦庵朱夫子)를 모시고 추가로 네 분의 선생 중 마지막으로 모신 풍애(楓崖) 안민학(安敏學) 선생 위패를 봉안한 지 38년 만에 훼손되는 비운을 맞았다. 같은 해 예산의 덕암서원도 훼손되었지만 사액현판과 관련 유물을 보존했지만 회암서원 훼손과정에서는 서원관련 자료가 아쉽게도 보존된 것이 남아 있지 않다.

회암서원 건립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시동리 한양조씨 조극선의 후손인 조종호(趙鍾灝)가 철퇴된 후 18년 만에 지역유생과 합심하여 <회암서원유허지 설단>을 건립(1896년)하였다.

功祠), 충청도(忠淸道)의 연산(連山) 돈암 서원(遯巖書院), 홍산(鴻山) 창렬사(彰烈祠), 청주(淸州) 표충사(表忠祠), 노성(魯城) 노강 서원(魯岡書院), 충주(忠州) 충렬사(忠烈祠), 전라도(全羅道)의 태인(泰仁) 무성 서원(武城書院), 광주(光州) 포충사(褒忠祠), 장성(長城) 필암 서원(筆巖書院), 경상도(慶尙道)의 경주(慶州) 서악 서원(西嶽書院), 전산(善山) 금오 서원(金烏書院), 함양(咸陽) 남계 서원(藍溪書院), 예안(禮安) 도산 서원(陶山書院), 상주(尙州) 옥동 서원(玉洞書院), 안동(安東) 병산 서원(屏山書院), 순흥(順興) 소수 서원(紹修書院), 현풍(玄風) 도동 서원(道東書院), 경주 옥산 서원(玉山書院), 상주(尙州) 흥암 서원(興巖書院), 동래(東萊) 충렬사(忠烈祠), 진주(晉州) 창렬사(彰烈祠), 고성(固城·동영) 충렬사(忠烈祠), 거창(居昌) 포충사(褒忠祠), 강원도(江原道)의 영월(寧越) 창절 서원(彰節書院), 철원(鐵原) 포충사(褒忠祠), 금화(金化) 충렬 서원(忠烈書院), 황해도(黃海道)의 해주(海州) 청성묘(淸聖廟), 배천(白川) 문회 서원(文會書院), 장연(長淵) 봉양 서원(鳳陽書院), 함경도(咸鏡道)의 북청(北靑) 노덕 서원(老德書院), 평안도(平安道)의 영유(永柔) 삼충사(三忠祠), 안주(安州) 충민사(忠愍祠), 영변(寧邊) 수충사(酬忠祠), 평양(平壤) 무열사(武烈祠), 정주(定州) 표절사(表節祠)이다.】

4. 회암서원의 주변 암각체

암각체의 글씨는 대체로 당시 그 지역의 저명한 문인, 학자들이 쓴 것이 대부분이어서 그들의 글씨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예술적 감성을 비롯한 정신세계도 함께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금석학(金石學)의 주요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후기에 들어와 청나라 고증학(考證學)의 영향을 받아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¹⁸⁾

회암서원 앞을 흐르는 계곡은 수려한 경관을 자아낸다. 서원산 깊은 고랑에 발원한 물줄기는 서원 앞에 넓은 습지를 형성하고 곧바로 반석 100여 미터를 굽이쳐 흘렀다. 이 반질바위에는 서원과 관련된 인물들이 각자의 뜻을 지어 암각체를 새겼다. 1979년 서원저수지 축조로 인하여 계곡에 남아 있는 암각체는 모두 6개를 찾았으나 축조 이전에는 빼어난 암질의 규모와 형태로 보아 옛 문장가의 시구와 빼어난 경치를 나타낸 암각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서원 입구에 천년이 다된 느티나무 앞에 ‘槐園’이란 반초서 암각체와 동쪽으로 뻗어내려 회암서원을 감아 돌아 수구 끝자락 비탈면에 웅장하게 서있는 바위에 새긴 ‘仙遊巖’ 암각체가 있다.

1) 「서원유허(書院遺墟)」 비(碑)

18)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안동시) 참조.



서원저수지 제방 좌측 아래에 있는 서원유허(書院遺墟)비

현재 제방 좌측 아래에 세워져 있는데 원래 유허비 설단자리이다. 1974년부터 시작된 서원저수지 제방 축조할 때 유허비 설단을 피했으나 아쉽게도 설단 부재석과 앞쪽에 있던 반석과 암각체 모두 훼손되었다. 회암서원 철폐된 후 18년 지난 1896년 4월에 시동리 조극선의 후손인 조종호(趙鐘灝)가 유생과 합심하여 회암서원 앞 무이천(武夷川) 비탈면에 5~6척 정도 되는 사면으로 된 자연바위를 발견하고 이곳에 회암서원 유허지 설단을 건립하였다. 조종호는 항상 회암서원의 훼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여 이충규 등과 논의하여 20여 명의 지역 유생들의 지원을 얻어 추진하였다.

2) 황강(黃江)

황강(黃江)이란 암각체는 한수재 권상하¹⁹⁾ 선생이 살았던 제천 집 앞을 흐르는 황강을 뜻하는데 선생의 높은 학문을 숭앙하는 이곳 덕산

19) 권상하(1641~1721)는 사계 김장생과 신독재 김집 그리고 우암 송시열로 이어지는 서인 노론 계열의 학통을 계승한 정통 주자학자다.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을 지지하는 호론(湖論)의 입장을 취했다.

출신의 제자가 새긴 암각체로 보인다. 예서 글자체로 크기는 15cm 이내이다. 조성 시기는 1752년경으로 추정되지만 그 이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이천에 새긴 黃江 암각체

권상하는 1675년 송시열이 유배를 가게 되자 남한강 상류에 있는 제천 황강으로 은거, 그곳에서 44년간 윤봉구, 한원진, 이간, 채지홍, 이이근, 현상벽, 최징후, 성만징 등 황강팔학사를 비롯해 그 외 많은 학자들을 길러냈다. 황강은 충북 제천시 한수면에 있는 남한강과 월악산이 어우러진 경관이 매우 아름다운, 권상하가 주자학으로 일가를 이룬 곳이다.

‘황강’ 암각체의 조성 연대를 추정해 보면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황강이란 지명이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1752년(영조 28) 82세 때 옥소 권섭이 황강을 배경으로 백부인 한수재 권상하의 뜻을 시가로 남기고자 지은 구곡체의 연시조 「황강구곡가(黃江九曲歌)」²⁰⁾를 지었다. 이 시기로 보면, 당시 권상하의 수제자인 병계 윤봉구(尹鳳九: 1683~1767)가 회암서원 계곡에 황강 암각체를 새긴 것

20) 총 10수로 권섭이 지은 시조 75수 중 가장 나중에 창작됐다.

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²¹⁾

둘째는 적어도 회암서원이 창건된 1709년을 감안하면 서원 건립 추진을 한 죽천 김진규나 봉림골 한산이씨, 시동리 한양조씨 유생 중에서 황강거사의 학풍을 잇고자 새긴 것으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서인과 남인이 권력을 뺏고 빼앗기는 숙종 연간의 환국정치(換局政治)에 환멸을 느꼈던 권상하는 늦게까지 벼슬에 나가지 않고 학문 연마와 제자 교육에 전념했다. 그는 나이 35세 때인 1675년(숙종 1)에 청풍(淸風)의 황강(黃江: 지금의 충북 제천시 한수면 황강리) 옆으로 거처를 옮겨 은둔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정통 주자학자답게 주자(朱子)의 시 가운데 “가을 달이 차가운 물(寒水)에 비추네(秋月照寒水)”라는 구절을 빌어 자신의 호를 ‘한수재(寒水齋)’라고 하였다. 또한 황강가에 거처한다고 해서 ‘황강거사(黃江居士)’라고도 하였기 때문이다.

회암서원 계곡바위에 새겨진 암각체 현황

암각체 명	조성 시기	비고
黃江	• 1709~1761년 사이 • 1896년 경	
鳳軒	• 1710년 경	
天川年	• 미확인	芝谷과 같은 바위체 상단부에 새겼으며 세련감이 부족한 점으로 볼 때 지곡 이후에 옛 회암서원을 그리며 새긴 글자체로 보여짐
芝谷	• 1896년 鄭鳳朝로 추정	
可山	• 미확인	
芝川	• 1896년 李鎬健	「晦庵書院遺墟立碑記事」를 쓴 趙鍾灝의 친구

21) 1761년(영조 37) 스승 권상하의 문집을 교감하여 『한수재집(寒水齋集)』을 편찬하고 서문을 작성할 때 새긴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는 6개의 암각체 글씨 크기가 모두 작은 점과 물 흐르는 접합부 위에 새겨 물이 차면 글씨를 볼 수 없는데다 일반인이 찾아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근거로 볼 때 서원학풍의 깊은 뜻이 담긴 당당하고 넘치는 위풍감이 없기 때문에 1896년 회암서원유허비 건립에 참여한 지역 대표 유생들의 호(號)를 새긴 것으로 추측된다.

3) 괴원(槐園)

봉림리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우뚝 서서 800년 풍상을 이겨 낸 느티나무는 그늘 아래 흐르는 황강(黃江) 물줄기와 함께 오랜 역사를 품고 있다.

서림저수지 가는 길에 표지판 하나 없어도 스스로 이정표가 되고 있는 느티나무는 저수지 입구에 장쾌한 필치로 그려낸 듯 웅장한 기개를 자랑하듯 서 있다.

나무 둘레가 여섯 아름이나 되며, 오랜 역사를 딛고 자란 괴목답게 얹혀있는 이야기 또한 많다.



회암서원 입구 천년 느티나무 아래에 있는 槐園 암각체

느티나무 앞 바위돌에 괴원(槐園)이라 새긴 뜻을 보면 깊은 의미가 있다.

괴원(槐園)은 괴안(槐安)이란 뜻에서 유래되었다. 남가일몽(南柯一夢)과 같다.²²⁾ 내포기호유림의 학풍을 꽃피웠던 곳이 바로 이곳 봉명골이었다. 단아한 동산에 품격 높은 괴원(槐園)느티나무는 옛 유생들의 학문정진이 서려있다 하겠다.

4) 선유암(仙遊巖)

회암서원 앞산 줄기 안 기슭 끝자락에 우뚝 솟은 바위 좌측면에 ‘仙遊巖’이란 대자로 새긴 암각체이다. 신선이 놀던 바위라고 전하는 선유암은 조선후기 덕산 봉림골 선비들이 수려한 경관을 자아내고 있는 회암서원과 마을 회암동의 격을 높이기 위해 붙여진 명칭이다. 높이 3m 정도의 단독 바위가 제법 위용이 있다. 지형형상이 ‘臺’ 규모로는 부족해 ‘巖’으로 명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위상단에 정자가 없지만 바위 아래로 서원의 무



선유암

22) 중국 당나라 순우분(淳于棼)이란 사람이 느티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잤는데 꿈에 괴안국(槐安國)이란 나라에 가서 그 국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남가군(南柯郡) 태수(太守)가 되어 많은 영화를 누렸다는 고사에 따라 꿈 또는 허망하다는 뜻으로 쓰인다. 느티나무 그늘 아래는 으레 낮잠을 연상케 하지만 옛 선비들이 회암서원을 갈 때 이곳을 지나가면서 잠시 쉴 때도 괴원(槐園)의 글귀를 보고 그런 허망한 꿈을 꾸지 않고 열심히 학문 수련에 전념해야 한다는 각오와 다짐을 주었던 의미 있는 글귀이다.

이천(武夷川)이 두 갈래로 흘러 회암동의 아름다운 사계절의 자태를 볼 수 있다. 옛 선비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회암동은 동천(洞天)이라 불릴 만하다.

5. 맺는말

죽천 김진규가 덕산에 유배와 한산이씨 집성촌 봉림골을 찾았을 때 주자가 살았던 중국과 산명(山名)과 동명(洞名)이 같은 서원골을 발견한다. 이를 답사한 김진규는 이러한 지명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지방선비들에게 회암서원을 짓고 유학의 강론(講論)장으로 활용할 것을 건의하여 37개의 읍 선비들이 찬동하여 충청도 관찰사에게 고유하고 1709년에 창건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일반적인 서원의 입지 조건보다 주자학을 집대성한 주자를 존숭하고 강명하고자 설립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무릇 서원에 제향되려면 학덕을 갖춘 유현(儒賢)이거나 국가에 유공한 충절인 등 성리학적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데, 거리가 먼 인물들이 후손 향인(鄉人)들에 의해 대거 제향돼 남설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예가 많았는데 회암서원은 배향된 인물이 대부분 덕산현 출신으로 이이, 성혼에서 김장생으로 이어지는 기호학과적통을 계승한 유현이며 아들과 막역한 교분을 가졌던 인물이었다.

회암서원은 미사액 서원이지만, 다른 서원들과 마찬가지로 사액을 받으려는 시도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해오는 기록이 전혀 없으므로 확인할 수 없으며 서원의 배치구조 또한 상세히 밝힐 수 없어 추후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창건된 뒤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오던 중, 흥선대

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고종 5)에 훼손되어 복원되지 못하였다. 다만, 유풍을 진작시키며 선현의 맥을 이어오던 조극선의 후손 조종호가 안타까운 생각을 저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마침, 1896년 4월에 이충규 등 지역 유생들과 회암서원 무이천에서 봄 시회를 열고 소풍을 갔다 오다 서원 옛터 앞 사면바위를 발견하고 회암서원의 유허비 설단을 설립하여 사라진 회암서원의 학풍과 숨결을 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말까지의 농업정책과 농촌 근대화 사업추진이 꾸준히 추진되는 상황에서 봉림리의 농업증산이 우선시 되자 1977년 옛 서원 터에 <서원저수지> 건립이 서원유허지 보존보다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서원저수지 수리계’가 조직되어 저수지 축조는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주자의 고향과 동일한 산세, 지형, 지명을 높이 평가해 건립된 회암서원의 입지 환경과 훼손 18년 후 건립한 ‘회암서원유허비 설단’마저 훼손되는 과정을 겪었다. 당시 저수지 축조가 마을민의 경제 희망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옛 회암서원지에 관한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서원 건립 후 아름다운 무이천 반석바위(유허비 설단 앞에 있는 가장 큰 반석바위는 100여 명 넘는 인원이 앉을 수 있는 크기였다)에 깊은 뜻이 있던 다량의 암각채가 파괴 수몰된 것은 소중한 문화자원이 망실된 것이며 문화도의적 차원에서도 되새겨야 할 문제라 본다.

「회암서원의 입지환경과 주변의 암각체 고찰」에 대한 토론문

성봉현(충남대 연구교수)

박성묵 선생님의 논문을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논문이 『회암서원 창건록』을 바탕으로 기술하고 있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토론자의 의무로 한두 가지 궁금한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토론자는 「회암서원창건록」을 보지 못하였는데, 발표자의 논문에는 김진규가 창건에 관여한 사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¹⁾ 그리고 휘철에 대하여서도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원에서 중요한 것은 주향의 봉안과 배향 인물의 추향에 관한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 회암서원은 1709년(己丑, 숙종 35)에 창건하고, 회암 주부자를 주향으로 봉안한 서원입니다. 그리고 1727년(영조 3)에 부제학 이담(李湛)을 동무에 배향하였고, 장령 조극선(趙克善)을 서무에 배향하였습니다. 1800년(정조 27)에는 취암 이흠을 추향하였고, 1830년(순조 30)에 풍애 안민학을 추향하였다고 하였습니다.²⁾

이와 같이 서원에 어떤 인물을 배향하고 추향하는 것은 향촌사족의 동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자가 보기에는

1) 「회암서원」의 『창건에 대해서는 『列邑院宇事蹟』(忠淸道, 「晦菴書院」, 書院創建事蹟)에도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2) 『忠南의 書院·祠宇』, 충청남도, 예산현, '회암서원'.

필자가 머리말에 “건립 주도 인물과 지역의 향촌 사족들의 동향”에 대하여 언급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담과 조극선의 배향과 1800년에 이흠의 추향, 1830년에 풍에 안민학을 추향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이에 대하여 아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토론자가 아는 바로는 전국에 ‘회암서원’이 몇 개 존재합니다. 예컨대 남포에 회암서원³⁾, 황주 백록도의 회암서원⁴⁾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본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필요 없을 것 같으나 주석에 서라도 설명을 해주어야 보다 친절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셋째 토론자가 잘 몰라서 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암각채’라는 어휘를 많이 쓰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각채라 하면 일종의 ‘서체(書體)’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편액의 서체를 ‘액체(額體)’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암각채’라고 하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암각 위에 쓴 글씨를 ‘암각서’라고 하므로 이렇게 쓰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3) 『經山集』 권17, 誌銘, “丙辰拜江東縣監. 時湖右有儒訟. 特命換藍浦. 調停其事. 縣有朱子川. 公勸邑士冊晦庵書院. 爲興儒教”.

4) 『和隱集』 권3, 詩, “往黃州白鹿洞晦菴書院. 模寫粹容”.

도산서원(道山書院)의 역사와 배향인물

지두환(국민대 명예교수)

1. 서론
2. 도산서원의 역사
3. 배향인물
4. 결론

1. 서론

조선시대 중묘 궁궐 왕릉이 세계문화유산이 되면서 조선이 문화국가라는 자부심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조선 후기를 이끌어갔던 서원마저 세계문화유산이 되면서 조선 후기 선비문화를 다시 한번 재조명할 때가 되었다.

일제 식민지사관이 조선 후기를 당쟁이나 하면서 나라가 망하는 줄 몰랐던 시대로 만들어 놓은 지 100년이나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당쟁의 소굴이 서원이라고 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이 되고 서원이 조선 후기 봉당정치를 주도하면서 조선 후기를 세계 최고의 문화국가로 만들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¹⁾

1) 鄭玉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일지사, 1998.

그리고 북송의 서원은 고려 전기 사학 같은 것이고, 명나라 서원은 관학으로 되어 조선 전기 향교 같이 되었다. 청나라 서원도 관학으로 조선 후기 향교와 같았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관학인 향교가 전국에 있음에도 봉당정치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서원이 세워져 중국에도 없는 서원이 세워졌던 것이다.²⁾ 그리고 여기에서 산림이 나오고 선비가 나와 나라를 이상적인 문화국가로 이끌어갔다.

그래서 예산 지역에 어떤 서원이 있었고 여기에 배향된 인물은 누구인가를 밝히는 연구는 중요한 연구가 되었다. 이러한 서원과 배향 인물을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2. 도산서원(道山書院) 역사

도산서원(道山書院)은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도산리에 있었던 서원이다. 포저(浦渚) 조익(趙翼: 1579~1655)과 야곡(冶谷) 조극선(趙克善: 1595~1658)을 모신 서원이다.

포저 조익은 광해군 10년(1618) 인목대비(仁穆大妃)가 유폐되는 사태가 빚어지자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인 광주(廣州)로 은거하였다가 충청도 신창으로 옮겨 살았다.

기전(畿甸)에 있는 농장이 서울과 가까운 것을 더욱 싫어하여 호서(湖西) 신창현(新昌縣) 도고산(道高山) 아래로 옮겨 우거(寓居)하였는데, 남들은 견디기 어려워하는 기한(飢寒)과 곤고(困苦)의 근심 속에서도 담박하게 지내면서 오직 학문에 정신을 집중하고 경의(經義)를 탐구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았다. 당시에 승지 박지계(朴知誡)와 좌랑 권득

2) 한국서원연합회, 『한국의 서원문화: 한국 서원의 세계문화유산적 가치』, 문사철, 2014.

기(權得己)도 모두 벼슬하지 않고 집에 있었으므로 서로 글을 왕복하며 토론을 벌이곤 하였다.

그 시대가 비록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로 막혀 통하지 않는 때이긴 하였지만, 원근의 사람들이 모두 공경하고 사모할 줄을 알고서 이룬(彝倫)이 공 덕분에 추락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³⁾

야곡 조극선은 충청도 예산 출신으로 처음 이명준(李命俊)을 사사하다가 그의 권고로 박지계(朴知誠) 조익(趙翼)의 문하에서 배웠다. 성리학의 예설에 밝았으며 효행으로 이름이 있었다. 병자호란 뒤에 순창군수, 형조 정랑, 세자익위사 사어 등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다가 인조 26년(1648) 온양 군수로 나갔다.

조성한(趙晟漢: 1628~1686)의 문집 『동산선생유고東山先生遺稿』의 회덕행록(懷德行錄)에 도산서원 건립에 관한 기사가 나온다.

현종 7년(1666) 병오년에 호우(湖右) 인사(人士)들이 신창(新昌)에 포저(浦渚) 조익(趙翼)을 모시는 도산서원(道山書院)을 세웠다.⁴⁾ 그러나 도유사(都有司)가 마음에 안 들어 현종 8년(1667) 정미년 2월에 도고산(道高山) 일출사(日出寺)에 모여 다시 그 일을 의논하여 정자(正字) 죽실(竹室) 임홍망(任弘望: 1635~1715)⁵⁾을 임명하고 유사(有司)들을 개

3) 『浦渚集』 浦渚先生年譜 권2, 附錄.

神道碑銘并序 尤齋 宋時烈 지음.

『浦渚集』 浦渚先生年譜 권3, 附錄.

謚狀 同春 宋浚吉 지음

『浦渚集』 浦渚先生年譜 권3, 附錄.

4) 『東山先生遺稿』 권4, 日錄 懷德行錄 丁未.

丙午年間. 湖右人士. 議立浦渚趙先生書院于新昌. 詢謀既同. 而以都有司不愜人望. 士論携貳. 久而不決. 暨于丁未春二月初. 遠近章甫. 約會于道高山之日出寺. 相與更始其事. 任正字弘望德章. 亦聞風來至. 務爲調定之論. 改定各項有司之任. 而仍令參會者數人. 進往懷德. 稟議于院長同春宋先生. 余亦當在行中. 爲之期日. 而還家治任. 十六日戒程登途. 秣馬于新禮院. 夕到新昌水南村. 宿于趙鳴和仲應家. 昏朴友由經道求來話而去. 自家至此八十里也.

정하였다. 그리고 회덕(懷德)의 원장(院長) 동춘당 송준길(宋浚吉: 1606~1672)에게 가서 품의하여 결정을 하였다. 현종 8년(1668) 미촌 윤선거(尹宣舉)가 광주(廣州) 구포(鷗浦)에 세워진 명고서원(明臯書院)에 사액을 내릴 것을 청하는 청액소(請額疏)를 올려,⁶⁾ 현종 9년(1660) 12월 5일 사액이 내려졌다.⁷⁾

현종 11년(1670) 지방유림의 공의로 조익(趙翼)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도산서원을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⁸⁾ 문곡 김수항(金壽恒)이 도산서원에 포저 조익을 봉안하는 봉안 제문을 찬하였다.⁹⁾

조익의 제자 야곡(冶谷) 조극선(趙克善: 1595~1658)을 추가 종향할 것을 청하여,¹⁰⁾ 숙종 46년(1720)에는 영의정 최규서(崔奎瑞)가 조극선(趙克善)을 추가 종향하는 봉안문을 쓰고 추가 종향하였다.¹¹⁾

선현 배향과 지방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오던 중 홍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고종 8년(1871)에 훼철되었는데, 풍양 조씨 문중에서 2006년 12월에 조익의 묘가 있는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 종산에 이전 복원하였다.¹²⁾

5) 덕장(德章)은 임흥망의 자.

6) 『浦渚集』 浦渚先生年譜 권5, 附錄.

請額疏 丁未 尹宣舉 撰.

7) 『顯宗實錄』 권15, 현종 9년 12월 己巳(5).

8) 『冶谷先生集』 권14, 附錄.

請額疏略.

9) 『浦渚集』 浦渚先生年譜 권5, 附錄.

新昌 道村書院 奉安 祭文 庚戌 金壽恒 撰.

10) 『冶谷先生集』 권14, 附錄.

請額疏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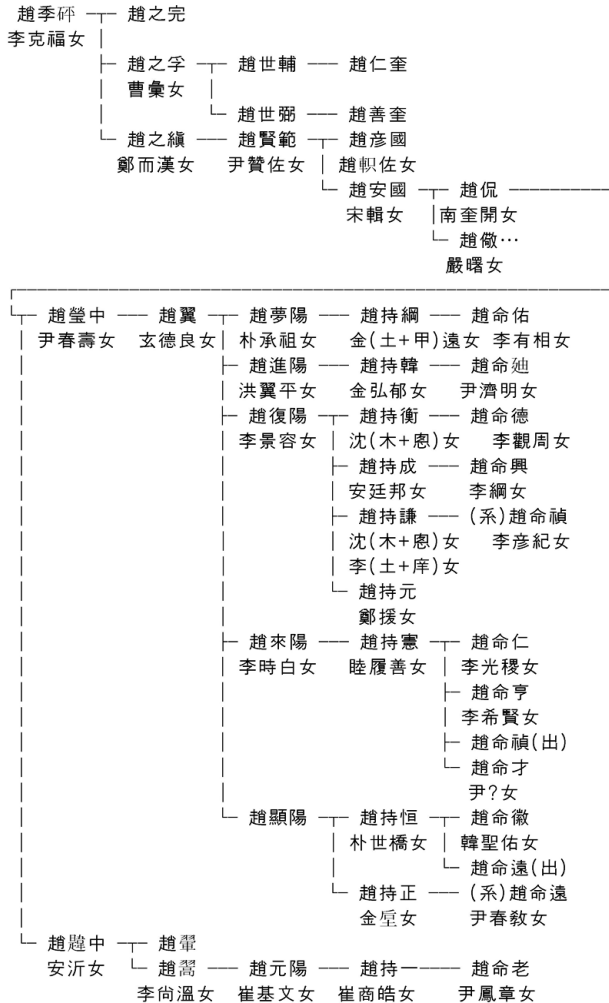
11) 『冶谷先生集』 권14, 附錄.

新昌道山書院從享告由文[領議政崔奎瑞撰].

12) 『아산 인물록』 68쪽, 72-73쪽, 2009.

3. 배향인물

1) 포저(浦渚) 조익(趙翼: 1579~1655)



그의 가계도를 구성해보면 위와 같다.¹³⁾

본관은 풍양(豐壤). 자는 비경(飛卿), 호는 포저(浦渚)·존재(存齋)이다.

증조부는 오위도총부부총관 조안국(趙安國)이다. 할아버지는 현령 조간(趙侃)이고, 아버지는 증추부첨지사 조영중(趙瑩中: 1558~1646)이다. 어머니는 찬성 윤근수(尹根壽)의 형 윤춘수(尹春壽) 딸이다. 장현광(張顯光)·윤근수의 문인이다.

임진왜란 중 음보로 정포만호(井浦萬戶)가 되어 선조 31년(1598) 군량미 23만 석을 운반하는 공을 세웠다.¹⁴⁾

호조가 아뢰기를, “서로(西路)의 양선 압운관(糧船押運官)인 오차포 만호(吾叉浦萬戶) 홍건(洪建), 덕포 만호(德浦萬戶) 권형(權?), 전 정포 만호(井浦萬戶) 조익(趙翼) 등에게 참작하여 논상할 일을 대신들에게 의논하였더니 ‘금년에 중국 양곡을 운송해 온 숫자가 2십 3만여 석이나 되는데 이는 모두가 이 사람들의 공로이니, 파격적으로 논상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권장시키지 않을 수 없다. 홍건은 이미 출륙(出六)하여 자궁(資窮)이 되었고, 권형은 출륙하였으나 자급이 아직 미달이고, 조익도 이미 6품에 올랐으니 승진시켜 수령에 제수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그러나 은명(恩命)에 관계되는 일이니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홍건·권형을 모두 당상관에 승진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왜란이 끝난 뒤 다시 수학하여 선조 35년(1602, 24세) 임인년의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 정자(正字)에 보임(補任)되었으나, 임금의 총애를 받는 권신(權臣)에게 미움을 받은 나머지 7년 동안이나 조용(調用)되지 못하다가 전적(典籍)에 올랐다.¹⁵⁾

13) 출전 ; 萬姓大同譜 下.

14) 『宣祖實錄』 권107, 선조 31년 12월 戊寅(27).

15) 『浦渚集』浦渚先生年譜 권2, 附錄.

神道碑銘并序 尤齋 宋時烈 撰.

광해군 1년(1609, 31세) 기유년에 홍문록(弘文錄)에 등록되었으며, 사서(司書)와 병조의 낭관(郎官)이 되었다.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이 공이 과제(課題)로 지은 글을 보고는 감탄하기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식견과 문장이 있단 말인가.”라고 하였다.¹⁶⁾

광해군 3년(1611, 33세) 신해년에 비로소 옥당(玉堂)에 들어가서 수찬(修撰)과 지제교(知製敎)가 되었다.¹⁷⁾ 정인홍(鄭仁弘)이 이언적(李彦迪)과 이황(李滉)을 추악하게 헐뜯자, 공이 동료와 함께 차자를 올려 변론했다가 고산 찰방(高山察訪)으로 좌천되었다.¹⁸⁾

광해군 6년 9월 4일 연서도 찰방(延曙道察訪)이 되었다가,¹⁹⁾ 광해군 10년 7월 5일(신묘) 평안 도사가 되었다.²⁰⁾

광해군 10년(1618) 인목대비(仁穆大妃)가 유폐되는 사태가 빚어지자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인 광주(廣州)로 은거했다가 충청도 신창으로 옮겨 살았다.

광해군 14년(1622) 3월 17일 홍문관 부수찬을 제수하였다. 그러나 나가지 않았다.

윤지경(尹知敬)을 사인으로, 한옥(韓玉)을 부교리로, 심지청(沈之淸)을 헌납으로, 이효함(李孝曄)·이지천(李志賤)을 정언으로, 조익(趙翼)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조익은 고향으로 돌아가 살고 있었는데, 시배(時輩)들이 공도(公道)가 남아 있음을 거짓으로 보이기 위하여 여러 차례 관직(館職)에 제수하였다. 그러나 모두 나아오지 않았다.】²¹⁾

16) 『浦渚集』 浦渚先生年譜 권2, 附錄.

神道碑銘并序 尤齋 宋時烈 撰.

『孝宗實錄』 권14, 효종 6년 3월 乙未(10) 조익 졸기.

17) 『光海君日記』 권37, 광해군 3년 1월 戊申(7).

18) 『浦渚集』 浦渚先生年譜 권2, 附錄.

神道碑銘并序 尤齋 宋時烈 撰.

19) 『光海君日記』 권82, 광해군 6년 9월 癸丑(4).

20) 『光海君日記』 권130, 광해군 10년 7월 辛卯(5).

1623년 인조반정으로 인조가 즉위하자 이조좌랑에 임용되어²²⁾ 신창 도고산(道高山) 아래 모옥(茅屋)을 떠나 다시 조정에 들어갔다.

계해년(1623)에 인묘(仁廟)가 즉위하였다. 조의(朝議)가 “이제 새로 정사를 펼치게 된 때에 전조(銓曹)에는 일등(一等)의 인물을 등용해야만 한다.”라고 하였는데, 공이 으뜸으로 뽑혀 좌랑(佐郎)이 되고 나서 공평하고 합당하게 모든 일을 극진하게 처리하니, 물론(物論)이 흠족하게 여겼다.²³⁾

인조 1년 9월 3일 조익은 대동청의 설립에 대한 편의 절목을 조목별로 진술하였다.

이조 정랑 조익(趙翼)이 소장을 올려 대동청의 설립에 대한 편의 절목(便宜節目)을 조목별로 진술하니, 상이 답하기를, “그대가 이해득실을 소상히 개진하여 나의 의혹이 풀렸으니, 참으로 가상하고 기쁘다. 상소의 사언은 유념하겠다.”²⁴⁾

조선 전기에 주자성리학 이념에 입각하여 삼대의 이상사회를 실현시키려는 경제정책이 세종대에 만들어진 공법(貢法)이었다. 맹자의 정전제는 조법 철법 공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인구가 많고 땅이 적은 곳에서 시행하는 것이 공법이었다. 공법은 풍년일 때는 농민에게 유리하지만 흉년일 때는 세금 부담이 많아서 소출량에 따라 거두는 조법, 철법보다 나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래서 세종은 정전제(井田制) 중의 공법을 실시하면서, 소출량에 따라 토지 등급을 나누는 전분육등법(田分

21) 『光海君日記』 권175, 광해군 14년 3월 癸丑(17).

22) 『仁祖實錄』 권1, 인조 1년 3월 甲辰(14).

23) 『浦渚集』 浦渚先生年譜 권2, 附錄.

神道碑銘并序 尤齋 宋時烈 撰.

24) 『仁祖實錄』 권3, 인조 1년 9월 庚寅(3).

六等法)에다 풍흉을 고려하는 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을 결합하여 새로운 공법을 만들었다. 이러한 공법을 바탕으로 하 온 주 삼대(三代)의 이상사회를 구현하여 간 것이, 세종대 경제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는 공물 문제는 그대로 남겨 두어 불균등을 초래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후기는 공납의 불균등을 해소하는 문제가 대동사회를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으로 등장하였다. 삼대의 이상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전제를 시행해야 했다. 따라서 조선후기 현실에 맞는 정전제의 시행 방법인 대동법 시행을 주장하였다.

이는 인조반정이 일어난 인조 1년(1623)에 조익의 선혜청소에서 그대로 제시되었다. 조익(趙翼)은 이 상소에서 10의 1세(稅)인 정전제(井田制)를 시행해야 하고, 이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전세는 물론 요역 공납(貢納)까지 포함하여 미포(米布)로 세금을 거두는 대동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⁵⁾

신이 몰래 생각건대 지금 이 선혜청(宣惠廳)의 법이 최고로 가까운 고제(古制)인데 실로 맹자가 말한 바 선왕의 정치와 암합(暗合)한다. 지금 국내에 이 법을 행하면 신은 몰래 생각건대 동방의 성대한 다스림을 이로부터 거의 이룰 수 있다. 지금 이 법은 전결(田結)에서 거두는 바를 모두 미포(米布)로서 하고 중외(中外)의 수용(需用)을 이것으로 나누고, 또 나머지 저축이 있으면 흉년이나 재해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취하는 수는 십분의 일 세에 비해 가볍습니다. 고로 신은 삼대(三代)의 정치와 더불어 암합(暗合)한다고 생각합니다.²⁶⁾

라고 하여, 삼대 이상사회를 이루기 위한 정전제(井田制) 중의 공법(貢法)으로는 선혜법(宣惠法) 즉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25) 《浦渚集》 권2, 疏 論宣惠廳疏 癸亥(1623) (韓國文集叢刊 85책 40쪽 民族文化推進會 影印本 이하 같음)

… 取之有制 而其論取之… 此萬世爲治之不可易之大法也 ….

26) 《浦渚集》 권2, 疏 論宣惠廳疏 癸亥(1623) (韓國文集叢刊 85책 41쪽).

하였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4~6두를 거두는 전세와 공납을 미로 거두는 16두의 대동법을 합쳐서 20두 정도를 거두면 10분의 1세인 정전제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²⁷⁾ 그러면 그 세금이 균등해지고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흉년이나 재해에 진휼할 수 있게 되니 이것이 진정한 이상사회 즉 복지사회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²⁸⁾

이듬해 이괄(李适)의 난을 겪은 뒤 의정부 검상·사인(舍人)에 임명되고, 이어 응교·직제학 등을 거쳐 동부승지에 올랐다.

인조 9년(1631, 53세) 어머니가 죽자 잠시 벼슬을 떠났으나, 3년상을 마친 뒤 곧 관직에 복귀하였다. 한성부우윤·개성부유수·대사간·이조참판·대사성·예조판서·대사헌·공조판서·한성부판윤 등을 두루 역임하면서 이원익(李元翼)을 도와 대동법(大同法)을 확대하고 관리하는 일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인조 14년(1636, 58세) 예조판서로 있을 때 병자호란을 당하자 종묘를 강화도로 옮기고 뒤이어 인조를 호종하려다가, 아들 진양(進陽)에게 강화로 모시게 했던 80세의 아버지가 도중에 실종되어 아버지를 찾느라고 남한산성으로 인조를 호종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그리하여 호란이 끝난 뒤 그 죄가 거론되어 관직을 삭탈당하고 유배되었지만, 그 까닭이 효성을 다하고자 한 데 있었고, 또 아버지를 무사

27) 《浦渚集》 권2, 疏 論宣惠廳疏 癸亥(1623) (韓國文集叢刊 85책 41쪽).

… 三代什一之制 正是使民富足之道也 臣竊謂此法 苟行之數年 家給人足 可期必致也 何者 一結所賦十六斗 而輸運之價在其中 並田稅三手粮等 則二十餘斗矣 一結一年所得 常田中歲 可二三十石 則二十餘斗之米 實不能十分之一矣 其斂豈不輕哉.

28) 《浦渚集》 권2, 疏 論宣惠廳疏 癸亥(1623) (韓國文集叢刊 85책 41쪽).

… 此法旣行 則富歲有餘儲 故凶斂可減其賦 又可以賑救之 夫登稔其賦甚輕 而凶災又可賑恤 此誠所謂樂歲終身飽 凶年免於死亡者也 且夫王者之治世也 務在平均之也 ….

히 강화로 도피시킨 뒤 윤계(尹檠)·심지원(沈之源) 등과 함께 경기 지역의 패잔병들을 모아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있는 적을 공격하며 입성하고자 노력한 사실이 참작되어 그해 12월에 석방되었다.²⁹⁾

그리고 3년 뒤 인조 21년(1643) 7월 25일에는 원손보양관(元孫輔養官)으로 조정에 들라는 하명을 받았으나,³⁰⁾ 늙은 아버지를 봉양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뒤이어 예조판서³¹⁾·이조판서·대사헌의 직이 내려졌지만, 모두 사양하다가 아버지가 죽고 상복을 벗게 되자 인조 26년(1648, 70세) 10월 좌참찬이 되어 다시 조정에 나갔다.³²⁾

좌참찬 조익(趙翼)이 소장을 올려 치사(致仕)할 것을 청하였다. 조익은 병자호란 이후 호서(湖西)에 물러가 있었는데, 그의 늙은 아버지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고 상례(喪禮)를 마치고 나서는 참찬으로 부름을 받고 서울에 들어오기는 했으나 누차 진정소(陳情疏)를 올려 치사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상이 위유하고 윤택하지 않았다.

인조 27년(1649) 5월 8일 인조가 승하하고 효종이 즉위하자 6월 19일 우참찬이 되었다.³³⁾ 이후 8월 20일 우의정이 되고,³⁴⁾ 모친상을 당한 정태화를 대신해서 9월 1일 좌의정이 되었다.³⁵⁾

효종 1년(1650) 6월 12일 1결당 쌀 서 말씩을 거두어 요역의 형평을 기하자는 논의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시행되지는 못했다.

또 아뢰기를, “어제 탐전에서 이시방이, 양호(兩湖)에서는 어디든지 1결

29) 『仁祖實錄』 권37, 인조 16년 12월 乙巳(17).

30) 『仁祖實錄』 권44, 인조 21년 7월 丙辰(25).

31) 『仁祖實錄』 권46, 인조 23년 11월 庚申(12).

32) 『仁祖實錄』 권49, 인조 26년 10월 壬子(21).

33) 『孝宗實錄』 권1, 효종 즉위년 6월 丁未(19).

34) 『孝宗實錄』 권1, 효종 즉위년 8월 丁未(20).

35) 『孝宗實錄』 권2, 효종 즉위년 9월 丁巳(1).

에 쌀 서 말씩을 거두어 각사의 공물에 응하도록 하자고 하였습니다. 오늘 신들이 본사 당상, 양사 장관과 서로 상의하여 양호의 결수(結數)와 공물 값을 산출하였는데, 우의정 조익(趙翼)은 ‘1결당 쌀 서 말씩을 거두어 각사의 공물 값으로 삼는다면 꽤 많이 남을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거두는 양도 적어질 것이므로, 요역이 무거운 백성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역이 가벼운 고을도 내는 양이 줄면 줄었지 늘지는 않게 될 것이니, 비록 다른 곳으로 옮겨 정해 쓰는 일이 없더라도 역이 절로 균등해지고 상하가 다 만족하게 될 것이다. 지금의 대책으로는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병조 판서 이시백(李時白)과 형조 판서 이시방, 대사간 민응형(閔應亨)의 뜻도 조익과 같았습니다.”³⁶⁾

효종 2년 3월에 윤방(尹昉)의 시장(諡狀)을 올리면서, 이식이 윤방의 시장을 지으며 인조 때에 강빈옥사로 역적이 된 강빈을 빈궁이라고 쓴 것을 조익이 윤방의 시장을 올리면서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올려서 역적을 비호한 것이 되었다.³⁷⁾ 이 시장(諡狀) 사건에 관련되어 효종 2년 5월부터 몇 개월 동안 삭직되고 문외출송(門外黜送)되는 고초를 겪기도 했으나,³⁸⁾ 효종 2년 9월 5일에 판중추부사로 복귀하였고,³⁹⁾ 효종 5년 8월 28일에는 영중추부사가 되었다.⁴⁰⁾

효종 6년(1655, 77세) 3월 10일 중추부영사(中樞府領事)로 죽기까지⁴¹⁾ 우의정·좌의정과 중추부 판사·영사의 자리를 거듭 역임하였다. 대체로 무난하게 벼슬 생활을 하면서金玉(金堉)과 함께 대동법을 확장, 시행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 각종 폐막(弊癘)을 개혁하는 데에도 전념하였다.

36) 『孝宗實錄』 권4, 효종 1년 6월 甲午(12).

37) 『孝宗實錄』 권6, 효종 2년 3월 辛卯(14).

38) 『孝宗實錄』 권6, 효종 2년 5월 丁亥(11).

39) 『孝宗實錄』 권7, 효종 2년 9월 己卯(5).

40) 『孝宗實錄』 권13, 효종 5년 8월 乙酉(28).

41) 『孝宗實錄』 권14, 효종 6년 3월 乙未(10).

한편으로 학문에도 정진, 『곤지록(困知錄)』·『중용주해(中庸註解)』·『대학주해(大學註解)』·『서경천설(書經淺說)』 등을 지어 효종에게 바쳤다. 이 저술들은 주자(朱子)의 장구(章句)를 크게 고친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감히 이를 헐뜯지 못했다고 한다.

고향 광주에서 77세로 죽으니 6월에 대흥(大興) 동화산(東華山) 아래에 장례하기까지 관원을 보내어 치조(致弔)하였다. 현종 1년(1660) 5월 11일 현종은 문효라는 시호를 내렸다.⁴²⁾ 뒷날 광주(廣州)의 명고서원(明皐書院)⁴³⁾, 개성의 송양서원(松陽書院), 신창의 도산서원(道山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위의 논술 외에 문집으로 『포저집』 35권 18책이 전하고, 『역상개략(易象概略)』은 이름만 전한다.

조익은 성리학의 대가로서 예학에 밝았으며, 경학·병법·복술에도 뛰어났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변함없이 우정을 지켜온 그와 장유(張維·최명길(崔鳴吉)·이시백(李時白)을 가리켜 ‘사우정(四友情)’이라 불렀다. 시호는 문효(文孝)이다.

2) 야곡(冶谷) 조극선(趙克善: 1595~16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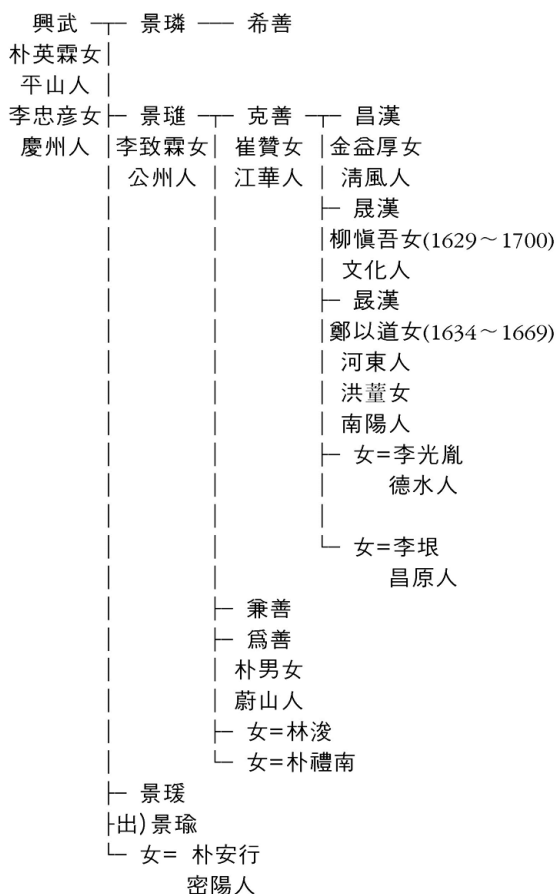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유제(有諸), 호는 야곡(冶谷). 조곤(趙鵬)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조흥무(趙興武: 1532~1589)이고, 아버지는 조경진(趙景璉: 1565~1615)이다. 어머니는 공주이씨(公州李氏: 1566~1606)로 진사 이치림(李致霖)의 딸이다. 박지계(朴知誠)·조익(趙翼)의 문인으로, 처음에는 이명준(李命俊)을 사사하였다.

42) 『顯宗實錄』 권2, 현종 1년 5월 乙丑(11).

43) 『浦渚集』 연보 권5, 부록(附錄).

청액소(淸額疏) 정미년(1667, 현종 8)

『顯宗實錄』 권15, 현종 9년 12월 己巳(5).



아곡 조극선 가계

1623년(인조 1) 학행으로 추천되어 동몽교관(童蒙敎官)이 되었으며, 이어 종부시주부·공조좌랑을 역임하고 한때 은거하였다. 그 뒤 익위사 사어(翊衛司司禦)·호조정랑을 역임하고, 병자호란이 일어나던 1636년에는 이조정랑으로서 시폐(時弊)와 자강지책(自強之策)을 간곡히 진언하였다.

면천군수로 나가서도 국방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나 호란 당시는 벼슬을 그만두고 집에 있었다. 호란의 소식을 듣고 혼자 달려왔으나 천안에서 길이 막혀 부모와 함께 해도(海島)로 피난하였다. 뒤에 순창군수·형조정랑·사어 등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다가 인조 26년(1648)에 온양군수로 나갔다. 인조 26년 10월 1일 스승인 이명준(李命俊)을 포장해줄 것을 상소해서 이명준은 의정부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고 참판 이명준(李命俊)에게 의정부 좌찬성을 추증하였다. 온양 군수(溫陽郡守) 조극선(趙克善)이 소장을 올리기를, “이명준이 일생을 청백하게 보냈다는 것은 온 세상이 알고 있는 바이니, 포장(褒獎)하는 은전이 있어야 합니다.” 했는데, 이 일을 이조에 내렸다. 이조에서 증직하고 그의 자손을 녹용할 것을 청하니, 따른 것이다.⁴⁴⁾

효종 즉위년 10월 25일 좌의정 조익이 조극선을 성균관 사업으로 삼아 교육의 책임을 전담케 하였다.⁴⁵⁾

좌의정 조익이 상차하기를, “신민일(申敏一)을 대사성으로, 조극선(趙克善)을 사업(司業)으로 삼아 교육의 책임을 전담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해조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좌의정 조익의 강력한 추천으로 성균사업(成均司業)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고 학문에 정진하였다. 그 뒤 조정에서 강화부사·순창군수·익산군수·공조정랑 등에 임명했으나 벼슬에 뜻이 없어 나가지 않았다.

효종 8년(1657) 7월 11일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에 제수되었고,⁴⁶⁾ 9월 5일 사헌부 장령(掌令)을 제수받았다.⁴⁷⁾

44) 『仁祖實錄』 권49, 인조 26년 10월 壬辰(1).

45) 『孝宗實錄』 권2, 효종 즉위년 10월 庚戌(25).

46) 『孝宗實錄』 권19, 효종 8년 7월 壬子(11).

효종 8년 10월 12일 조극선을 불러 호서 지방의 민간사에 대해 하문하였다.⁴⁸⁾

상이 조극선(趙克善)을 불러 보고 호서 지방의 민간사에 대해 물었는데, 극선이 대답하기를, “대동법을 시행한 뒤로 백성들이 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만, 백성들을 부리는 규정에 정해진 법식이 없기 때문에 추쇄(推刷)를 거치자마자 백성들이 대부분 도망쳐 흩어지게 생겼으니, 이 점이 우려할 만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영장(營將)의 폐단은 어떠한가?” 하니, 극선이 아뢰기를, “사졸들을 가르치고 기르는 것은 장령(將領)의 수효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병사(兵使)가 지나가자마자 영장이 또 이르러, 군장과 복색을 자주 바꾸다보니 일정함이 없고, 명령이 여러 곳에서 나와 어느 말을 따라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엄과 사나운 기세로 강제로 여러 읍들을 제어하고 있으니, 수령들이 어찌 곤궁하지 않겠으며, 민생들이 어찌 동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효종 8년 11월 2일 장령 조극선이 상소하여 임금의 마음을 바르게 할 것을 아뢰었다.⁴⁹⁾

장령 조극선(趙克善)이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인군이 하늘을 섬기는 것은 마치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임금이 노여워하면 감히 미워하거나 원망해선 안 되고 공경심을 일으키고 효성을 일으켜 죄와 허물을 짚어지고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한 뒤에야 임금이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스스로 두려워하기만 할 뿐 허물을 고치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면 임금이 어찌 그를 애처롭고 가련하게 여겨 기뻐하려고 하겠습니까.

전하께서 못 신하에게 임하실 적에 기뻐하여 그를 사랑하신 적도 있었고 노여워하여 그를 견책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전하께서 스스로

47) 『孝宗實錄』 권19, 효종 8년 9월 甲辰(5).

48) 『孝宗實錄』 권19, 효종 8년 10월 辛巳(12).

49) 『孝宗實錄』 권19, 효종 8년 11월 庚子(2).

돌이켜 보고 깊이 생각해서 반드시 나의 한 마음이 하늘의 크게 공정하고 지극히 바른 도를 우러러 체득함이 있고자 하시면, 하늘의 노여움이 풀리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 사람의 말에 ‘하늘은 실정으로써 감응시키는 것이지, 형식적인 것으로 감응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공감첨정(繕工監僉正)이 되었다. 효종 8년 12월 23일 선공 첨정 조극선이 상소하여 폭넓은 사면을 청하였다.⁵⁰⁾

선공 첨정(繕工僉正) 조극선(趙克善)이 상소하기를, “기쁘고 즐거운 정이 감응하면 화락한 기운이 응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고달파하는 정이 감응하면 어긋나는 기운이 응하게 됩니다. 근심하고 원망하고 고달파하는 것이 많기로는 형옥(刑獄)이 공평함을 얻지 못하는 것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하께서 먼저 생각이 여기에 미쳐 재앙을 만난 초기에 곧 안팎에 영을 내려 모든 옥사를 소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들로 하여금 원옥(冤獄)을 심리하여 화락한 기운을 불러오는 데 하나의 도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형조(刑曹)에서 심리하여 방송한 자가 26인이고 금부에서 심리하여 방송한 자가 8인인데, 신은 지금 죄인 명부에 편입되어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감히 모르겠습니다. 옛날 당 태종(唐太宗)은 한때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인하여 사형수 3백 90인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심리한 사람이 단지 34인에 불과합니다. 이는 아마도 성상께서 큰 호령을 사방에 널리 퍼서 화락한 기운을 부르고 재앙을 늦추는 아름다운 뜻이 아닌 듯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대신과 육경에게 명하여 상의하여 품정하도록 하고, 혹 친히 임하여 재단해 종사에 관계되고 윤리·기강과 대중이 함께 버린 데 관계된 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잡범의 죄와 기회를 저축하고 범하여 꾸지람을 받고 죄를 진 자들은 모두 사면하여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는데, 상이 너그럽게 답하였다.

50) 『孝宗實錄』 권19, 효종 8년 12월 辛卯(23).

이듬해 효종 9년 1월 3일에 다시 장령으로 임명되었으나⁵¹⁾ 1월 7일에 병들어 죽었다. 장령 조극선이 죽으니 염습할 옷과 관곽을 내어 주라고 명하였다.⁵²⁾

장령 조극선(趙克善)이 죽으니, 관원에게 명하여 염습할 옷과 관곽을 내어 주라고 하였다.

효종대왕 행장(行狀)에는 효종이 조극선을 극진히 대우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

조극선(趙克善)이 병들었을 적에는 털옷을 하사하여 덮어주고 내의를 보내어 구료했으며 그가 죽었을 때에는 호조의 낭관(郎官)으로 하여금 상사를 다스리게 하는 한편 날마다 중사(中使)를 보내어 보살피게 하였다. 그리고 의금(衣衾)·관염(棺斂)을 예(禮)를 갖추어 극진히 하였으며 관곽과 분묘에 드는 비용도 모두 관(官)에서 갖추어 주게 하였다.⁵³⁾

효행과 학행으로 이름이 났으며, 효종행장에도 효종이 그의 학행을 흠모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저서로 『야곡집』 10권과 『야곡삼관기(冶谷三官記)』 등이 있다. 성리학과 예설에 밝은 학자로 뒤에 이조참의에 추증되었으며, 신창(新昌)의 도산서원(道山書院)과 덕산(德山)의 회암서원(晦庵書院)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목(文穆)이다.

51) 『孝宗實錄』 권20, 효종 9년 1월 庚子(3).

52) 『孝宗實錄』 권20, 효종 9년 1월 甲辰(7).

53) 『孝宗實錄』 권1, 효종 대왕 행장(行狀).

4. 결론

도산서원과 배향인물인 포저 조익과 야곡 조극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포저 조익은 선조 인조 효종대를 이끌어간 성리학자이자 경세가였다. 그리고 포저 조익의 제자가 되어 인조·효종대를 이끌어간 성리학자이자 경세가가 야곡 조극선이었다.

조선 후기는 조선성리학에 입각하여 이상사회를 이루기 위해 조용조를 합해 10분 1세를 완성하는 정전제를 시행해가는 시대였다. 이러한 정전제의 중심은 대동법을 시행해가는 데 있었다. 포저 조익은 심학(心學)에 입각한 조선성리학을 체득하여 이에 입각한 정전제(井田制)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동법을 추진해갔다.

야곡 조극선은 포저 조익의 이러한 사상을 이어 받아 조선성리학을 체득하고 정전제를 시행해 가기 위해 대동법을 추진해갔던 사상가이자 경세가였다. 이러한 모습은 조선성리학에 대한 저술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대동법을 시행해가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상가이자 경세가를 모신 도산서원은 이러한 실천적인 학풍을 전하는 중심이 되었다. 숙종 말 야곡 조극선을 추향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도산서원(道山書院)의 역사와 배향인물」에 대한 토론편

유준상(한국문중문화연구원)

본 논문은 첫머리에 조선시대의 궁궐과 왕릉에 이어 서원이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조선의 선비문화가 재조명되고, 서원이 조선 후기 봉당정치를 주도하면서 조선 후기를 세계최고의 문화국가로 만들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원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더불어서 예산 지역에 이진된 도산서원과 배향 인물에 대한 연구의 목적과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도산서원의 역사와 배향 인물인 포저(浦渚) 조익(趙翼)·야곡(冶谷) 조극선(趙克善)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학문과 대동법 시행 추진을 조명하고, 또 도산서원이 그들의 학문과 정신을 전하는 근거지가 되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전달하고자 하고 있다.

2장에서는 도산서원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포저 조익은 광해군 10년(1618) 인목대비가 유폐되는 사태가 빚어지자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인 광주(廣州)로 은거하였다가 충청도 신창(新昌)으로 옮겨 살았다. 그리고 야곡 조극선은 예산 출신으로 처음 이명준(李命俊)을 사사하다가 박지계(朴知誡)와 조익의 문하에서 배웠다는 점을 통해 도산서원이 아산 신창에 건립되어진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리고 도산서원은 현종 7년(1666)에 호우(湖右) 인사들이 아산 신창에 포저 조익을 모시는 도산서원(道山書院)을 세우고, 회덕(懷德)의 원장(院

長) 동춘당 송준길(宋浚吉)에게 가서 품의하여 결정을 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3장에서는 배향 인물을 서술하고 있다. 당시 조선 후기는 조선성리학에 입각하여 조용조를 합해 10분 1세를 완성하는 정전제(井田制)를 시행해가는 시대였는데, 이러한 정전제의 중심은 대동법을 시행해 가는 것이었고, 포저 조익은 심학(心學)에 입각한 조선성리학을 체득하여 이에 입각한 정전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동법을 추진하였다. 또 조극선은 이러한 조익의 사상을 이어 받아 대동법을 추진해갔다는 점을 밝히며 포저 조익과 야곡 조극선을 배향한 도산서원은 이러한 실천적인 학풍을 전하는 중심이 되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산서원은 포저 조익이 조선성리학의 실천적 정책인 대동법을 시행해 나간 근거지라는 발제자님의 견해에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질문 1.

포저 조익의 고향은 광주였고, 세상을 떠난 곳도 광주였지만 묘소는 광혜군의 폐모살제 당시에 물러나 살던 아산 신창 인근의 예산(당시는 대흥)이다. 그리고 발표자는 도산서원이 포저 조익이 학문과 대동법을 실시한 정신을 전파한 근거지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포저 조익에게 있어서 아산의 도산서원과 그의 묘소가 있었던 예산 지역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또 예산출신의 야곡 조극선은 포저 조익의 사상을 전파하는 데 예산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도 알고 싶다.

질문 2.

본 발제문에서는 『동산선생유고』의 회덕행록(懷德行錄)을 인용하며 서원을 세운 후 ‘도유사가 마음에 안 들어 도고산 일출사에서 회의한 후 유사들을 개정하고 이후 이 문제를 동춘당 송준길에게 품의할

것을 결정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기사에서의 시사점은 무엇인가? 또 도산서원의 배향 인물들과 아산·예산 지역 및 회덕(대전) 지역 사족과의 학술적 교류의 양상은 어땠는지 알고 싶다.

서원 복원 추이와 예산지역 서원 복원 필요성

이해준¹⁾(공주대 명예교수)

1. ‘유교-선비문화’ 바로보기
2. 조선시대 서원의 문화사적 가치
 - 1) 서원의 문화유산 가치
 - 2) 서원과 향촌사회사, 지역문화
3. 복원 필요성과 의의, 향후 과제
 - 1) 복원의 기본 방향
 - 2) 현행 서원의 복원과 활용 실태
 - 3) 복원과 향후 자원활용 방향(제언)

1. ‘유교-선비문화’ 바로보기

우리 사회에서 도덕성의 타락과 참된 지성인의 부재는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신보다는 물질이, 또 경쟁만이 살길이라는 저급의 문화가 현대사회를 압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올바르게 바라보면 3~400년 전의 ‘유교문화, 선비문화’가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자,

1) (현)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목포대 교수(81-94), 한국역사민속학회 회장(96-98),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99-01), 역사문화학회 회장(08-10), 공주대 문화유산 대학원장(11-13), 한국서원학회 회장(11-14),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13-14), 문화재청 문화재위원(05-15), 공주대 사학과 교수(94-19) 역임.

미래 사회의 화두인 ‘지성사’와 ‘정신사’의 본질적 모습이 아닌가 생각 되기도 한다.

조선 시기는 누가 뭐래도 ‘도덕과 지성’이 존중된 사회였다. 사실 잘못 인식하고 폄하하는 식자들이 많지만, ‘양반=선비’의 문화 수준은 적어도 현대 인문학의 그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았다. 우선 방대한 문집의 양, 관심의 폭(문학·정치·사상 종합지식)이 그렇고, 학문 이외의 현실적 관심과 대응력에 있어서도 명실상부한 실력 집단이었다. 그런가하면 그들은 왕도(王道), 도학(道學), 성현 정치(聖賢 政治)를 추구했던 도덕집단이었다. 그들은 군자(君子)와 소인(小人)의 격을 가르치고, 비판과 공론(여론)을 통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덕적 실천을 무엇보다 중시하였다. 조선시대 선비의 삶은 그래서 오늘의 정체된 지성들에게 오히려 귀감이 될 만하다. 그들의 ‘학문적 삶’, ‘도덕적 실천의 삶’, ‘사회문화적 삶’, ‘개성과 자존심의 삶’ 등은 현대인들이 부러워해야 할 모델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현재와 미래에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조선조 선비문화의 경쟁력이 아닌가 한다. 현대사회의 경쟁, 경제 중심 가치관이 인간성 상실과 가치관의 혼요로 귀결되었음을 바라보며,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서 조선조 선비들의 종합적 삶의 가치와 방식이 상정되는 것이다. 그들은 경세가로서의 경쟁력도 있었고, 문화주도층이자 창조자였으며 양심과 도덕적 실천가였다. 사회를 이끌어 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 선비들의 경험 철학 속에는 도덕성, 변화에 대한 비판과 대응력, 진취적 참여와 실천력이 담겨져 있다. 양반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제대로 된 선비(양반)가 없어서 나라가 망했던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한다.

학문과 학자를 대우하며, 자기 수양의 정신 자세 및 도의와 염치를 알고 도덕을 몸으로 실천하였던 선비(유교)문화는 과거에도 의미가 있었지만 오히려 학문토론, 사회교육, 비판과 실천 등이 강조되는

현대와 미래사회에 더욱 필요한, 지성인의 핵심 덕목으로 주목할 문화가 아닌가 한다. 지성사와 도덕적 실천, 어른스러움의 대명사였던 조선의 선비문화가 자랑스럽게, 그리고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정신사의 고급브랜드로, 미래 경쟁력으로 되살려졌으면 싶다.

2. 조선시대 서원의 문화사적 가치

주지하듯이 2019년 7월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이 되었다²⁾.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선시대의 서원이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와 성격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서원은 조선시대 지방의 고급 인재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접촉·교류했던 상징적인 기구였다. 따라서 서원은 당 시기의 지성사적 전통과 정신문화적 유서가 서려있는 곳이었다.³⁾

2)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경북 영주시 소수서원, 경남 함양군 남계서원, 경북 경주시 옥산서원, 경북 안동시 도산서원, 전남 장성군 필암서원, 대구 달성군 도동서원, 경북 안동시 병산서원, 전북 정읍시 무성서원, 충남 논산시 돈암서원 등 9개 서원은 “교육을 기초로 형성된 성리학에 기반 한 한국 사회 문화 전통의 특출한 증거이자, 이 유산은 동아시아 성리학 교육기관의 한 유형인 서원의 한국적 특성을 나타내는 유산”이라고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리고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해 “한국의 서원에서 향촌 지식인들은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 체계와 유형적 구조물들을 창조하였다. 그들은 성리학 경전과 연구를 수행하였고, 세계에 대한 이해와 이상적 인간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들은 향촌사회의 선현들을 제향 하였고, 제향 인물을 통해 강한 학문적 계보를 형성하였다. 또한, 향촌 지식인들은 이 유산을 기초로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활동들을 통해 성리학이 사회 전반에 전파되는데 기여하였다. 이 유산은 동아시아에 전파되었던 성리학이 지역화 되고 변형된 독특한 과정을 통합적으로 보여준다. 이 유산은 한국에서 서원 건축의 정형화에 의해 완성된 독특한 문화전통을 나타낸다.”고 평하고 있다.

3)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1) 서원의 문화유산 가치

서원은 자신들이 존경하고 멘토로 삼는 스승의 연고지에 후학과 문인들이 건립하고, 제향과 함께 그 정신을 이어갔다. 그렇게 하여 서원은 조선의 선비들을 길러낸 곳이면서, 한편으로는 선비들의 활발한 문화활동 공간이었다. 서원은 제향 인물과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별, 학맥별 독특한 사상, 교육 방식, 운영 모습을 지닌다. 그리고 서원은 수시로 출입하고 접촉, 교류했던 거점공간이자 상징적 기구였으므로 교육과 강학 이외에 여론과 공론을 결집하는 집회소로서도 큰 기능을 하였다. 그런가하면 제향의례를 비롯하여 사회교육, 도서관과 출판 기능 등 여러 문화적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지성문화의 요람으로 서원에 전해지는 역사, 교육, 제향, 무형의 문화유산이 지닌 전통적 가치는 현대사회에도 계승, 활용해야 할 가치와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 전통교육 공간

조선시대 서원이 지녔던 다양한 기능과 역할 중, 무엇보다도 교육 기능이 중심이다. 서원의 고유 기능은 역시 지방 교육의 상징적 기구로 관학으로서의 향교, 그리고 사학으로서의 서원이 대비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건물 배치나 건물의 성격만으로 교육이 설명되어서는 곤란하고 각 향교나 서원마다 교육의 방식과 운영 모습들이 약간씩 다르며, 그것을 증빙하는 많은 자료들이 문서자료로서 보존되어 있다. 예컨대 당시의 학적부라든가 학칙, 재정, 인적 구조, 교육과정, 도서 등등의 전반적인 자료들이 자료로 남겨져 있다.

○ 선현 제향과 사회교육

이외에도 서원은 사회교육의 장소로 조선시대의 유교문화가 확산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서원은 유교의 예(禮)가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의례화 된 곳이다. 중국이나 일본의 서원과 비교하여 볼 때 한국의 서원은 진정성을 보존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인물·제향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특성이 있다. 서원은 이들 의례를 통하여 선현의 학덕과 행의를 추앙하고, 예를 중요시하는 유교의 정신과 문화를 널리 확산, 정착시키는 사회교육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서원에서 이루어지는 제향의례나 강학의례, 기타 여러 형태의 생활의례들은 서원이 사회교육의 실현처였음을 보여준다.

○ 지역 지성인들의 집회소

서원은 조선시대 지방의 인재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접촉·교류했던 상징적인 기구였다. 따라서 서원은 조선시대 지성사적 전통과 정신문화적 유서가 서려있는 곳이었다. 젊은 인재들과 그들의 선배들은 일방적 지식의 전수 교육이 아닌 강론과 학문 토론의 장이 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여론과 공론을 결집하는 지성들의 집회소이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원에서 배출한 인물들이나, 향교 서원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던 사마재나 양사재, 그리고 수많은 명칭을 가진 각종 조직들은 이들 지성들의 선후배 간 유대와 결속력을 보여주며, 이 토대 위에서 지연·학연을 배경으로 하는 정치 세력의 거점이 되기도 하였다.⁴⁾

4) 정만조, 「조선조 서원의 정치·사회적 역할」, 『한국사학』 10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이해준, 「한국 서원의 지역네트워크와 사회사적 활동」, 『한국서원의 전통가치와 현대적 계승』,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8.

○ 서적 간행 및 도서관 기능

서원은 지역별, 학맥별로 가치와 이념을 추구하는 본산이었다. 따라서 강학의 도구로써 각종의 교과용 도서나 사전류, 주요 저술이나 각 시기의 대표적 출판물들이 보급·소장되게 마련이었다. 또한 서원은 제향 인물이나 그의 학맥을 잇는 인사들의 문집류, 자료나 사적들이 보존되게 마련이고, 서원의 운영과 관련된 실제적인 고문서 자료들도 많이 보관되어 있다. 특히 조선시대의 출판문화를 선도했던 것도 서원이었다. 서원에서는 제향 인물의 문집이나 실기의 판각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사회사적 명망과 결속의 정도에 따라서는 향약이나 시회 등 각종 계획 자료들이 발간되기도 하였다.⁵⁾

○ 문화예술 공간

마지막으로 서원은 교육과 정치, 사회적인 기능을 다하였으며, 동시에 문화예술의 창작과 교류 공간이기도 하였다. 서원의 건물에 게판되어 있는 시문과 차운시, 그리고 백일장은 물론이고, 특별한 행사나 인적교류가 있을 때 지역 문화인들이 모이는 장소였고, 저명 인물들이 남겨둔 시문과 문장들이 전해지는 곳이 서원이다. 이를 통하여 해당 서원이 지닌 문화사적 위상과 지위를 엿볼 수가 있다.

이처럼 서원은 저명한 성리학자를 추송하는 단순한 제향공간이 아니라, 각 지역의 교육과 의례의 거점 공간인 동시에 지성사적 문화전통을 대표하는 곳이었다. 즉 조선시대 선비의 학문성과 도덕적 실천성, 개성을 보여주며, 지역 문화의 역사성과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곳이 바로 서원인 것이다. 나아가 서원에는 유·무형의 다양한

5) 1796년(정조 20) 서유구(徐有集)가 편찬한 『누판고(鑄板考)』에 의하면 총 610종 중 30%인 180종이 서원에서 판각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문화유산(역사, 교육, 제향의례, 건축, 기록, 경관, 인물 등)들이 존재하며, 도서 출판, 문화예술, 정치 등 복합적인 문화사가 이루어졌던 거점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서원은 17세기에 이르면 각 지역별로 서원이 경쟁적으로 건립되어 발전하였고, 학맥과 학파가 형성되면서 향촌사회에서 정치·사회적 활동을 벌이는 세력거점이 되어갔다. 특히 18세기 중후반에 이르면 서원의 남설 양상이 나타나 향촌사회의 공적 기구로서 본연의 서원 모습이 점차 퇴조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이로써 서원의 질적 저하와 사회적 폐단 야기되고 이에 대하여 영조 대에는 173개소의 서원 사우를 획정하는 강경책이 나타나기도 하였고, 1868년 대원군에 의하여 전국의 서원 사우 중에서 47개소(서원 20, 사우 27)만 남기고 모두 철폐되기에 이르렀다.

2) 서원과 향촌사회사, 지역문화

조선 후기 지역의 유교문화, 선비문화, 그리고 향촌사회사의 실체를 살필 수 있는 자료로 서원의 건립과 활동은 매우 주목되는 자료이다. 즉 서원의 건립이 어떠한 배경과 목적을 지니는가 하는 사회문화적인 문제와 구체적으로 서원 건립활동이 어떠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향촌사회의 주도권과 영향력을 반영하는 사족들의 위세도 문제이고, 제향 인물이 지역사회에 남긴 자취나 영향력이 중요하며, 마지막으로 서원 건립에 작용한 문종의 성장과정과 실제로 배경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서원의 창건과 발전은 특정 서원의 문제로 한정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기본적으로 향촌사회의 지배 구조와 역사문화적 배경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관점에서 서원의 건립활동과 운영의 실체를 대개 (1) 건립시기와 제향 인물과의 관계, (2) 건립 이전의 유서와 발전 과정 (추배 과정), (3) 건립의 주체 세력, (4) 서원 조직의 운영 모습과 자료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⁶⁾

(1) 건립 시기와 제향 인물과의 관계

서원에 제향된 인물의 성격(지위)은 관념상 서원 조직의 다른 어느 것보다 우선한다. 그리고 그 인물이 어느 시기에, 어떠한 필요에 의하여, 누구에 의하여 제향 되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만약 오늘날 문중 후손들이 내세우는 것처럼 그 인물이 역사적인 의미가 있었다면 그의 사후 곧 서원이 건립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사후 100여 년이 지나서, 혹은 수백 년이 지난 뒤에 모셔진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 인물의 학문이나 사회적 지위와 함께 이를 선양, 추앙하는 세력이 형성되어야 서원이 건립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따라서 제향된 인물과 함께, ‘건립 시기’와 그 ‘주체세력’을 주목해야 한다. 만약 제향 인물의 사후 곧바로 서원이 건립되었다면 그 제향 인물의 개인적인 지위는 객관성을 갖는다. 물론 사후 백 년 혹은 수백 년이 지났더라도 역사적인 평가가 달라져서 새롭게 제향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세조의 왕위 찬탈에 반대하다 역적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사육신이 충절이 표창되면서 해당 지역의 서원에 제향되는 것과 같은 것이 그러한 사례일 것이다.

한편 건립의 시기가 주목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같은 조선 후기라 하더라도 서원이 제 기능을 하던 시기와, 남설 현상으로 인해 그 기능과 성격이 변질되던 시기의 서원은 구별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할 때 서원은 16~17세기 사족 지배 질서의 확립과 연관

6)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경인문화사, 2008.

하여 이해될 수 있는 역사적 산물이다. 그러나 이렇게 성리학적 지배 질서가 정착되고 사족들의 공론(향론)에 의해 지방사회가 운영되던 16~17세기의 상황은 서원남설기인 18세기 중후반의 서원들은 지방 사회에서 사족 간 분열현상, 그리고 문중 세력화와 연결되고 있었다. 특히 서원남설 현상은 사족 간(성씨 간)의 대립이나, 수령의 견제로 자체 결속력을 잃고, 본래의 서원이 지녔던 고유한 권위와 의미와 기능이 크게 변질되게 된다. 아마도 우리가 오늘날 보는 서원의 권위(지위) 경쟁은 이 같은 변질기의 모습이 재현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2) 건립 이전의 유서와 발전 과정

왜 그 시기에, 그곳에, 그리고 그 인물을 제향하는 서원이 창건되게 되었을까? 대체로 서원 건립의 과정은 다음의 몇 가지로 유형을 구분할 수가 있을 것이다.

- ① 학식, 덕망, 공적 등으로 사후 지역인들의 청원에 의해 건립되는 경우
- ② 후학의 양성이나 학행으로 모범을 보였던 유서(서재書齋, 강사講舍, 유허遺墟, 영당影堂, 사당祠堂 등)가 있어 후대에 이를 토대로 서원을 건립하는 경우
- ③ 지역적 연고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약하지만 그 후손들이 변창하여 그들의 명현선조를 제향하는 제각(祭閣) 겸 가묘(家廟)로 건립되었다가 문중사우로 발전한 경우.⁷⁾

물론 이들 세 가지 유형도 세밀히 검토할 경우, 중앙의 정치세력과 연계되면서 추진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중앙 세력과의

7) 이 경우는 다시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다른 院祠에 타 성씨와 함께 배향하였다가 분리 창건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문중선조 중심으로 창건된 경우이다.

연계도 그 주체나 적극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중앙 세력이 자과의 세력을 부식하기 위하여 집중적인 지원을 하여 건설되는 경우나, 향촌사회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겨냥하고 적극적으로 중앙 세력과 연계시키는 경우, 혹은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일치되는 경우들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원 창건 및 변천상 주도 세력들이 누구인가가 중요하다. 또 창건 과정상 관(官)과의 연대가 필요한데 이 과정과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하다. 모든 서원은 관의 허가에 의해 건립되고,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도 있게 된다. 사액(賜額)이라든가 미사액(未賜額)의 경우라도 기본적인 지원은 있었으며, 이는 후일 훼손 단계에서 보는 바와 같은 폐단의 발단이 되기도 하였다. 이 절차를 무시한 서원은 수시로 훼손되기도 하며(영조대, 순조대) 아예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시기가 되면 한 군현에 30~40개소의 원사(院祠)가 난립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므로 원사의 성격은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야 한다.

한편 서원의 발전 과정 중에서 추배 인물과 추배 시기의 문제를 빼어 놓을 수가 없다. 각 원사는 제향 인물을 주벽(主壁)과 배향(配享), 연벽(連壁) 혹은 병향(并享)의 형태로 구분하여 그 위치(位次)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다. 이들 배향이나 병향 인물들은 주벽으로 정해진 인물과 학연·지연·혈연·당색 등 일정한 연고를 갖고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그 관계가 무엇이나를 주목함으로써 서원의 기본적인 성향을 확인할 수도 있다. 이 점은 서원의 성격이나 변천사를 이해함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관심 대상이다.

(3) 건립의 주체 세력

서원을 창건하는 주체는 누구일까? 이는 향촌사회조직으로서 서원이 기능하는 계기, 비중을 보여주고, 그 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서원의 건립 주체세력은 대부분 향내(鄉內)의 유림 혹은 도유(道儒)로 나타나고 있지만 내용상 이들은 재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향중공론(鄉中公論)으로 창건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주도 세력이 학통·성씨·당색, 혹은 이들 세력의 연대에 의한 것 등등 매우 다양하다. 이 주체 세력이 누구이며, 건립 당시 그들의 지위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의 문제는 바로 당시대 그 지방사회 구조상 그들 주체 세력들이 차지하는 위치를 설정하는 기준점이 되어 준다.

왜, 그들이 그 시기에, 그 지역에 서원을 만들었는지의 이유와 배경도 설명이 가능하다. 16세기 말 혹은 17세기 초의 서원이 향중공론이나 사족적·학문적 분위기를 바탕 하는 모습과 소위 서원 남설기라고 불려지는 18세기 중후반에 보면 기문 중심의 명현선조를 제향하면서 그 족적 권위를 과시하는 형태가 일반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우일수록 관(官)과의 연대, 유착은 심하여 서원이 지닌 고유의 의미와 권위가 저락하기도 한다. 문중서원의 경우 이 같은 향촌사회의 생생한 자료가 많아 주목된다.

(4) 서원의 조직과 운영, 자료

서원은 배출 인물의 사상, 저술을 비롯하여 조선시대의 교육, 제례, 경제, 생활문화, 유적, 유물 등이 망라된 향촌사회의 종합문화 거점이었다.

서원 사우에는 각 지방의 사회사적 위상을 밝혀주는 자료가 많이 보존되어 있다. 대부분 배향 인물 자료가 중심을 이루지만, 문중 기반의 사회적인 성장 과정과 관계되어 배향 과정, 추배의 시기, 인물의 성격 추적이 가능하며, 이는 향촌사회 구조의 시대별 변화상과 연결되게 되어 있다. 또 창건 과정, 이건 및 중건 과정, 사액 활동, 혹은 문집의 간행이나 중앙의 정치 문제와 관련된 집회 등은 그 지방사회에의 서원 세력이 지닌 상대적인 위상을 점검하는 토대로서 주목된다. 한편 이와

표리 관계에 있는 노비안(奴婢案)·전답안(田畓案) 등 경제사 자료와 서원조직 운영의 모습이 표현되는 완의(完議)·절목류(節目類), 그리고 타 사회조직과의 유대와 관계를 보여주는 통문(通文)·소지(所志)·명문(明文) 등의 고문서자료, 서원의 부설기구로 학계(學契)나 문계(門契)·족계류(族契類) 조직문서들, 유안(儒案)이나 선생안(先生案), 고왕록(顧往錄), 시도기(時到記) 등도 그 같은 종합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각 문중(종가나 재실)이나 정려, 정각, 동각, 서당 등의 관련 자료도 서원 조직과 연계되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끝으로 서원은 지역의 당파 소굴, 경제적 특권과 민중 수탈, 문중 경쟁의 도구 등등으로 부정적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향촌 사회에 있어 서원과 사우는 일종의 문화거점이자, 지성들의 집회소였다. 일차적으로는 강학과 교육, 의례, 이념의 보급, 학문 발전에 기여한 기관이면서 동시에 제향 인물이나 그의 학맥을 잇는 인사들의 문집류, 자료나 사적들이 보존된 도서관이자 문화예술의 경연장이기도 하였다.

3. 복원 필요성과 의의, 향후 과제

조선시대 지역의 유교적 전통과 정신문화, 지성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서원·사우가 예산 지역에는 예산의 덕잠서원, 덕산의 회암서원, 대흥의 우천사와 소도독사 등으로 모두 4개소가 있었다. 다만 도산서원의 경우 원래 조선시대에는 신창현[아산 도고면 도산리]에 1670년(현종 11) 건립되었던 유적으로 조익 사당과 연계하여 이전, 명칭을 부여한 것이다. 충의사의 경우도 근대 유적으로 일단 논외로 한다.

다음의 표에서 보듯 조선시대 충청남도지역에는 모두 77여 개소의

서원·사우가 건립되었는데 이 중 예산 지역의 4개소는 상대적으로 건립의 수가 많지 않은 모습이다.

충남 지역 서원, 사우의 건립 추이

시기	명 종	선 조	광 해 군	인 조	효 종	현 종	숙 종		경 종	영 조		정 조	순 조	현 종	연 대 미 상	계
							1- 19	20- 46		1- 16	17- 52					
서원		3	4	5	1	2	7	12	3					1	1	39
사우	(1)	1		2	1	2	2	15	2	6			1		5	38

특히 조선시대 예산 지역은 예산, 덕산, 대흥의 3개 군현이 있었으므로 한 개 군현 당 1, 2개소 밖에 안 되었으며, 건립 시기도 소도독사의 경우 고려조부터 유서가 마련된 특별한 사례이므로 논외로 한다면, 이상할 정도로 그 건립 시기가 숙종대 후반에 집중되어 있다. 즉 예산 현에 1705년 덕잠서원이 건립되고, 대흥현에는 1708년에 우천사가 건립되며, 덕산현에는 1709년 회암서원이 건립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처럼 거의 비슷한 시기에 3개현에 사우 건립이 집중되는 것이나, 그것이 모두 서인-노론계 성향을 가진 인사들의 지원과 협조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들 2개 서원과 사우는 우천사의 경우 재실 우천재를 복원하여 제향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가 터만 남은 상태이며, 유사한 성격의 부조묘 4곳도 후손들의 이거로 후대에 예산 지역에 이 건된 것들이 다.

* 이들 3개 서원의 역사와 가치에 대하여는 사계 전문가들(최영성, 박성묵, 지두환)의 상세한 정리 발표를 참조.

예산의 서원·사우 부조묘

구분	소재지	서원명	건립연대	사액	제향인물	문화재
서원	大興 (新昌)	道山書院	숙종 11 (1670)		趙翼, 趙克善	유형 126호 ⁸⁾
	禮山	德岑書院	숙종 31 (1705)	1714	金絳	
	德山	晦菴書院	숙종 35 (1709)		朱子 李湛 趙克善 李洽 安敏學	
사우	大興	蘇都督祠	고려조		蘇定方	
	大興	牛泉祠宇	숙종 34 (1708)		李若水	
	德山	忠義祠	1968년		尹奉吉	사적 90호
부조묘	德山	李季甸 不祧廟	15세기		李季甸	이건
	禮山	李山海 祠堂	광해 1 (1609)		李山海	이건
	大興	李山甫 不祧廟	인조 16 (1638)		李山甫	이건
	禮山	成希雍祠	16세기		成希雍	이건

1) 복원의 기본 방향⁹⁾

(1) 고품격과 지성적 가치 재생

우선 서원, 유교문화 관련 인적자원과 품격에 관한 우리의 의지와 인식의 신장이 절실하다. 현재의 향교·서원에서 과거 조선시대의 품격과 권위, 그리고 스승과 학생의 수준을 찾기 힘들다. 물론 시대가 달라졌으니 직접 비교는 곤란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에 비하여 부족하고 열악함을 모두 인정할 것이다. 이는 활용의 활성화에 앞서 먼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어찌면 활용과 선후로 짝을 이루면서 공동으로 추구하여야 할 과제도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나는 수요층과 대상에 대하여도 좀 더 적극적이고 적합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초등학생보다는 대학생과 청장년이, 사자소학이나 천자문 강의 보다는 인문학 강좌나 학술세미나, 그리고 서원에서 현대 사회이슈인 환경, 정치, 여성문제, 시사토론회 등도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서원의 품격에 더 맞는다. 또 대를 이어 유교문화의 내면적 가치를 이어갈 인력 양성의 자체 시스템, 다양한 관련 전문 인력의 광범한 연계, 유인, 지원이 필요하다.

(2) 도덕성, 공공성 기반의 확보

서원이 도덕성과 공공성, 공익성을 기반으로 하여야 활용, 계승도 활성화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자평과 자성이 필요하다. 그동안 서원 문화는 권위적 건축물의 복원과 정비, 특히 가문 선조의 추숭이나 경쟁 모습으로 홍보되고 활용되었다. 인물 추숭은 객관적이지 못할 때가 많았고, 때문에 그 인물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8) 조익 사당이 지정되었고 도산서원은 비지정.

9) 이해준, 『서원보존·정비 관리방안 연구』, (책임연구) 문화재청, 2010.

가치와 의미도 퇴색해 버리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아무리 의미와 가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특정 가문이나, 집단의 이해와 직결되는 것으로 비쳐질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유교문화자원은 무엇보다 도덕과 지성, 교육의 장이었다는 데 가치가 있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저변에 물질과 경쟁 중심의 의식이 팽배한 상태에서 유교-서원문화 유산은 도덕성 결여나 교육과 정신문화의 황폐화 등 현실을 극복하고 도덕, 인성, 사회교육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자원인 것이다.

(3) 활용을 고려한 보존 및 정비복원

끝으로 이 모든 자원화가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로서 서원 유적의 정비와 복원 문제가 남아 있다. 그런데 복원과 활용에 앞서서 좀 더 면밀히 생각하여 볼 일이 바로 ‘기본 방향과 의식’에 대한 것이다. 즉 왜 복원 정비를 하고, 누구를 위하여 하며, 또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한 후, 이에 대한 철저한 답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수많은 서원들이 남아 있고, 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나, 경쟁력을 상실한 채 방치되고, 더욱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정비 복원사업이 진행된 경우라도 그 활용률은 10% 정도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이제는 자원 활용의 우선순위에 따른 종합정비 활용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에 투자된 문화재의 복원과 정비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한 체험과 유교문화 프로그램을 접목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2) 현행 서원의 복원과 활용 실태¹⁰⁾

* 복원 추이와 동향 : 발전적, 적극 활용의지의 미흡

- 계승가치 특화가치, 지역성 인식 부족
- 건축물 복원 중심
- 제향, 의례 중심의 강조로 서원 문화를 축소
- 추송, 후손(문중) 중심 운영
- 서원문화의 재생, 계승, 활용 노력 미흡
- 다양한 원형콘텐츠(자원)의 적극적 발굴, 활용 의지 부족

서원의 복원과 이를 통한 문화 활용은 지역사회에서의 서원이 가진 본연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역사적 의미와 변천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

건축물의 복원만이 서원의 전통문화를 발전시키는 길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서원 복원 사업을 보면 모두가 건물 복원에 집중 투자되고, 실제로 그 문화적 가치의 계승, 활용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최근 건립 지원·시설 운영비와 활용프로그램 개발에 투자된 비용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활용프로그램 지원비가 건립·시설 운영비의 약 5-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¹¹⁾

그러나 이러한 기능에 대한 복합적 이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현재 일부에서 보이는 것처럼 제향 인물에 대한 향사, 한자 예정, 다도 등 유초년 학생 대상의 프로그램, 서원 역사와 건축, 경관 답사, 인근 유적 또는 문화재와 연계 현장답사 등이 대부분이고, 어떤 경우는 서원문화와 어울리지 않는 문화예술행사들이 일어지기도 한다.

10) 박성진 외, 「한국 현대서원과 서원 현황」, 『한국의 서원문화』, 한국서원연합회, 2014.

11) 문화체육관광부, 『유교문화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연구』, 2009.

현재 복원된 약 900여 개의 서원이 전국에 존재하지만 활용을 위한 개방에 적극적인 서원은 거의 없고, 활용의 모습도 여러 한계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요약해 보면

- 해당 서원 문화의 역사문화 가치, 성격에 대한 인식 부족[유사, 동일]
- 도덕, 인성, 정치, 교육, 의례, 문화예술 등 종합적 문화 활용 부족
- 인물(추송), 제향 및 후손 중심의 편향적, 폐쇄적 운영

등이 지적될 수 있다. 특히 활용 프로그램의 내용에서

- 유사, 무차별의 동일한 프로그램 → 특화, 지원 노력, 투자
- 지역성, 해당서원의 특성 인식 극복
- 지역 관련 유적 연계 노력 저조

등은 최우선적으로 극복되고 변화되어야 할 과제이다.

3) 복원과 향후 자원 활용 방향(제언)

예산 지역의 경우 서원의 복원을 추진하려면, 먼저 건립의 사전 준비와 추진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¹²⁾ 그 과정에서

- 복원 위치 문제 — 가치, 의미, 관련 유적, 유서, 경관
- 자료 최대한, 충실한 수집 정리(스토리, 콘텐츠 자료화)
- 지역사회에서의 위상, 특성, 경쟁력 연구 정리
- 계승·활용의 계획 마련과 전망

12) 이해준, 『서원보존·정비 관리방안 연구』 (책임연구) 문화재청, 2010.

등이 유림, 후손, 전문가, 활용가, 행정인 등이 협업적으로 이를 연구하고 추진하면 좋을 것이다.¹³⁾

(1) 경쟁력 있는 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

- 서원의 명성과 품위에 맞는 활용(문학·사상·역사 특강, 이벤트)
- 지성들의 집회소, 사회교육의 장소, 도서관 및 출판기능 참고
- 고급 선비문화의 공간(역사 경관) : 격리된, 철학적 의미 갖는 명소 체험
- 강학 전통의 복구와 계승, 덕성·인성 교육의 대안, 지속가능한 교육 방침

(2) 다양한 콘텐츠의 확보와 개발

- 서원의 특징, 개성적인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 적극 개발
- 지역의 지성사적 전통, 학문, 강학 유서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 유형·무형의 모든 문화자원을 활용 대상
- 교육 자료, 홍보 자료집의 제작¹⁴⁾
- 수요층과 주제별 보조 아이디어 개발 추가
- 서원스케이 : 토론, 전통과 현대의 만남, 유림과 대화 등의 활용 위주

(3) 서원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

- 지역의 지성사적 전통, 학문, 강학 유서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 수요층별 맞춤형 콘텐츠 활용 프로그램 : 차별성과 경쟁력
- 도서 출판 및 도서관적 기능의 문화사적 의미

13) 이해준, 「유교문화 자원화를 위한 연구방법론」, 『충청학과 충청문화』 9권,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09.

14) 이해준, 「서원별 교육, 홍보자료 편찬방향」, 『한국서원학보』 2집, 한국서원학회, 2013.

4) 서원의 개별적 특성 고려한 경쟁력(차별화)

- 인물 중심의 서원 : 제향 인물과 관련
- 강학 중심의 서원 : 교육 및 학문 활동
- 의례 중심의 서원 : 제향 등 의례와 의식의 이벤트화
- 유물 및 역사자료 중심의 서원 : 전시, 체험, 기행, 답사 등 학습장

서원문화의 활용, 프로그램 개발 유형¹⁵⁾

프로그램	주요 내용 예시
교육의례 (체험)	- 서원 제향 의례 등 유교 의례 이벤트 프로그램 - 단순제례→전통과 현대의 만남, 유림과 대화, 의미 해설 체험 - 교육의례 : 강학, 시회 - 향약, 향음례, 향사례, 향회, 새로운 의례의 발굴 개발
전통교육 (체험)	- 서원 교육 및 학문 활동과 관련한 프로그램 : 교육과정, 교과서, 운영 실제, 재정, 규약(고문서, 현판 자료) - 고강(시험), 동서재 기숙 등등 서원 생활문화 체험 - 유림과의 토론(대화)
문화유적 (답사)	- 유교문화 성격별, 권역별 코스 개발 - 건물, 전적, 목판, 고문서, 금석문, 생활사 유적 유물 포함 - 관련 유적 : 서당, 종가, 누정, 재실, 정려 등 포함 - 관련 역사 사건이나 인물 일화와 저술, 업적, 유적 등 포함
인물사상 (교육답사)	- 인물 연구, 교육 프로그램으로 특화 - 시대, 인물, 주제(의병 도학, 사림 정치) 교육 - 인물 유적 탐방, 인물 관련 유적 유물(저술, 생애, 일화 등) - 주요 인물 관련 (동족) 마을 탐방 및 종가 체험 - 서원의 記文, 詩文 자료의 조사와 번역

15) 이해준, 「유교문화 자원화를 위한 연구방법론」, 『충청학과 충청문화』 9, 충남 역사문화연구원, 2009.

공간활용 (활용)	- 학교 교육과 연계, 문화 교육 행사장으로 적극 활용 - 기존 문화유적 최대 활용, 주제별 답사와 체험 - 고전 강독, 한문, 족보 특강, 정신 학술 교육 등등 - 대학연구소, 학술행사 유치, 교육청과 연계
자료관 (전시홍보)	- 유물 및 소장 자료 전시(학습장화) - 인물유품, 유교문화재, 고문서 전적, 금석문 - 정례 특별전시회 개최, 기증 및 위탁 전시기능 - 자료 종합 정리(교양서 안내서 발간), 학술세미나

이밖에도 서원의 문화와 제향 인물과 관련된 문화 소재들은 창작예술로 계승 발전시켜도 좋을 만한 내용들을 많이 지니고 있다. 앞서 예시한 원형콘텐츠 들을 소재로 재미있는 일화와 창작예술로의 활용이 가능한 소재들은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역사문화를 소재로 한 창작예술은 문화계에서 관심을 갖고 시도하는 분야이나, 이들 활용에서 보이는 한계의 공통점은 무엇보다도 ‘연구자-활용자(수요자)-설계자’가 서로 상생적으로 연계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원형 자료에 대한 광범한 자료와 지식을 지닌 연구자와, 이를 실행하는 행정, 교육, 안내하는 사람의 의도가 다른 경우도 많고, 또 아무리 좋은 연구라도 수요자나 활용의 방법에서 적용이 곤란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들 창작예술 문화가 서원 유적 현장에서 재현된다면, 과거의 역사문화가 현재와 미래의 문화로, 그리고 학생들이 쉽게 접하고 즐기면서 배우는 문화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¹⁶⁾

16) 이해준, 「서원문화의 계승 활용과 원형콘텐츠 정리」, 『향토사연구』 24집, 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2014. 이 논문에서는 한산 문헌서원을 사례로 선정하여 서천 문헌서원의 서원스토리, 콘텐츠를 ①제향 인물(생애와 행적), ②저술, ③일화, ④유적 등으로 나누어 관련 스토리를 60여 건으로 개발,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된 다양한 교육 체험, 관광 프로그램과 관련시켜 관련 전문연구자나 이벤트회사, 교사 등을 참여시켜,

- ① 내용별 : 서원 역사와 전통, 제향 인물의 행적·사상 알기, 체험하기
- ② 일정별 : 1박 2일, 1일, 4시간, 2시간
- ③ 대상별 : 학생(중고, 초, 유아), 대학생, 일반시민, 기타 관광객
- ④ 방법별 : 교육, 체험, 답사, 경연, 발표회, 자료집 개발 등등

의 내용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수요자별 특화된 콘텐츠를 보급하고 프로그램을 선정 지원하는 방법도 유용할 듯하다. 이 방법은 교육 및 관광의 수요층의 수준이나 기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이자, 홍보의 수단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선정된 프로그램에는 시험운영비를 지원하고,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 프로그램을 보완 추가하는 방안이다. 이런 사업을 교육청이나 교육관련 기관에서 주관하거나 축제의 한 행사로 매년 특화시켜도 좋을 것이다.

발제자 관련 연구자료

- 1991, 「조선후기 서원연구와 향촌사회사」, 『한국사론』 21집, 국사편찬위원회
- 2006, 『한국 서원과 향촌사회』, 『한국학논총』 29집,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 2007, 「호서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적 성격」, 『국학연구』 11집, 한국국학진흥원
- 2008,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경인문화사
- 2009, 「유교문화 자원화를 위한 연구방법론」, 『충청학과 충청문화』 9권, 충남역사문화연구원
- 2010, 『서원보존 정비 관리방안 연구』, (책임) 문화재청
- 2011, 「한국 서원 유형·무형유산의 특징」, 『한국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국가브랜드위원회
- 2013, 「서원별 교육, 홍보자료 편찬방향」, 『한국서원학보』 2집, 한국서원학회
- 2014, 「서원문화의 계승 활용과 원형콘텐츠 정리」, 『향토사연구』 24집, 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 2018, 「한국 서원의 지역네트워크와 사회사적 활동」, 『한국서원의 전통 가치와 현대적 계승』,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참조] 예산 서원·사우·부조묘 자료

○ 예산 덕잠서원 지(德岑書院 址)

- 위치 : 예산군 예산읍 덕잠골
- 제향 인물 : 自庵 金絳(1488~1534)
청암 조광조·충암 김정·자암 김구를 三庵이라 칭함
부 金季文이 1500년대 초반 대흥군수로 예산 신암에 정착
- 창건 과정 : 김구 사후 170여 년만인 1703년(숙종 29) 청건 상소를 올려
1705년 서원 창건
- 사액, 중수 : 1714년(숙종 40)에는 ‘德岑’이라는 사액[예산군 유일의 사액서원]
1813년(순조 13), 1830년(순조 30), 1856년(철종 7)에 중수
- 훼손 : 1868년 대원군의 서원 훼철령으로 훼손
- 관련 유적 : 덕잠서원유허비, 김구묘소(묘비 1640년) 신도비(외손 윤봉조 찬)
- 현재 덕잠서원은 터만 남아 있는데, 외면들이 곳곳에서 발견될 뿐 초석 등
건축물의 흔적을 확인하기 힘들다.

○ 덕산 회암서원 지(晦庵書院 址)

- 위치 : 예산군 봉산면 봉림리 436 서원골
- 창건 연유 : 1706년 덕산에 귀양 왔던 김진규는 상왕산 아래에 회암동(晦庵洞)이라는 마을과 인근의 고정봉, 운곡, 서림, 죽림 등 지명이 주자의 향리 지명과 부합되어 이곳에 주자를 제향하는 서원건립을 발의했다고 한다.

- 창건 과정 : 1709년(숙종 35) 충청도 36읍의 유생들이 창건을 발의하여 건립.
- 제향 인물 : 창건 시 주자 독향[봉안 축문 南塘 韓元震, 춘추 봉안문 屏溪 尹鳳九 찬]. 1727년 靜存齋 李湛, 冶谷 趙克善, 1800년 醉庵 李洽, 1830년 楓崖 安敏學 추향.
- 제향인 덕산 연고 : 李湛(1510~1575) 1554년(명종 9) 덕산현감 부임 趙克善(1595~1658) 1600년경 덕산현 입향, 李洽 한산이씨 덕산 입향조, 安敏學(1542~1601) 1583년 대흥(大興)현감 부임
- 훼손 : 1868년 대원군의 서원 훼손령으로 훼손, 1878년 8도 유생 복설시도
- 관련 유적 : 서원 터는 저수지 수몰, 현재 서원유허비(1896년)가 세워짐. 仙遊巖 암각, 조극선 묘, 조극선 신도비(봉산면 시동리 산 2-1), 조극선 정려

○ 도산서원(道山書院) - 조익 사당(趙翼 祠堂)

- 위치 : 원 위치(아산 도고면 도산리) [조익 사당 : 신양면 신양리 산 33-1]
- 제향 인물 : 浦渚 趙翼(1579~1655), 冶谷 趙克善(1595~1658)
- 창건 : 1670년(현종 11) 신창에 건립
- 훼손 : 1868년 대원군의 서원 훼손령으로 훼손. 조익의 묘역에 사당 건립
- 관련 유적 : 조익의 묘소와 신도비(1655년, 신양면 신양리 산 33-1. 충남도 문화재자료 제 284호로 지정), 조극선의 묘(봉산면 시동리), 포저문집 외 자료. 포저 조익과 3자 松谷 趙復陽의 목판(공주 마곡사 소장 : 충남도 유형문화재 제126호로 지정)

○ 소도독사 지(蘇都督祠 址)

- 위치 : 대흥면 상중리 산4-20(임존성길 115)
- 제향 인물 : 唐將 蘇定方,
- 창건 : 고려조. 『신증동국여지승람』 성황사조에 기록
- 훼손 : 1868년 대원군의 서원 훼손령으로 훼손
- 관련 유적 : 터만 남음. 주초석 산견

○ 우천사(牛泉祠)

- 위치 : 대흥면 교촌리 602(교촌소물길 95-15)
- 제향 인물 : 牛泉 李若水(1486~1531). 1519년 기묘사화로 대흥 유배 약 1년 만에 죽음
- 창건 : 1708년(숙종 34) 호서지역 200여 유생들이 창건 상소로 건립
- 별칭 : 牛泉祠宇, 牛泉鄉賢祠, 牛泉鄉祠, 牛井祠, 笥泉書院
- 훼손 : 1868년 대원군 훼손. 1974년 후손들이 우정재 건축
- 관련 유적 : 이약수의 묘소와 묘비, 『우천선생실기』(1936년 2권 1책)

○ 문열공 이계전 부조묘(文烈公 李季甸 不祧廟)

- 위치 : 봉산면 봉림리 51
- 제향인 : 存養齋 李季甸(1404~1459) : 목은 이색의 손자, 시호 文烈
- 건립 : 이흠 때 한산이씨 가문 덕산 입향, 세거. 이계전의 부조묘도 이건 현존 건물은 1997년에 건립

○ 이산해 사당(李山海 祠堂)

- 위치 : 대술면 방산리 산7-1(상항방산로 319-50)
- 제향인 : 鵝溪 李山海(1539~1609)
- 건립 : 1609년(광해 1) 보령에 창건
- 이건 : 1920년대 사손이 묘소 아래로 이거하면서 건립. 현재 건물은 1981년 방산저수지 공사로 이건함. 정면 3칸, 측면 3칸. 영정도 봉안
- 관련 유물, 유적 : 아계 이산해 영정(17세기 전반 제작추정, 원본을 포함한 2본,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97호로 지정), 이산해 묘역, 이산해 신도비, 아계유고(6권 3책 1659년 목판), 초서 목판(6장),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97호로 지정.

○ 이산보 불천위 사당(李山甫 不遷位 祠堂)

- 위치 : 광시면 장신리 698
- 제향인 : 鳴谷 李山甫(1539 ~ 1594)
- 건립 : 1638년(인조 16) 보령 청라면 장산리에 창건[당시 상량보 유존]
- 이건 : 1885년 경 현재의 위치로 이건(후손 이주), 1997년 중수
- 관련 유적 : 정면 3칸, 측면 1칸. 鳴谷先生不祧廟 현판, 영정.

○ 성희옹사(成希雍祠)

- 위치 : 신양면 귀곡리 753(귀곡업목길 45)
- 제향인 : 義齋 成希雍(1464~1526) 중종반정 3등 공신

- 건립 : 사후 김포 곤촌에 부조묘 건립
- 이건 : 처가 이거로 세거. 1943년 후손들에 의해 현지로 이건
- 유적 : 외삼문 仁正門, 재실은 永世齋로 정·측면 3칸, 겹처마에 팔작지붕이다. 사당 昌義祠는 정·측 1칸. 1990년에 보수
- 관련 유적 : 성희옹 묘소(1997년 이장)

「서원 복원 추이와 예산지역 서원복원 필요성」에 대한 논평문

송인창(대전대학교 명예교수)

주지하다시피 2019년 7월 한국의 서원 아홉 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국 서원의 현황을 돌이켜 보고 특히 지역의 서원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복원 문제를 고민한 이 글은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성사와 도덕적 실천, 어른스러움의 대명사였던 조선의 선비문화가 자랑스럽게, 그리고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정신사의 고급 브랜드로, 미래 경쟁력으로 되살려졌으면 싶다.”는 이 교수님의 염원이 이 논문에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의 견해에 덧붙여 간략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논평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 논문은 당대의 ‘지성사적 전통과 정신문화적 유서가 서려있는’ 서원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전통교육 공간, 선현 제향과 사회교육, 지역 지성인들의 집회소, 서적 간행 및 도서관 기능, 문화예술 공간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원에는 유·무형의 다양한 문화유산(역사, 교육, 제향의례, 건축, 기록, 경관, 인물 등)들이 존재하며, 도서 출판, 문화예술, 정치 등 복합적인 문화사가 이루어졌던 거점이었던 것”이라는 점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재를 양성하고 선현을 배향하며 향촌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던 서원이 점차 향촌사회의 혈연이나 지연, 사승관계 등을 통해 세력을 확장하는 발판이 됨으로써 그 폐단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1864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을 겪기에 이릅니다.

서원의 건립 활동과 운영의 실체를 대개 (1) 건립시기와 제향 인물과의 관계, (2) 건립 이전의 유서와 발전 과정(추배 과정), (3) 건립의 주체 세력, (4) 서원 조직의 운영 모습, 자료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특히 ‘조선시대 충청남도 지역에는 모두 77여 개소의 서원·사우가 건립되었는데 이 중 예산 지역의 4개소는 상대적으로 건립의 수가 많지 않은 모습’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즉 ‘예산현에 1705년 덕잠서원이 건립되고, 대흥현에는 1708년에 우천사가 건립되며, 덕산현에는 1709년 회암서원이 건립’되었고, ‘이들 2개 서원과 사우는 우천사의 경우 재실 우천재를 복원하여 제향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가 터만 남은 상태이며, 유사한 성격의 부조묘 4곳도 후손들의 이거로 후대에 예산 지역에 이 건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복원된 약 900여 개의 서원이 전국에 존재하지만 활용을 위한 개방에 적극적인 서원은 거의 없고, 활용의 모습도 여러 한계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예산 지역 서원의 복원과 향후 자원 활용 방향에 대해 ‘1)경쟁력 있는 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 2)다양한 콘텐츠의 확보와 개발, 3)서원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 4)서원의 개별적 특성 고려한 경쟁력(차별화) 등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원이 과거의 문화유산으로서만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도 살아 숨 쉬는 문화 체험의 장으로, 인성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림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먼저 서원 훼손 이후 단절된 시공간의 간극을 메꾸어야 하는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마 복원이 결정되고 작업을 수행하기 전부터도 그 중요성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차별화 전략은 무엇인지요. 다른 서원 복원의 기본방향이 ‘1)고품격과 지성적

가치 재생, 2)도덕성, 공공성 기반의 확보, 3)활용을 고려한 보존 및 정비복원 등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과생되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예산 지역 서원 복원 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서원의 현대적 가용성과 예산학

김문준(건양대 교수)

1. 머리말
2. 예산 유교문화의 현황과 유교자원
3. 서원의 현대적 활용방안
4. 맺는말-서원 활용을 위한 제언

1. 머리말

서원문화를 오늘날 다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 전통문화이기 때문이 아니며, 한국인이 유교문화를 통하여 쌓아온 인간애, 평화정신, 공동체 정신을 찾을 수 있는 한국인의 문화특성을 되살리는 노력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 수준과 한국인이 창조해온 문화 역량이라는 보편성을 바탕으로 한국인이 만들어 온 문화를 드러내어 형상화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교문화 유산 활용은 문화유적과 인물을 나열하고 전시하는데 그치지 않아야 하며, 유교 유적에 대한 재활용은 건물 복원 위주에서 벗어나야 하고 인물에 대한 영웅적이고 비일상적인 일화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유교정신은 성차별적이고, 예(禮)의 형식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21세기 새로운 ‘인간중심적 사회모델’이 자리잡도록 노력하는 과정에 기여해야 한다. 유교가 담은 상생·

공존·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인문정신으로 화합과 소통, 상생과 공존, 헌신과 사회봉사의 리더십을 추구한다. 이러한 세계관, 더불어 사는 인생관을 생각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부모자식, 사제(師弟), 노소(老少)가 소통하고 화합하는 생활공간을 만들자는 현실 의식을 지향해야 한다.

그러자면 서원 활용은 과거 지향이 아니라, 매 시기마다 시대에 맞게 유교문화를 재해석해야 한다. 유교는 농업사회를 기반으로 성립된 문화다. 따라서 오늘날 유교문화를 활용하려면 현대적 활용방안으로 창조적 작용이 필요하다. 유교를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유교가 추구하는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현재의 가치관에 적절한 수준에서 재해석하고, 시대에 맞도록 우리사회가 공유하는 인류애(人類愛)적 가치를 활용한다면 현대적으로 활용할 콘텐츠들이 무궁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예산의 서원문화 개발은 예산 지역 발전뿐 아니라 ‘인간중심적 사회모델’이 자리잡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충청 지역과 국가의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시민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어야 한다. 충청 지역은 조선 후기 기호유학의 중심지로서 한국 유교문화의 특성을 집약적이고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곳으로, 정신문화 전통의 계승과 보존이 강한 지역이면서, 조선 선비들의 정서를 반영하는 많은 유교문화자원이 남아 있는 곳이다. 따라서 예산의 유교문화 개발은 충청 지역 이미지 강화의 방안으로서 충청문화정신을 상징화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예산 유교문화에 내재한 정신의 특징과 장점을 살펴보고, 선택과 집종의 차원에서 그 활용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충효예의 고장 예산 유교문화의 현황과 유교자원

1) 예산의 유교 유형자원

예산군은 충청남도 신도청 중심지이고,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의 남북 간 중간 지역에 위치하여 충남 서북부 지역 도로교통의 중심적, 분기점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예산은 풍부한 유학의 학풍이 전해 내려오는 곳이고, 예의(禮義) 정신이 충만한 양반의 고장으로서, 생생한 ‘충효예(忠孝藝)’의 사례가 풍부한 곳이다. 예산은 충효예의 고장으로 예산 지역이 지닌 유교문화 유산은 몇 군데 유형 유교문화유산이 전해온다.

유교의 대표적인 유형문화 유산은 향교(鄕校)와 서원(書院)이 있다. 예산군은 1914년에 조선시대의 예산·대흥·덕산 현을 합한 지역이다. 따라서 향교는 예산향교(예산군 예산읍, 충청남도 기념물 제138호)·대흥향교(예산군 대흥면, 충청남도 기념물 제136호)·덕산향교(예산군 덕산면, 충청남도 기념물 제137호) 등 3곳이다. 서원은 현재 도산서원(道山書院) 1곳이 있다. 도산서원은 숙종 때 신창(현재 아산시)에 건립되었는데, 2005년에 포저 조익 사당(1991년 중건)이 있는 장소인 신양으로 이 건했다.

예산 지역 서원

서원명	위치	건립시기	배향 인물	현존 여부
도산서원	대흥 (신창)	숙종 11 (1670)	조익, 조극선	현존(2005년 신양으로 이건)
덕암서원	예산	숙종 31 (1705) *사액: 1714	김구	무
회암서원	덕산	숙종 35 (1709)	주자, 이담, 조극선, 이흠, 안민학	무

과거에 덕잠서원(德岑書院)과 회암서원(晦巖書院) 두 곳이 있었으나 두 서원 모두 1868년(고종 5)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철폐되어 현재 까지 재건하지 못하고 그 터만 남아 있다.¹⁾ 덕잠서원은 예산 유일의 사액서원으로 예산군 예산읍 향천리 금오산 동쪽 덕잠골에 소재했다. 1714년에 덕잠서원으로 사액을 받았다. 순조의 장인 김조순(金祖淳)이 덕잠서원 원장을 지냈고, 김조순의 아들 김좌근(金左根)이 원장을 역임했다. 김조순이 서원을 증수하고 김좌근도 건물을 증축·보수하였다. 회암서원은 예산군 봉산면 봉림리에 건립되었던 서원으로, 1709년(숙종 35)에 덕산 지역으로 귀양을 온 김진규(金鎭圭, 1658~1716)가 주도하여 창건한 주자 제향 서원이다.

또한 보존 상태가 양호한 대흥동헌(1703년 증수)과 추사고택(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충남 유형문화재 제43호)이 있다. 추사고택은 추사 김정희의 생가로서, 추사의 증조부 월성위 김한신이 영조 때 서울 장동에 있던 집을 현재의 신암으로 옮긴 53칸의 집이다. 현재 관광객이 예산을 찾는 명소가 되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예산군 덕산면 시랑리에 매헌(梅軒) 윤봉길 의사의 충의 정신을 드높이기 위해 그의 영정을 봉안한 사당 충의사(忠義祠, 사적 제229호)가 있고, 윤봉길의사 어록탑(2000년), 윤봉길 의사 기념관(2001년)이 있다. 그 밖의 예산의 문화 자원으로는 수덕사(修德寺: 국보 제49호) 고암 이응노의 집(충청남도 기념물 제103호) 그리고 문화관광 자원으로는 덕산온천단지 위락 시설 확충(2011년), 내포보부상촌 조성(2014년), 수덕미술관 건립(2009년), 가야산 자연생태교육장 건립(2010년), 슬로우시티 지정(2009년) 등 현재 덕산온천관광지와 주변 관광자원을 상호 연계하여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1) 『충남의 서원·사우』(충청남도, 1999).

2) 예산의 유학자와 유학정신

예산은 충(忠)·효(孝)·예(藝)를 실행한 사례와 이를 뒷받침하는 선비정신과 학문 전통이 풍부한 고장이다. 예산 지역이 지닌 유교문화 유산은 유형 유교문화유산보다 무형 유교문화 자원이 더 풍부한 곳이다. 예산은 충효예 정신의 바탕이 되는 큰 유학자를 많이 배출한 고장이다. 충효예의 정신은 유학정신에 기초해 있다. 자연히 예산은 조선 중기부터 한국의 대표적인 유학자를 많이 배출한 고장이기도 하다.

우선, 중종 14년(1519) 11월에 일어난 기묘사화와 명종조에 일어난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고난을 겪은 인물들이 많다. 예산 지역 관련 대표적인 인물로 민회현(閔懷賢: 1472~1540), 자암(自庵) 김구(金球: 1488~1534), 이약수(李若水: 1486~1531), 절효(節孝; 시호) 성수종(成守琮: 1495~1533), 정존재(靜存齋) 이담(李湛: 1510~1575) 등이 있다.

조선 중기·후기에도 한국을 대표하는 많은 유학자들이 나왔다. 아계(鵝溪) 이산해(李山海: 1539~1609), 포저(浦渚) 조익(趙翼: 1579~1655),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 등이 있다. 이외에도 선석(仙石) 신계영(辛啓榮), 옥동(玉洞) 이윤(李淪), 동암(東巖) 박두세(朴斗世), 병계(屏溪) 윤봉구(尹鳳九), 석문(石門) 윤봉오(尹鳳五), 혜환재 이용휴(李用休), 정산(貞産) 이병휴(李秉休), 금대(錦帶) 이가환(李家煥), 목재(木齋) 이삼환(李森煥), 근제(謹濟) 성수묵(成遂默) 등 뛰어난 유학자를 배출했다. 이들은 학문이나 한 시대를 담당한 예산의 대표적인 유학자들이다.

특히 도산서원(道山書院), 덕잠서원, 회암서원에 제향하였던 인물이 주목된다. 도산서원에는 포저(浦渚) 조익(趙翼)과 야곡(冶谷) 조극선(趙克善: 1595~1658)을 배향하고 있다. 덕잠서원은 자암(自庵) 김구(金球: 1488~1534)를 제향하였다. 회암서원은 주자를 주벽으로 창건

후 1830년(순조 30)까지 4인을 추가 배향하였다. 1727년(영조 3)에 덕산 출신인 정존재(靜存齋) 이담(李湛: 1510~1575), 조극선을 제향하였고, 1800년(정조 27) 한산이씨 입향조인 취암(醉庵) 이흠(李洽: 1549~1608)을 추향하였다. 1830년에는 1583년에 대흥현감으로 재임했던 풍애(楓崖) 안민학(安敏學: 1542~1601)을 추향하였다.

예산지역 서원 제향인물

서원	제향인물	생애와 예산과의 관련성
도산서원	조익	우의정, 좌의정, 중추부영사 등을 역임, 이원익을 도와 대동법을 확대하고, 김육과 함께 대동법 확장, 시행함
	조극선	박지계와 조익의 문인, 1600년경 덕산현 입향. 1623년(인조 1)에 학행으로 추천되어 동몽교관·중부시주부·공조좌랑을 지내다가, 잠시 물러났다가, 익위사 사어(司禦)·호조정랑을 지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시폐(時弊)와 자강지책(自強之策)을 진언함. 온양군수를 지냄. 좌의정 조익의 추천으로 성균사업 등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다가, 1657년에 사헌부 지평·장령 등을 지냄. 효행과 학행으로 이름이 높았음.
덕암서원	김구	서울에서 출생, 부친 김계문(金季文)이 대흥 현감을 지냄. 1513년(중종 6) 문과에 급제, 홍문관 정자·이조정랑·사간·장악원정·홍문관 직제학·성균관 사성 등을 지낸 후, 사가독서를 하고 등부승지·좌승지·홍문관 부제학을 지냄. 조광조와 함께 사림파의 개혁정치에 적극 노력, 소격서(昭格署) 혁파에 앞장섬. 성리학으로 조광조·김식의 학문과 견줄만하다고 일컬어졌으며, 조광조·김정(金淨)과 더불어 '삼암(三庵)'으로 칭송되기도 함. 안처순(安處順)·민회현(閔懷賢)과 친교가 깊었음. 1519년 남곤·심정 등이 기묘사화를 일으키자 개령(開寧)에 유배되었다가 수개월 뒤 다시 남해로 이배됨. 13년간 섬에서 유배되었다가 임피(臨陂)로 이배되었고, 그 2년 뒤 해배되어 고향 예산으로 돌아옴. 그 동안 부모가 사망하였고, 그는 부모묘에서 시묘하며 애통해 하다가 1년만에 사망함. 예산의 덕암서원과 임피의 봉암서원에 배향.

회암서원	이담	1554년(명종 9)에 덕산현감으로 부임. 김굉필의 문인으로, 1538년(중종 33) 문과에 급제, 정언·수찬·지평을 거쳐 1544년에 사가독서 함. 1545년(명종 즉위) 을사사화 때 삭직되고, 1547년 양재역 벽서 사건에 연루되어, 양산(梁山)에 유배되었다가 1551년(명종 6)에 해배됨. 1567년 전한·응교·사간·승지·병조참의를 지냄. 성리학자로서 이황을 사숙했으며, 의약·천문·산수·궁술·서화에도 능했음.
	조극선	도산서원 참조
	이흠	한산이씨 덕산 입향조. 1582년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정언·헌납·장령 등을 지냄. 기축옥사가 일어나자 최영경(崔永慶)을 국문하였고, 세자책봉 문제로 정철 등과 함께 파직됨. 그 뒤 지방관을 거쳐 문학·장령·헌납 등을 지냄. 1602년 최영경 옥사건이 다시 거론되면서 관직을 삭탈당하고 옥구에 귀양을 갔다가 6년 후 1607년 해배되었다가 다음 해 사망.
	안민학	박순의 문인. 대흥현감으로 부임. 이이·정철·이지함·성혼·고경명 등과 교유. 1561년(명종 16) 20세에 학행으로 천거, 1580년(선조 13)에 이이의 추천으로 희릉참, 1583년에 사헌부감찰, 대흥·아산·현풍·태인 현감을 지냄. 전주에서 우거하다가 임진왜란 때 소모사로 활약함.

이처럼 예산은 한국의 선비를 상징하는 많은 선비를 대거 배출한 고장이며, 이러한 선비정신을 뒷받침하는 학문이 발달한 고장이다. 예산인들은 대대로 개인의 차원으로는 도의와 예의를 중시하고, 국가의 차원으로는 나라의 위태로움을 보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견위수명’(見危受命)하는 굳센 자주독립 정신을 발휘한 유교문화와 선비정신의 전통을 계승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예산은 충(忠)과 효(孝)와 예(藝)의 고장이라는 면모를 보여주었다. 예산 선비들이 보여준 충(忠)·효(孝)·예(藝)의 활동 상황을 살펴본다.

첫째, 예산의 충의지사와 충의정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산에는 충의(忠義) 인물이 많이 나온 고장이기도 하다. 예산은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나라를 구한 충(忠)과 효(孝)의 정신이 어느 곳보다 강한 고장이다. 백제 망국의 한을 떨쳐 일으킨 임존성의 백제부흥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예산은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 나라를 위해 인생을 바친 충신(忠臣)과 부모와 가정에 정성을 다한 효자(孝子)를 연이어 배출한 충효의 고장이다.

예산은 의리 정신의 고장이다. 예산인의 의리정신은 애국정신의 바탕이 되어, 구한말과 일제시기에 조국의 위기에서 자신의 목숨을 나라에 바치는 ‘견위수명’(見危授命), ‘견위치명’(見危致命)의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하여 나라 일에 앞장서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일에 매진하는 ‘진충보국’(盡忠報國), ‘보국안민’(輔國安民)의 행동으로 나가는 힘과 열의가 생긴다. 의로움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목숨도 바치는 선비의 올곧은 기개는 자신의 이익과 생명, 가정의 안위도 뒤에 두고 매운 애국애족의 정신을 발휘했다.

충의 정신은 스스로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숭고한 정신이다. 나라와 겨레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와 겨레를 위해 살신성인(殺身成仁)한 예산의 인물 가운데, 한말에 일제 침략에 맞서 의병을 일으킨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 1833~1906)과 수당(修堂) 이남규(李南圭: 1855~1907)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최익현은 예산 광시면 관음리에 묘(충남 기념물 제29호)가 있다. 최익현의 묘는 1907년에 충남 논산 노성 국도변에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묘를 찾아와 참배하자 일제는 1910년에 오지인 현재의 이곳으로 묘를 옮겼다. 최익현은 1905년 10월 을사늑약이 체결되어 조선이 사실상 식민지로 전락하자, 다음달에 <청토오적소(請討五賊疏)>를 올려 늑약 무효를 선언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박제순·이완용·이근택·이지용·권중현 등 오적(五賊)의 처단을 주장했다. 1906년에 최익현은

73세의 나이로 제자인 임병찬(林秉瓚: 1851~1916)과 함께 전라북도 태인에서 거병했다. 그해 6월 관군과 일본군의 공격으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고, 7월에 쓰시마(對馬島)로 유배되었다. 거기서 그는 단식으로 저항하다가 11월에 순국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이남규는 1882년에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요직을 두루 지냈다. 1905년 11월에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국망의 상황에서 <청토적소(請討賊疏)>를 올려 매국 도적 차단과 일제와 격전을 주장했다. 일제는 충남 지역의 항일운동을 방지하고자 1907년 9월 26일 이남규를 포박 압송하였다. 그날 이남규는 피살되어 순국했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예산을 대표하는 애국지사는 일우(一宇) 김한중(金漢鐘: 1883~1921)과 한국 독립운동사에 우뚝 솟은 매헌(梅軒) 윤봉길(尹奉吉: 1908~1932)이 있다. 일제 강점기에 대한광복회를 실질적으로 이끌면서 혁명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던 김한중 의사는 민중식이 충남 홍산(鴻山)에서 의병을 일으켜 1906년 5월 홍주성을 탈환하자, 부친인 김재정과 동참하였다.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자 김한중은 충청 지역에서 국권회복을 도모하여 동지를 규합하였으며, 1917년에 독립운동 비밀결사인 대한광복회에 가입하여 충청도지부장에 임명되었다. 이후 충청도 조직을 확대하고, 독립 군자금 모집과 악덕 지주 및 친일 관리 차단 등 애국독립 운동을 지속했다. 1918년 1월 28일 자택에서 체포되어, 1921년 38세의 나이로 대구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했다.

예산은 이들 외에도 일연(一然) 신현상(申鉉商, 일명 신현정(申鉉鼎): 1905~1950), 천도교령(天道敎領) 춘암(春庵) 박인호(朴寅浩: 1855~1940) 등 민족 독립을 위해 활동한 많은 독립투사들이 나왔다. 박인호에게 1990년 8월 15일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고, 현재 예산군 삼교읍

하포리에 박인호 선생 기념비가 있다.

이처럼 예산은 구한말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위정척사(衛正斥邪)에 바탕한 민족의식과 충군애국(忠君愛國)의 정신을 발휘하는 애국지사를 배출하였고, 일제 강점기에는 국가와 민족이 일제 침략을 당하자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충의 정신을 발휘했다.

둘째, 효행으로 이름난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충남은 전 지역에 많은 효자·효녀·열녀를 배출한 고장이지만, 예산 역시 어느 고장 못지않은 효자 효녀가 많이 나온 고장으로 효 문화가 생생하게 전해오는 고장이다. 예산에서 가장 유명한 효자 이야기는 이성만(李成萬) 형제의 효행이다. 예산 대흥면 동서리에 ‘벗단을 나르는 의좋은 형제’ 이야기로 유명한 이성만·이순 형제의 효세비(孝悌碑)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알고 있는 “의좋은 형제” 이야기는 충남 예산의 실존 인물 이야기이다. 예산 사람 이성만·이순 형제의 우애는 조선 세종 때 예산에서 대흥(大興) 호장(戶長)을 지낸 이성만과 그 아우 이순 형제가 나눈 형제애이다. 이성만과 이순 형제가 모두 지극한 효성으로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성만은 어머니 분묘를 지켰으며, 순 또한 아버지 분묘를 지켰다.²⁾ 이들은 3년의 복제를 마치고도 아침에는 형이 아우 집으로 찾아가고, 저녁에는 동생이 형의 집을 찾아갔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부모가 살아 계실 때에는 맛있는 음식으로 봉양하고, 한 가지 음식이 생겨도 서로 만나지 않으면 먹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조정에서는 연산군 3년(1497년), 가방교 옆에 정문을 세워 표창하고 자자손손에게 영원히 모범되게 하라는 173자를 기록했다.³⁾ 의좋은 형제 이야기는 우화로 전해 오다가 1956년~2000년도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어 50여 년간 좋은 형제애와 가족애

2)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0, 大興縣條.

3) 이성만 형제 효자비, 충남도지정 유형문화재 제102호, 예산군 대흥면 동서리.

의 표상으로 널리 알려졌다. 2002년에는 대흥동헌 앞에 의좋은 형제상을 건립하였고, 2004년에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전 국민이 방문하는 명소가 되었다.

이외에도 예산에는 효행으로 이름난 선비들이 많았는데, 효렴(孝廉)한 사람으로 인정되어 관직에 등용되고 승진한 대표적인 인물은 민회현이다. 조정에서 효행이 있고 청렴한 사람으로 천거되어 관직에 나아갔다. 당시에 조광조(趙光祖)가 1519년에 현량과를 실시하면서, 전국에서 천거된 120인 가운데서 28인을 등용하였다. 민회현은 다시 47세의 나이로 병과에 급제하여 정언(正言)에 임명되었다. 기묘사화(1519)가 일어나자 과거 급제가 취소되어 직첩과 홍패를 회수당하고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 예산 신암으로 돌아와 20년을 지냈다.

김구는 기묘사화로 15년간 귀양살이를 하다가 해배되어 고향 예산으로 돌아온 후 이미 사망한 부모 묘에서 시묘하며 애통해하다가 1년 만에 사망했다. 성수중은 세칭 ‘절효선생(節孝先生)’이다. 성수침(成守琛)의 아우이며, 조광조의 문인으로 조선 중종 때의 유일(遺逸)이었다. 1519년(중종 14)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나 이해에 기묘사화가 일어나 조광조의 문인이라고 지목되어 과거급제 명단에서 삭제되었다. 이후 낙향하였다. 기묘명인(己卯名人)으로 추대되었으며 효행으로 이름이 높았다. 창녕의 물계서원과 파주의 파산서원에 제향되었다. 예산에 그의 후손이 많이 살고 있다.

그 외에도 예산의 이름난 효자로는 강만채·강만구 형제, 김방언·김치화 부자, 김창조, 이규, 이성만·이순 형제, 이우영, 이후직, 인영원 부부, 전근금, 정확수, 정해열, 조극선, 차명중·차경중 형제, 최승립, 최필현 등 수많은 효자가 나왔다. 다음 표는 그 효행 내용을 대략 정리한 것이다.

예산의 이름난 효자들

	효자 이름	관련 장소	유적	효 내용
1	이성만, 이순 형제	대흥면 동서리	형제상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깊음
2	강만채, 강만구 형제	신암면 용궁리	효자 정문	강씨 형제는 병이 든 어머니를 위해 손가락을 잘라 피를 입에 넣어 드렸으며, 몸에 난 종기를 입으로 빨아서 고름을 빼드렸다. 또한 병이 드신 어머니의 변을 맛보아 상태를 알아보고 약을 지었다고 함
3	인영원 부부	덕산면 낙상리	쌍효각 (雙孝閣)	효성이 지극하여 송정대부 판돈녕부사에 추증되었다. 부인 성주배씨(星州裴氏)도 효성이 지극하여 정경부인(貞敬夫人)에 증직됨
4	전근금	광시면 미곡리	효자 정문	고려가 망하자 은거한 선비의 후손으로, 어머니의 병이 나자 손가락을 베어 피를 어머니 입에 넣어드림
5	정해열	고덕면 상몽리	효자 정문	어머니가 병이 나서 잉어와 미나리를 드시고 싶어 하자 추운 겨울에 얼음을 깨고 미나리를 캐고 잉어를 구하여 어머니에게 봉양함. 친척과 이웃들의 어려움을 구제하고 화목하게 지냄
6	조극선	봉산면 시동리	효자 정문	1648년(인조 26) 온양군수를 지냄. 효종 때 장령을 지냈으며 효행으로 이조참의에 추증됨. 묘와 신도비, 효자문, 어제각(御製閣)이 있고 어제각 안에 친필어제가 있음
7	차명증, 차경증 형제	신암면 서계양리	효자 정문	차명증은 어머니가 병이 들자 세 번이나 손가락을 베어 피를 어머니 입에 넣어 드림. 아버지가 병이 들자 또 그렇게 하여 양쪽 손가락이 모두 온전하지 못했다고 함. 아우 차경증도 그렇게 함. 시묘할 때, 산소 곁에 샘물이 솟아올라 이 우물을 효자천이라고 부름

8	김방언, 김치화 부자	광시면 신흥리	양세정려 문	김방언은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 자 자신의 허벅다리를 베어 약에 섞어 달여 들렀고, 손가락을 깨물 어 피를 입에 넣어 드림. 그의 아 들 김치화도 부친상을 당하자 3년 시묘함
9	최승립	광시면 노전리	효자 정문	부모가 병이 들자 추운 겨울날 뱀 을 잡아 어머니에게 드시게 하고 잉어를 잡아 아버지에게 드시게 함 (청양군 대치면 농소리로 이전)
10	정학수	신양면 시왕리	효자 정문	고종 대에 대사헌까지 지냈으며, 부모를 정성으로 모시고, 친지와 화목하게 지냄. 아버지가 병이 들 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입에 넣어 드림
11	김창조	고덕면 몽곡리	효자 정문	아버지가 병이 들자 효를 다하여 병 상태를 알기 위해 아버지의 변 맛을 보기도 하고, 자신의 손가락 을 잘라서 그 피를 입에 넣어 드림
12	최필현 최순홍	신양면 서계양 리	효자 정문	어머니가 위독하자 자신의 손가락 을 베어 어머니 입에 피를 넣어 드 림
				최필현의 조카, 병이 들자 모친의 변 맛을 보아 간호함
13	이규	고덕면 사리	효자 정문	어머니가 병들자 손가락을 잘라 피 를 입에 넣어 드렸으며, 결국 왼쪽 팔을 제대로 못쓰고 다리를 절게 됨
14	이우영	고덕면 상장리	효자 정문	아버지가 위독하자 손가락을 베어 부친의 입에 넣어 드림
15	이우직	봉산면 봉림리	효자 정문	어머니가 병이 나자 어머니의 대변 맛을 보고 의원에게 상의하여 가물 치와 더덕을 구하려고 추운 겨울에 가물치와 더덕을 구하여 드림

이처럼 예산은 타 지역에 비해 많은 효자 전통이 있다. 2016년 현재 예산군은 위와 같은 효행 전통을 계승하여 <효실천 현장>을 만들어 효행을 장려하고 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효실천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예산군은 예로부터 예절을 제일의 덕목으로 삼아왔다. 이러한 예절의 근본은 아버지와 웃어른을 잘 섬기는 효(孝)에서 시작된다. 효는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근본이며,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 힘이 되고,

또한 국가 발전과 세계평화를 이루는 원동력이 된다.

이에 우리 선조들이 쌓아 온 빛나는 효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나는 모든 행실의 근본이 되는 효의 실천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1. 나는 마음과 몸을 바르고 깨끗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린다.
2.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뜻을 받들어 정성껏 실천해 나간다.
3. 나는 지극한 사랑과 정성으로 아버지를 편안하게 모신다.
4. 나는 형제자매와 일가 친척 간에 화목하게 지낸다.
5. 나는 웃어른을 공경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간다.
6. 나는 아버지 섬기는 마음으로 가족사랑, 이웃사랑, 나라사랑, 인류사랑에 앞장선다.

셋째, 예향(藝鄕)의 전통으로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산은 유학의 전통 속에서 학문뿐 아니라, 예향으로도 이름난 고장이다. 예향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산은 자암 김구의 인수체(仁壽體)와 추사 김정희의 추사체(秋史體) 등 예술의 높은 경지에 오른 글씨가 창출되었고, 그 전통을 이어받아 예산은 문향(文鄕)과 묵향(墨鄕)의 고장이기도 하다.

조선 전기의 명필 김구는 안평대군(安平大君)·양사언(楊士彦)·한호(韓濩)와 함께 조선 전기 4대 명필가, 혹은 조선 8대 명필로 꼽힌다. 그가 생전에 한양 인수방(仁壽坊)에 살았으므로 그의 서체를 인수체(仁壽體)라 불렀다. 조선시대 명필 중에서도 으뜸가는 서예가로 꼽히는 김정희는 독창적인 서체인 추사체(秋史體)를 창안하여 해서체뿐 아니라 행서체 예서체에서도 독창성이 두드러지는 새로운 경지를 이루었다. 김정희는 글씨는 물론이고 고증학(考證學)과 그림과 시와 산문 등 시·서·화·문인 취미를 계승한 학예가로서 최고의 경지를 보여주었다. 금석학(金石學) 연구와 전각(篆刻) 또한 당시 조선에서는 최고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예산은 이러한 선비의 학문과 정신으로 정신문화가 발달한 곳으로, 오늘날에도 이러한 전통문화와 정신이 면면히 흐르고 있다.

3. 서원의 현대적 활용방안

1) 유교문화 활용의 전제

모든 문화의 생명력은 사람들이 그 문화를 향유할 때 유지된다. 그러나 오늘날 유교문화는 이러한 측면에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유교문화는 아직 우리 삶에 깊숙하게 자리잡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대중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유교문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중화하기 어려운 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현대적으로 재활용하기 어려운 성격과 여건을 지니고 있다. 유교문화 자체가 현대사회에 부합하기 어려운 속성이 있다.

유교는 농업사회를 유지하는 사회질서 유지와 오랜 자기 절제의 수양 공부가 필요한 것으로서 전통적으로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유교정신과 문화를 계승하는 구심점이었던 성균관이나 향교, 서원 등은 제사 기능만 남아 있고 유립 조직인 유도회는 노령화하여 유교 대중화에 효율적이지 못하였다. 경제적 토대와 인생 가치관의 변화, 핵가족화, 친족 및 문중 조직의 약화, 유교 교육기관의 부재, 제사 기능의 약화 등 전반적인 사회 변화는 유교문화가 점차 대중들의 삶 속에서 멀어져 재생산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간이 흐를수록 유교문화 유무형의 유산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오늘날의 유교문화는 최근 급속하게 화석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세월의 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예의 · 신의 · 효친 · 경로정신 등 여전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교의 풍속문화는 여전히 일상생활의 행위의례와 윤리관의 바탕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변화하는 사회제도 및 환경 속에서 유교 전통문화의 유익한 활용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유교의 가치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사회 여건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유교문화자원의 현황과 개발의 현황은 문화유적과 지역 인물 선양, 건축물 복원과 정비 등 많은 노력이 이어졌다. 이러한 건물과 지식 개발은 유교문화 유산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제는 유교문화 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오늘날의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

유교문화 활용을 통한 유교문화의 현대화는 일반대중이 그 문화를 체험하고 실용화한다는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 점차 소멸되거나 박제화되어 가는 유교문화재와 가치를 오늘날 일반인들의 삶 속에 다시 소생시키고 쓸모 있는 재생산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현대적 활용방안은 무엇보다 일반인이 유교문화를 현대생활 속에서도 유용

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제공하는 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원이라는 전통유교문화 자원의 현대적 활용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서원의 의의와 활용

오늘날 서원을 활용하자면 현대적으로 계승할 서원의 가치를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서원 공간 개발은 서원의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근래에 다시 개발하는 서원들은 수양하는 정숙하고 차분한 서원 공간으로 재개발하면서 지역민들의 문화 활동과 여가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다.

경북 영주의 소수서원, 안동의 병산서원 등은 서원의 옛 모습 그대로 보존하여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서원이다. 최근 10여 년간 재개발한 전남 장성의 필암서원과 충남 서천의 문헌서원 등은 현대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재개발한 예이다. 이 서원들은 기존의 서원 공간을 확장하면서, 필암서원은 강학과 전시 공간을 추가하고, 문헌서원은 서원 주변을 재단장하고 한옥체험 공간을 추가하여 개발했다.

서원은 서원으로서의 문화사적 가치를 살려야 할 것이다. 서원은 조선시대 선비를 길러낸 교육기관으로서, 선비와 관련한 정신문화자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현대인의 삶의 감각과 태도에 맞게 활용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인문정신과 학문의 기품을 지닌 서원이 제 위상을 찾고 적절히 활용된다면 지역민의 자긍심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한 구체적인 활동 방안으로 서원의 정신적 가치를 문화콘텐츠화하고 실용적 활용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우선, 예산 지역 제향 인물을 통하여 기릴 수 있는 정신을 계승하는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법이다. 서원의 건립 목적은 선현 봉사와 후학 양성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위한 것이었다. 서원은 학교로서 공부하는 교육 공간과 제사를 지내는 숭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기능을 위해 강당(講堂)을 짓고 숭현 기능을 위해 사묘(祠廟)를 지어 학문과 절의에 모범이 되는 선현(先賢)의 위판을 모신다. 평소에는 서원 생도들이 강당에서 공부하고, 삭망(朔望; 매달 초하루와 보름), 그리고 봄가을 두 차례 유생들이 모여 사당에서 제사를 지냈다. 서원은 조선 중기부터 세워지기 시작하였고, 임진·병자 양란 이후 16세기에 발달한 성리학을 바탕으로 예학이 체계적으로 성립되었으며, 17세기부터 전국적으로 서원 설립이 확산되었다. 이후 우리나라의 서원 건립 논의는 대체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선현을 봉사하기 위해 건립한다는 의미가 중시되었다. 우리나라의 서원 건립은 선현 봉사의 역할이 더욱 중시되었다. 제향 인물에 따라 그 서원의 성격과 위상을 대변하였다. 그러기에 서원은 대개 여러 분을 모시며,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그들의 제사이거나 후손들이다.

서원은 외적인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사당에 어떤 분이 모셔져 있는가에 따라 그 위상이 결정된다. 우리나라 서원은 중국의 서원에 비해 후학 양성 보다는 선현 봉사의 성격이 더욱 중시되었다. 모범이 되는 선현에 대한 제향을 중시하는 이유는 서원은 사족들이 지방사회를 교화(敎化)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서원에서 누구를 모시고 주향과 배향을 누구로 하는가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서원이 지니고 있는 인문적 가치의 대표적 특징은 제향인물이다. 제향인물을 통하여 선비 정신과 삶을 부각시킬 수 있다. 예산 지역 서원 제향 인물의 인문적 가치는 절의와 효행으로 집약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예산지역 서원의

국가사회적 기여는 절의에 기반한 선비정신과 효에 기반한 노소(老少)연계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한편, 예산 지역 서원 환경은 이미 훼손된 지 오래되어 서원 주변 경관이 다른 서원에 비해 역사성이나 경관 면에서 빼어나지도 않다. 따라서 서원 개발은 서원의 현대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재창출이 효과적인 개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예산 지역 서원의 개발과 활용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타시도의 서원 활용을 참고하면서 문화 측면의 창의적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서원의 교육문화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서원의 활용을 위한 공간 창출은 교육공간·문화공간·문화체험공간·휴식공간 등 여러 기능을 고려하여 영역을 안배하고 개발해야 한다. 아울러 서원과 근거리에 현대식 강의시설과 문화공간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3) 타 지역 서원 활용 현황

향후 서원을 복원한다면 그 활용은 교육관 및 수련원, 혹은 예절관으로 활용 가능한 시설로 설계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예를 타시도의 활용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문화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곳으로는 서천의 문헌서원 한옥마을, 안동의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영주의 소수서원 선비촌, 전주의 전통문화연수원, 강진의 다산 교육관 및 수련원, 안산의 행복예절관 등을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기관명	운영 현황
① 서천 문헌서원	○ 연혁 ◦ 1969년 현재 위치(기산면 영모리)로 이건 ◦ 정부와 서천군의 전통역사마을 조성사업(2007년부터) ◦ 문헌서원 일대 1만9847㎡ 부지에 5년간 재정비 사업(2013년) ○ 문헌서원 한옥마을 문화프로그램 운영 현황 ◦ 지역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 하우스 콘서트, 내 인생의 멘토, 충효예교실, 문헌서원기행, 고전특강,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 한옥체험관 운영: 프로그램 미숙 및 수익성 악화로 2014년 위탁자 변경. 한옥 민박 사업은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어려움
② 안동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 연혁 ◦ 도산서원 부설 선비문화수련원 개설(2001) ◦ 본원 부설 전통예절교육원 개설(대구, 2005) ◦ 경상북도 공무원 연수기관으로 지정(2006) ◦ 전국단위 특수분야 수련기관 승인(경상북도 교육연수원)(2013) ◦ 지식·인력 개발사업 평생교육시설 승인(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2015) ○ 연간 선비문화 체험 수련생 10만 명 이상 수료(2018년 현재 수련생 누계 5,599기 632,013명) ○ 설립 목표 ◦ 안동지역에 형성된 선비 문화 유적 탐방을 통한 선비정신, 선비문화의 다양한 모습과 정신을 이해하는 선비문화를 체험하게 하여 올바른 사회 윤리를 배우고 실천 주체 양성 ◦ 선비문화 교육에 필요한 강의 체험시설, 숙박시설을 갖추고 학생, 공무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당일, 1박2일, 2박3일 등) 운영 ○ 교육 대상: 초·중·고 학교현장 맞춤형 교육, 대학생 교육, 직장인 교육 ○ 수련마당 운영프로그램 ◦ 도산서원, 퇴계종택, 퇴계묘소, 이육사문학관 등을 탐방, 옛 선비들의 체력단련과 마음 공부의 방법, 예절 생활 등 선비정신의 경건함이 깃든 일상생활을 체험 ◦ 학교와 연계하여 초·중·고, 대학, 성인을 대상으로 한 유교문화와 선비정신을 가르치는 상설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도산서원 탐방, 퇴계 종손과의 대화, 도산서원 의례 체험 ○ 시설 ◦ 숙박시설: 숙야재(실 20개, 80명 수용), 제2숙박동(예산 80억원)

	○ 교육시설: 강습실(강의실), 육예실(다목적 체험실), 가회실(분임토의실) ○ 야외 시설: 퇴계 명상길, 퇴계 종택, 퇴계기념공원, 이육사문학관, 유교문화박물관 ○ 선비문화수련원 시설 확충 등 선비 문화의 종합적인 체험 공간으로 '퇴계 문화공원' 정비								
③ 영주 소수서원 선비촌	○ 운영 현황 ○ 2004년 개장: 영주 선비들이 실제로 살았던 생활공간을 그대로 복원하여 전체적으로 마을 공동체 형태로 구성하여 옛 영주 선비들의 생활 모습을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 체험형 숙박시설 ○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의도로 관 주도로 설립, 문화체험에 적합한 기반시설과 체험프로그램 보유 ○ 소수서원을 중심으로 소수박물관(전시관람), 선비촌(숙박체험), 선비문화수련원(교육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선비문화체험의 질을 높이고 있음 ○ 운영프로그램: 유복 입고 배례법, 혼례·제례, 우리 가락, 국궁, 태권, 승마, 서예, 사군자, 논어, 활인심방·계촌법 등 주제별로 선비문화와 관련한 교육과 전통문화 체험 <선비촌 체험프로그램> <table border="1"> <thead> <tr> <th>체험 분야</th><th>세부 내용</th></tr> </thead> <tbody> <tr> <td>교육 프로그램</td><td>인성교육, 서당체험, 전통예절, 다도예절</td></tr> <tr> <td>전통 문화 체험</td><td>한지공예, 천연염색, 짚풀공예, 매듭공예, 목공예, 도자기공예, 전통혼례체험, 소달구지체험,</td></tr> <tr> <td>민속 놀이 체험</td><td>전통음식체험 두부 만들기, 인삼한과 만들기, 인절미 만들기, 순흥 묵밥 만들기</td></tr> </tbody> </table> ○ 시민의 문화행사장소 뿐만 아니라 사극드라마의 배경으로 쓰이는 등 다양하게 활용됨으로서 지역민의 문화 향수의 기반이 되고 있음	체험 분야	세부 내용	교육 프로그램	인성교육, 서당체험, 전통예절, 다도예절	전통 문화 체험	한지공예, 천연염색, 짚풀공예, 매듭공예, 목공예, 도자기공예, 전통혼례체험, 소달구지체험,	민속 놀이 체험	전통음식체험 두부 만들기, 인삼한과 만들기, 인절미 만들기, 순흥 묵밥 만들기
체험 분야	세부 내용								
교육 프로그램	인성교육, 서당체험, 전통예절, 다도예절								
전통 문화 체험	한지공예, 천연염색, 짚풀공예, 매듭공예, 목공예, 도자기공예, 전통혼례체험, 소달구지체험,								
민속 놀이 체험	전통음식체험 두부 만들기, 인삼한과 만들기, 인절미 만들기, 순흥 묵밥 만들기								

④ 전주 전통문화연수원	○ 전통문화연수프로그램 운영: 년 1만 명 정도 이용 ◦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 연수: 48회/1,484명, -가장 한국적인 교육: 45강/960명, -시설대관 및 대회: 28회/12,200명 ○ 시설: 동헌(풍락헌): 정면 6~7칸, 측면 3~4칸, 건물 면적: 132㎡~165㎡ (40~50평) -독립운동가 장현식 선생 고택(안채), 임실 진참봉 고택(사랑채), 정읍고택(별채) ○ 연수 프로그램: 가장 한국적인 연수, 가장 한국적인 교육, 가장 한국적인 출판, 선비문화 三學三禮 체험 ○ 1년 예산, 인적 구성 및 인건비: 4억원, 직원 5명(부원장, 직원 4명: 인건비 2억), 전주시평생학습센터장이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원장 겸직
⑤ 강진 다산 교육관 및 수련원	○ 설립 목적: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정신과 실용주의 사상 및 정신을 바탕으로 청소년과 공직자·기업체·사회단체의 교육·연수·수련의 장을 제공하여 실사구시 정신을 배우고 익힘 ○ 운영 목표: 남도답사 1번지 청자골 강진은 다산 선생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각종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참가자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이바지함 ○ 시설 현황(개관일; 2005.10.17.) ◦ 위치: 전남 강진군 도암면 ◦ 규모: 부지 9.669㎡, 건축면적 2.985㎡, 지하1층, 지상3층 ◦ 주요 시설: 생활관 30실 (각 실에 150~200명 이용 가능) - 식당 1동 (100명 이용), 강의실 1실 (60~80명 이용) - 교육실 1실(20~30명 이용), 교육동 1동(200명 이용) - 체험교육실 1실 (다도체험, 다산 제자체험 등) ○ 운영프로그램: ◦ 다산체험프로그램 ◦ 청소년리더쉽프로그램 ◦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 문화생태 탐방로
⑥ 안산 행복예절관	○ 안산시 예절교육사업 ◦ 시청 예절교육담당 부서: 문화예술과, 여성가족과(다문화과정), 평생교육과 교육지원계 ○ 안산시 초중고 학교예절교육지원 현황 1년간 예절 프로그램 운영비 총 33억원(총 120개교) - 유치원(40개/ 50%), 초(54), 중(29), 고(24) 등 ○ 예절교육 지원 근거: 지자체 교육발전지원조례 교육경비보조사업 ○ 지원 결정: 시장(市長) 방침⇒지원계획 수립⇒시장 결재⇒심의 위원(시 교육발전위원회) ○ 안산시 행복예절관 개요 ◦ 설립 목적: 전통문화 체험의 장. 시민휴식·문화공간 제공,

	다문화가족 교류 사회적응 지원 ○ 운영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위주: 전통한복, 의례복 입어보기, 부채만들기, 다식만들기, 세시음식만들기, 전통놀이 등 ○ 시설: 예절교육관(시장관사 개조), 한옥 채(30명 수용) 행복동: 1층 안방문화실·전시실, 2층 선비문화실 예절동: 1층 예절실, 예문화실, 행복실, 사무실, 2층 다도실 ○ 안산시 행복예절관 운영 방식 ○ 운영 방식: 위탁, ○ 지원 단체: 안산시청 ○ 협조단체: 안산시 교육청, 안산시 청소년활동진흥원, 안산시 다문화센터 ○ 업무협약: 가족프로그램 운영 안산시 법원(이혼조정대상자), 청소년보호관찰소(비행 청소년) ○ 교육 연인원: 2만 6천명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시 소재 초중고(총 120개교 중) 선정 매년 예절교육비로 1교당 500만원 지원 대학생부, 일반부, 교원직무연수, 타시도 교육생 예절지도사 양성 교육(찾아가는 예절지도사) ○ 대외 협약: 성균관, 한국전례원 ○ 여성 일자리 창출(1시간당 25,000원), 어머니 재능기부 ○ 운영 인력: 관장-1명(무보수 봉사직), 행정 직원-3명, 강사-2명(계약직 시수당 급여), 용역-2명(청소, 시설관리) ○ 1년 예산: 2억 6천만원(인건비 2억원, 프로그램 운영비 6천만원) ○ 교육비: 무료
--	--

위와 같이 비교적 활발하게 지역문화 활동을 하는 서원이나 유교문화 관련 시설은 해당 지역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전국의 서원·유교문화 시설에서 운영하는 유교문화 관련 문화프로그램 운영 사례 가운데, 안동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과 전주 전통문화연수원이 특히 주목된다. 안동의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은 경북도청과 안동시청, 전주의 전통문화연수원은 전주시청에서 꾸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안동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은 ‘찾아가는 학교수련’, ‘수련원 입교수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매년 선비문화 체험 수련생이 10만 명 이상이 수료(2018년 현재 수련생 누계 5,599기 632,013명)하는 전국적 연수기관으로 발전하였다. 전주 전통문화연수원은 지역학과 전통문화에 기반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주 전통문화연수원이 운영한 2013년 이후 문화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전주 전통문화연수원 문화프로그램 운영

연도	주제	내용	기간(횟수)
2018	동헌학당(상반기) ‘격량의 시대, 왜 중용(中庸)인가?’	한국정신의 토대인 사서(四書)를 통해 옛 선조들의 삶과 정신을 이해하는 시간	1차: 2018. 3. ~2018. 5. 매주 수요일 (총 10강) 2차: 2018.9. ~2018.11. 매주 수요일 (총 10강)
	한국을 만나다(상반기) ‘한국의 풍류, 멋을 만나다!’		1차: 2018. 4. ~2018. 5. 매주 화요일 (총 8강) 2차: 2018. 9. ~2018. 11. 매주 화요일 (총 10강)
2017	동헌학당: 주역[周易]-하늘을 알고 땅을 알고 나를 보다	매주 화요일마다 총 12회 강의	2017. 4. ~2017. 6. 매주 화요일 (총 12회)

	한국을 만나다: 일송(一松) 장현식고택 에서 독립운동을 말하다	일제강점기 독립을 향한 선열들의 헌신과 노력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 는 시간	2017. 5. ~2017. 6. 매주 화요일
	동헌학당: 문학으로 대학을 읽다		2017. 11. ~2017. 12 매주 수요일 (총 6회)
	한국을 만나다: 전리몽, 새로운 전주학	전주의 역사·문화를 공부하고, 전주인이 지 향해야 할 바를 함께 연 구해보는 자리	2017. 11 ~2017. 12. 매주 화요일
2016	동헌학당: 간찰(簡札), 옛 선비의 마음을 엿보다	전주시에서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옛 선조의 삶 의 이력과 사상의 가치 를 이해하는 특강	2016. 3. ~2016. 5. 매주 수요일
	아침의 나라, 조선을 탐하다	전주시에서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조선의 역사 전반에 걸쳐 각 분야별 핵심적인 인물에 대한 인문학 특강	2016. 3. ~2016. 5. 매주 수요일
	동헌에서 고전읽기 V: 유학도설-철학, 그림으로 풀다	『대학』 ~ 『맹자』 까 지 사서의 주요 핵심주 제들로 강의 마련	2016. 9 ~2016. 11. 매주 수요일
	동헌학당(하반기): 동의보감- 인문학의 맥을 짚다	인문학적 관점의 고전 서적과 철학적 가치, 실 생활에 적용 가능한 한 방치료 등 주제들로 강 의	2016. 11. ~2016. 12. 매주 목요일

2015	동헌학당: '격몽(擊蒙)'	율곡 '격몽요결' · '추구'를 기본 교재로 선현들의 자경문(自警文)과 시, 편지, 여행기, 논저 등을 성독 시간	2015. 5. ~2015. 10. 매주 목요일
	두 마음이 하나 되는 '전통태교교실'	조선시대 태교 지침서였던 '태교신기(胎敎新記)'를 바탕으로 전통태교교실 운영	2015. 9. ~2015. 10. 매주 수요일
	상우(尙友): 옛 사람에게 말을 걸다	같은 시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던 선현들이 남긴 문헌과 사상의 가치를 비교 이해 특강	2015. 9. ~2015. 11. 매주 수요일
2014	동헌에서 고전읽기 IV: - 중용	'중용'을 주제로 현대인들에게 삶의 방향을 찾는 방법 제시	2014. 04. ~2014. 07. 매주 목요일
	한국의 역사를 만나다Ⅱ: - 조선왕실 여인열전	조선시대 왕실과 궁궐 속 왕실 여인들과 관련하여 시대 배경과 흐름을 연계한 특강	2014. 05 ~2014. 07 매주 수요일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학 대강연: 문·사·풍류를 취하다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협약을 통해 전주시민 대상 한국 인문학 대강연 개최	2014. 09. ~2014. 12. 매주 목요일
	고전 따라읽기 III: - 제자백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과의 협약을 통해 2012년부터 전주시민 대상 '고전따라읽기'	2014. 10. ~2014. 12. 매주 수요일
2013	동헌에서 고전읽기Ⅲ	- 노자에게 길을 묻다	2013. 3. ~2013. 6. 매주 목요일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안동의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과 전주의 전통문화연수원은 이외에도 현재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문화시설을 활용하고 문화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 서원의 문헌서원 한옥마을, 영주의 소수서원 선비촌, 전주의 전통문화연수원, 강진의 다산 교육관 및 수련원, 안산의 행복예절관 역시 해당 지역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원을 활용한 사업은 어느 곳이든 지자체의 적극적인 시설투자 및 사업 계획과 실질적인 지원이 수행되어야 서원(연수원·예절관 등) 건립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5. 맺는말 - 서원 활용을 위한 제언

현재 전국적으로 인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지자체마다 저마다 다양한 형태로 인문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원의 개발 활용은 이와 관련하여 현대인이 요구하는 다양한 유/무형 문화자산 개발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서원 개발·활용은 지역민의 문화체험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 문화사랑방 등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지속적인 문화 사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예산지역 서원의 개발 활용은 특히 절의 정신과 효 정신을 계승하는 민족문화 계승을 기반으로, 현대 교육/문화 공간을 재창출하여 활발한 시민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인문정신의 가치를 공감하며, 지역민들에게 즐거움과 휴식을 공유하는 문화체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지녀야 한다. 서원 활성화의 토대는 인문교육으로서, 인문학과 인성, 예문화교육, 역사, 한문, 경전교육, 고전 다시배우기, 다도교육, 한시 작법 등 전통 인문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예절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예절교육 특화, 예절지도사 양성) 운영이다. 또한 하이브리드 인문교육으로서, 평생학습사회라는 목표 하에 서원 본래의 교육 이상이었던 ‘인간과 자연의 조화’, ‘소통과 화합’,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현대인의 감각과 요구에 맞춰 변형된 형태의 하이브리드 인문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새로운 방안이 될 것이다. 행복학교(상담교사 생활지도교사 연수, 교사행복연수), 토요역사학교(중학생·일반인 대상, 교수·교사 재능기부)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오늘날 장수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층을 대상으로 웰에이징 교육 활성화도 주요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적절한 웰에이징 인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인생 3모작에 대한 가치와 사고를 고취시킬 수 있다. 또한 예산의 효 정신을 현대화하여 학교와 서원을 연계하는 많은 노소(老少)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노인과 청소년을 1:1로 맺어주거나, 혹은 지역 노인 다수와 그 지역 청소년 다수를 하나로 묶어 정기적인 만남을 도모하여 동아리화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오늘날 핵가족화 현상과 주부들의 취업 등 사회활동이 늘어가는 가운데 가정 교육 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 변동은 가정과 지역의 공동의식을 심리적·공간적으로 해체해 가고 있다. 예전에 가정과 동네(지역)가 담당했던 노인 봉양이나 청소년 교육 기능도 약화되었다. 가정과 학교가 다 하지 못하는 청소년·노인 복지 영역을 서원이라는 민간 조직을 통하여 지역 사회가 내실 있게 실행한다면 그 실용적 역할이 더욱 환영받을 만한 일이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문화 사업을 시행하자면 유교문화 개발에 있어서 하드웨어적인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소프트웨어적인 활용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더욱 긴밀한 민-교육계-관-학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 사회봉사와 체험교육 형태의 문화

프로그램을 시행하려면 학교(제도)교육과 차별화되는 것이어야 한다. 지역사회는 학교에서 하고 싶어도 인력 및 시설 때문에 하기 어려운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제도적 교과과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육조직-운영 조직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민(民)-교육계(敎)-관(官)-학(學)의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문화 거버넌스를 조직해야 한다.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 민·관·학이 공동 협력 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현대사회는 과거의 관료제적 행정으로는 원활한 협력 체계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은 민-교육계-관-학이 협력하는 신공공주의, 즉 거버넌스의 마인드가 필요한 시대이다. 무엇보다 지역민 또는 서원문화 체험 소비층이 주인이 되어 서원 문화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 가는 협력이 중요하다.

이상과 같이 예산 지역 서원의 현대적 활용방안을 지역민 문화 공유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예산은 민·관·교·학의 거버넌스 활동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사회체제를 만들어 유교문화의 현대적인 활용을 도모한다면 타시도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이흥재·이해준 외, 『우리 민족문화창달을 위한 향교와 서원기능의 현대적 활용방안』, 문화정책개발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2.
- 유승무, 「유교문화재 활용을 통한 유교문화 체험의 대중화방안」,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2003.
- 김문준, 「충남 유교정신의 현대적 활용방안-교육 및 정신문화를 중심으로-」, 2003
- 박병권, 「현대적 '儒林'의 재건과 書院의 활용」, 『담수회논집』, 담수회, 2005.
- 국민대한국학연구소, 『유교문화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09.
- 이해준, 「유교문화 자원화를 위한 연구방법론」, 『충청학과 충청문화』 9권,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09.
- 서원연합회, 『서원스태이 사업(6개 서원)』, 문화체육관광부, 2009.
- 이해준, 「수는 강향과 내산서원의 문화콘텐츠 활용」, 도서문화,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2010.
- 이해준, 「한국 서원 유형·무형유산의 특징」, 『한국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국가브랜드위원회, 2011.
- 이해준, 「서원스태이의 과제와 바람직한 운영전망」, 『2011 서원연합회 발제문』, 서원연합회, 2011.
- 이코모스, 『한국 서원의 국가브랜드화 방안 및 지속가능한 활용방안』, 국가브랜드위원회, 2011.
- 조동원, 「서원의 역사적 의의와 현대적 계승」, 세미나 발표, 2011.
- 임준성, 「고봉 기대승의 유물유적과 월봉서원의 문화콘텐츠 활용」,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충남대학교 유학연구, 2012.

- 이해준, 「서원문화 원형콘텐츠발굴과 특화방안」, 전남문화원연합회, 2013.
- 이해준, 「서원별 교육, 홍보 자료의 편찬방향」, 『한국서원학보』 2, 한국서원학회, 2013.
- 정옥자, 「유교문화국가 조선의 서원-그 현대적 의미와 활용」, 돈암서원학술대회, 2014.
- 건양대학교 예학교육연구원, 「돈암서원 활용계획」, 2014.

「서원의 현대적 가용성과 예산학」에 대한 토론문

김양식(충북연구원 수석연구원)

‘서원의 현대적 가용성과 예산학’에 관한 김문준 교수님의 발표 내용은 모두 타당하며, 특별히 이의는 없다. 다만, 서원의 현대적 활용 방안과 실제적 적용에 있어서는 세심한 사전 준비와 접근 전략이 요구되는 만큼 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첨언하는 동시에, 예산학 관점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 서원 활용방향

- 서원의 현대적 가치와 복원 필요성은 이미 발표를 통해 충분히 공감되는 만큼, 서원 복원 사업은 충분히 타당하다. 문제는 복원을 위한 복원인 경우 소프트웨어 없는 하드웨어가 되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복원 전에 충분한 활용 방안을 구축해야만 한다.
- 서원 복원 이후 활용 방향과 전략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① 서원의 본원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현대적 활용

② 유학(성리학)의 현대적 가치 계승

- * 유학의 수양론을 현대 명상론과 결합을 통한 서원 선비명상 프로그램 개발
- * 성리학의 심학을 기초로 한 마음공부 서원프로그램 개발

③ 성리학의 6덕을 기반으로 인성 진흥

- * 유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자각하고 참다운 사람다운 삶을 추구하는 만큼 현대적인 인성교육의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함. 특히 성리학은 인간의 본성이자 착한 선에 이르는 마음씨인 인의예지를 함양하고 사사로운 개인 욕심을 극복하는 ‘극기복례’를 추구하는데, 서원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육공간이자 수행의 장소임. 이러한 전통적인 서원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인성기본법’에 근거하여 인성을 함양하고 체험하는 교육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함
- * 특히 예산 서원 배향인물은 물론 역사 인물 가운데 효행 관련 인물이 많은 만큼 ‘효’를 특화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④ 전통적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확산을 위한 플랫폼 구축

⑤ 현대적인 서원 체험 및 교육콘텐츠 개발

- * 현대적 의미가 담긴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
- *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과의 연대 협력을 통한 지역 차원의 접근

* 특히 예산은 충·효·예(藝)의 고장인 만큼, 예술, 그 가운데서 예 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차별화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⑥ 서원 관련 인물 유적지를 연계한 예산권 공간 네트워킹 활용

* 서원 배향인물 생가, 묘소, 유적지를 상호 연계한 입체적인 문화체험프로그램 개발

□ 서원 활용과제

- 서원 복원 시 원형 그대로 복원을 할 것인지, 아님 활용을 목적으로 재현할 것인지 깊이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원형 복원은 원형이란 점에서 복구적 가치가 있는 반면, 규모와 시설의 기능 측면에서 현대적인 활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원형 복원이 역사적인 보존과 전시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데이터 축적과 전시 모형 등으로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현존하지 않는 것을 복원 또는 재현하는 경우 오히려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경우 효율적으로 서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당과 동서재 역할을 할 서원스테이 수련관을 건립하는 것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 발표문에도 강조되었듯이, 서원 활용을 위해서는 민·관·학의 공동협력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는 서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의 유무이다. 활용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지향하고자 하는 서원 활용을 위해서는 그것을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거나, 활용 가능한 지역의 단체나 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 서원 활용 인력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할 수 있다. 예산군의 역사

문화를 이해하는 전문 인력과 단체 외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서동아리, 청소년 교육단체, 생활예술단체 등도 서원 활용인력으로 매우 유효하다. 오히려 전자보다 후자가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그 이유는 그들의 다양한 경험과 관심 및 열정을 높이 평가할 필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문화재청의 서원 활용사업 외에,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길 위의 인문학이나,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인문독서아카데미 등을 서원 활용과 융통성있게 연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아울러 서원 활용인력은 중장기적으로 ‘예산학’ 차원에서 육성해야 한다. 예산학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시민교육프로그램으로 기획 운영하면, 그 과정에서 예산학 시민전문가들이 양성되고 그들이 핵심 인력으로 자기 역할을 하면 된다.

□ 서원 활용과 예산학

- 2018년 8월 열린 ‘예산학 연구발전 세미나’에서, 이해준 교수는 ‘예산학은 예산인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긍심을 되살리고, 새로운 시대에 예산의 활력과 방향을 선도할 주역들을 길러내며, 그 방향과 의식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였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 이와 같은 예산학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서원 활용은 예산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 특히 서원 활용은 예산의 전통성과 장소적 가치를 단시일에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뿐 아니라, 온고지신, 법고창신의 정신 하에 올곧은 예산의 정신을 정립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다.

- 서원 활성화는 곧 전통인식을 자극하고 오랜 세월 몸속에 형성된 문화유전자 meme을 자극하여 빠른 시간 안에 잠재된 정신세계를 일깨워, 마른 전통의 샘에서 맑은 물이 솟듯 지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산의 정체성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를 보다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록〉

1. 예산 지역 서원의 사진 자료
2. 예산학의 연혁

■ 덕잠서원



덕잠서원 현판



자암 김구 벼루



덕잠서원 유허비

■ 회암서원



회암서원 유허비



수위가 낮아 드러난 회암서원 사당 건물 주춧돌



회암서원 입구 천년 느티나무 아래에 있는 ‘槐園’ 암각서

■ 도산서원



도산서원(道山書院) 현판



포저 조익 선생 사적비



포저 조익의 묘와 묘소

2. 지역학의 요람, 예산문화원(예산군) - 예산학(禮山學)의 연혁 -

2015년

- 예산군과 함께 <충남학> 강좌(지역학 인문강좌)의 수탁 기관으로 선정

2016년

- 예산 지명 유래 1,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학 연구 기본서 『내포의 뿌리 예산학』 간행
- <충남학> 인문강좌 2년차 시행

2017년

- <내포의 뿌리 예산학> 인문강좌 1년차 시행
- <충남학> 인문강좌 3년차 시행

2018년

- 제1회 예산학 발전 학술세미나 개최(8월 27일, 예산문화원)
(주제 : “지역학으로서의 예산학의 지속 가능성 검토”)
- <내포의 뿌리 예산학> 인문강좌 2년차 시행
- <충남학> 인문강좌 4년차 진행

2019년

- 제2회 예산학 발전 학술세미나 개최(9월 17일, 예산문화원)
(주제 : “예산의 서원과 서원 복원의 필요성”)
- <내포의 뿌리 예산학> 인문강좌 3년차(심화과정) 시행
- <충남학> 인문강좌 5년차 시행

예산지명 1,100년 기념
제2회 예산학 발전 학술세미나

예산의 서원 역사와 서원 복원의 필요성

인 쇄 2019년 9월 10일

발 행 2019년 9월 16일

발행인 김 시 운

발행처 예산문화원

충남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90번길 3

학 술 지 원 한국문중문화연구원

편집디자인 누마루

* 비매품